연구보고서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박정호
강부균
민지영
윤지현
권가원
예브게니홍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 구 보 고 서
1 6 - 1 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연구보고서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인 쇄 2016년 12월 23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현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경성문화사 T. 02-786-2999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10,000원
ISBN 978-89-322-1634-8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 언

현재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대내외적으로 중대한 도전과제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저유가와 저성장, 러시아의 경기침체와 중국의 경기둔화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 축소,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과정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신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자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국가전략 방향이지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앙아시아는 전략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이며, 한국에도 중요한 협력 대상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은 유라시아의 교통・물류, 에너지 및 통상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핵심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전략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보고서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서 해외 중앙아시아 지역 전문가 설문조사, 현지 경제 전문가 및 정부 인사 인터뷰, 현지 연구자의 공동 연구진 참여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분석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기존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경제협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박정호 러시아・유라시아팀장이 연구책임을 맡았으며, 강부균

전문연구원, 민지영 전문연구원, 윤지현 연구원, 권가원 연구원, 예브게니 홍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경제연구팀장이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 진행과정에서 질적인 완성도 제고를 위해 생산적인 조언을 해주신 이재영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이권형 아중동팀장, 문인석 외교부 유라시아과장, 김영진 한양대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진 여러분의 노고와 함께 연구 지원과 편집에 도움을 준 성은비 연구조원, 그리고 연구 진행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가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실질 경제협력 증진은 물론,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에 유의미한 정책적 기여를 하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나가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두고 있었다. 이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 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 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중점 추진과제였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으며,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Nyrly Zhol)'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를 발표했다. 이는 경제 부문에서 민간 주도의 신성장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토대를 구

축하려는 전략적 시도였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와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우선적인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그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지만,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이며, 제조업 부문도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특징은 수출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 완화 등을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제시되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다. 이 국가전략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 등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중립국임을 표방하면서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통제를 기반으로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것에 핵심 정책 목표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과도한 원자재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에너지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 과제로 선정되었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이다. 특히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7년 사회・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적극적 투자 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국가발전 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것이다.

상술한 것처럼, 세계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시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하는 작업임과 동시에,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수립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볼 것이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경

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산업다각화와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 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나노 기술, 로보틱스・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이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 부문에서 실질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자와 관련하여 10대 우선 육성산업 부문(전력, 석유・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가죽・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산업 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 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와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 모색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철도 인프

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 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 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활용,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와 비에너지 산업 부문 육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나갈 필요가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 현대화(석유・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 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에 대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과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 부문에서 양자협력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 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개국의 경우 정상 외교를 통한 접근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그동안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던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정상급 회의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중앙아 협력의 3.0 시대'를 개척해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행동 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을 담당할 정부 주도의 '한・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이 조직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 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중앙아 정부고위관계자 및 민간기업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한・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례로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또는 KOICA 지부를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수 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한・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금 조성은 각

국의 국책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전문 산업인력 양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차 례

서언 ····· 3

국문요약 ····· 5

제1장 서론 ····· 1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0
2. 선행연구 검토 ····· 25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29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 33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 34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 47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 59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 70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 79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 80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 80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 85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 95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 95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 100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 106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 106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 110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 113

제4장 한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 123

1. 한 · 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24
   가. 한 · 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 124
   나. 한 · 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 129
2. 한·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42
   가. 한 · 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 142
   나. 한 · 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 146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 158
   가. 한 · 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 158
   나. 한 · 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 160
4. 한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 169

제5장 결론 ····· 181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 182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 187
3. 한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 193

참고문헌 ····· 200

Executive Summary ····· 220

표 차례

표 2-1.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35
표 2-2.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 ····· 38
표 2-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 ····· 39
표 2-4. 카자흐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 42
표 2-5.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48
표 2-6.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2015년) ····· 53
표 2-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 55
표 2-8.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 60
표 2-9.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2015년) ····· 63
표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 65
표 2-11. 인간개발지수 비교 ····· 71
표 2-12. 2016 경제자유도지수 비교 ····· 73
표 2-13. Doing Business 2016 항목별 순위 ····· 74
표 2-14. 물류성과지수(LPI) 비교 ····· 74
표 2-15. 부패인식지수 비교 ····· 75
표 2-16.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 76
표 3-1. '전략 2050'의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 87
표 3-2. 산업혁신 프로그램의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과 혁신부문 ····· 90
표 3-3. '누를리 졸(Nyrly Zhol)'의 추진과제 ····· 92
표 3-4. '100대 국정과제' 중 '산업화 및 경제성장' 분야의 주요 내용 ···· 94
표 3-5. 다각화 프로그램의 중점분야와 프로젝트 ····· 101
표 3-6. 현지화 프로그램의 생산 권고제품 목록 ····· 104
표 3-7.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 105
표 3-8.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2015년) ····· 113
표 3-9. 최근 중앙아 3국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 114

표 3-10. 최근 중앙아 3국 산업정책의 특징 ····· 116
표 3-11. 최근 중앙아 3국의 제조업 우선 육성분야와 기타 중점 분야 ···· 117
표 3-12. 중앙아 3국의 주요 산업화 지원방안 ····· 119
표 4-1. 한 · 카자흐 정부간 경제협의체 현황 ····· 127
표 4-2. 한 · 카자흐 주요 교역품목 변화(MTI 4단위) ····· 131
표 4-3. 업종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 135
표 4-4. 주투자자 규모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2010~16년 3월) ····· 136
표 4-5.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현황 (2010~16년 3월) ····· 136
표 4-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 138
표 4-7. 국제사회의 대카자흐스탄 ODA 지원 현황 ····· 140
표 4-8. KOICA의 대카자흐스탄 원조 추이 ····· 141
표 4-9. 한 · 우즈벡 정부간 경제협의체 현황 ····· 145
표 4-10. 우즈베키스탄 주요 교역대상국 ····· 147
표 4-11. 한 · 우즈벡 주요 교역품목 변화(MTI 4단위) ····· 148
표 4-1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업종별 투자(2015년 누계기준) ····· 151
표 4-13.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주요 에너지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 152
표 4-14. 국제사회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현황 ····· 154
표 4-15.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유상원조(EDCF) 지원 현황 ····· 156
표 4-16.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KSP 주요 내용 ····· 156
표 4-17. 한 · 투르크멘 정부 간 경제협의체 현황 ····· 159
표 4-18.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품목(MTI 6단위 기준) ····· 162
표 4-19.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입품목(MTI 6단위 기준) ····· 163

표 4-20.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에너지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 164
표 4-21.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업종별 투자(2015년 누계기준) ····· 167
표 4-22. 국제사회의 대투르크메니스탄 ODA 지원 현황 ····· 168
표 4-23.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무상원조(KOICA) 지원 현황 ····· 169
표 4-24.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 172
표 4-25.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분야별 협력수요 및 현황 ····· 176
표 5-1. '카자흐스탄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의 우선 육성산업 부문 ····· 188
표 5-2. 우즈베키스탄 산업 및 경제 부문의 우선순위 과제와 주요 내용 ····· 189
표 5-3.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 사회 · 경제 발전전략 2011~2030'과 '2015년 국내 산업발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과제 및 주요 내용 ····· 191

그림 차례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GDP 구조(2015년) ····· 37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 37
그림 2-3. 카자흐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 38
그림 2-4. 카자흐스탄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및 산업별 비중 ····· 40
그림 2-5. 중앙아시아 주요 운송로 및 에너지 수송로 ····· 44
그림 2-6.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조(2015년 예측치) ····· 50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 구조(2015년) ····· 50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 51
그림 2-9. 우즈베키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 52
그림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구조(2013년) ····· 61
그림 2-11.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 62
그림 2-12.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 62
그림 2-13. TAPI 가스관 ····· 67
그림 2-14. SCP, TANAP, TAP 가스관 ····· 68
그림 2-15. 투르크메니스탄의 부문별 전환지수(2014년) ····· 69
그림 2-16. 2014 EBRD 체제이행지수 비교 ····· 72
그림 3-1.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 86
그림 3-2.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 100
그림 3-3.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 110
그림 4-1. 한 · 카자흐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 125
그림 4-2.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 ····· 130
그림 4-3.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 133
그림 4-4. 한 · 우즈벡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 143
그림 4-5.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 ····· 146
그림 4-6.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 150

그림 4-7.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 157
그림 4-8. 한 · 투르크멘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 158
그림 4-9.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교역 ····· 161

글상자 차례

글상자 3-1. 산업 · 혁신발전 2010~2014 ····· 89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앙아시아(Central Asia)는 지리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보유한 지역이다.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 지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대륙의 군사안보적 거점지대이다.[1] 이는 다음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입증해 볼 수 있다. 2001년 9・11 테러 사태 발발 이후 중앙아시아는 '테러와의 전쟁' 수행을 위한 미국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이는 당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군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중앙아시아 주둔을 전격적으로 허락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는 최근 정치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력을 한층 키워가며 유라시아 지역 통합의 대표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주요 활동무대이다. 최근 이란과 파키스탄이 상하이협력기구의 회원국이 되었으며, 조만간 이란의 가입도 유력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둘째, 지경학적으로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보고이자,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핵심 교통 및 물류 루트 중 하나이다.[2] 이 때문에 이 지역의 에너지 자원과 수송로 확보를 둘러싸고 강대국들 간 '신거대게임(New Great Game)'이 벌어졌으며,[3] 최근에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간 협력과 경쟁이 교차하고 있다. 게다가 중앙아시아는 유럽~흑해~코카서스~카스피해~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트라세카(TRACEKA) 운송망 프로젝트의 종착점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소비에트 연방(Soviet Union)의 해체는 유라시아 국제관계 전반에 대변혁을 촉발시켰던 중대 사건이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동서 냉전질서

1) 박정호(2009), p. 68.
2) 이재영(2007), p. 138.
3) Blank(2012), p. 151.

붕괴에 따른 포스트소비에트 공간(Post-Soviet Space)의 형성이라고 하겠다. 결과적으로 소연방을 구성했던 15개 공화국들이 유라시아 대륙의 신생 주권국가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중앙아시아에는 카자흐스탄(Kazakhstan),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투르크메니스탄(Turkmenistan),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타지키스탄(Tajikistan)이 성립되었다. 이들 가운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전체적인 국력 수준과 경제성장 잠재력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를 대표하는 주요국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규모와 빈약한 국가적 역량, 시장경제 이행에 필요한 제반 토대 부족, 소연방 시기 구축된 경제적 연결망 붕괴 등으로 인해 1990년대 동안 체제전환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과 사회경제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대외경제 환경이 본격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상황이 호전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말부터 신흥 공업국들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다. 이러한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을 배경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자국의 풍부한 에너지 및 광물 자원과 러시아, 중국 등 넓은 배후시장을 활용하면서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했다. 이러한 성과와 성장잠재력 덕분에 2000년대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편이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나가는 데 본질적인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륙국 혹은 이중내륙국(Double landlocked country)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에 따른 교통 및 물류망의 한계, 시장경제 미성숙으로 인한 교역 및 투자의 제약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 러시아 경제와의 높은 연동성 등이 경제성장의 공통적 장애요인으로 간주되었다.

2008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비롯된 국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전반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그 결과 대외경제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됨에 따라 선진국

은 물론이고, 신흥국의 경제성장도 정체되거나 퇴보하고 말았다. 이러한 대외경제적 흐름 속에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의존도가 높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경제발전에 심각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현시점에서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한창 진행 중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전반적인 경제성장률 둔화 추세와 국제무역의 정체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 반세계화주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저유가와 저성장 기조의 장기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대두,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의 응집력 약화 등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도전과제에 직면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에 몰두해왔으며, 자신들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신 경제정책 수립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률이 2012년 이후부터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반영한 결과물이었다. 물론 카자흐스탄에 비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다.[4] 특히 2014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저유가와 저성장 등 불리한 대외경제 여건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에 핵심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 위기(Ukrainian Crisis) 발발 이후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지속과 저유가 추세 장기화로 인해 2015년 경제성장률이 -3.7%를 기록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5] 물론 국가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앙아시아 주요국과 러시아 간의 경제적 연계성이 상당히 큰 편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상당히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4)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2011년 7.5%, 2012년 5.0%, 2015년 1.2%를 기록한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2011년 8.3%, 2012년 8.2%, 2015년 8.0%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2011년 14.7%, 2012년 11.1%, 2015년 6.5%를 각각 기록했다.

5)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2016), p. 25.

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대외교역 및 투자유치 관련 제반 문제점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역내 및 역외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처해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한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들이다. 중앙아시아는 한국정부의 새로운 국가전략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실현, 즉 유라시아 국제협력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핵심 공간이기에 더욱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전략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국가전략의 핵심 기조는 대양으로의 진출이 제한된 유라시아 내륙 국가들과의 교역 및 투자 활성화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유라시아 다자협력 강화 및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추구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6] 중앙아시아는 남북 축으로는 중동과 남아시아,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며, 동서 축으로는 동북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대륙의 지정학적 및 지경학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한 전략적 가치 때문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목표로 하는 유라시아 교통・물류, 에너지 및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서 중앙아시아는 핵심적인 거점지대로 간주되고 있다.

상술했듯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발전은 우호적인 대외경제 환경(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가격 상승, 러시아와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형성에 힘입은 바 크다. 따라서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추세,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하겠다. 최근 들어 저유가 및 저성장의 장기화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거나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도전 요인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 축소와 국가전략 산업의 경쟁력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경제현대화 및 산

6)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문, http://news.joins.com/article/12892074(검색일: 2016. 8. 20).

업다각화 정책 추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관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협력의 성장잠재력 측면에서 보자면, 현재까지의 경제협력 수준은 애초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함은 기본이고, 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상호간 실질적인 협력 수요에 바탕을 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 경제발전전략에 부응할 수 있는 상생 및 호혜 협력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이 시기에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발전전략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과 내용, 핵심 특징 등 국정의 우선순위 경제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작업은 새로운 형태의 양자 및 다자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전작업이나 마찬가지다. 또한 이에 기초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관계의 증진은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제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신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여기서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을 다음의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겠다. 먼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을 심도 있게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기본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을 주도면밀하게 고찰하면서 각 국가별 경제적 토대와 특성을 도출해내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시기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셋째, 수교 이후 24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협력체계 현황, 분야별(교역, 투자, ODA)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냉전시기 소비에트 연방의 영토였던 중앙아시아는 접근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곳이었다. 따라서 당시 상당히 제한적으로 행해졌던 중앙아시아에 대한 연구 작업은 탈냉전시기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중앙아시아 정치, 외교, 안보, 사회문화 이슈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및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경제 이슈와 관련된 연구 성과물들도 현재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황이라고 하겠다.[7)]

7) 김경(2005),「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국제경영리뷰』, 제9권 2호; 이재영(2009),「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 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이지은(2015),「카자흐스탄 녹색성장정책 연구: 카자흐스탄 2050 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유라시아연구』, 제12권 4호; 강명구, 공석중(2007),「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우리나라의 진출 방안」,『유라시아연구』, 제4권 제1호; 윤영미, 이진영(2011),「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에 대한 고찰: 특성과 과제를 중심으로」,『한국시베리아연구』, 제15권 제2호; 조원호(2013),「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이션 연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심으로」,『슬라브연구』, 제29권 제4호; 정행득, 이상호(2009),「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전략」,『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이유신(2009),「중앙아시아 가스자원의 함의와 가스관 전쟁: 러시아와 서방세력을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2호; 이경희(2016),「중앙아시아 자원개발을 위한 가치공유국의 선택과 집중」,『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3호; 박지원(2013),「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을 중심으로」,『중동연구』, 제32권 제1호; 김영진(2012),「중앙아시아 노동이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슬라브연구』,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외 연구로는 2010년 출판된 폼프레트(Pomfret)의 "Central Asia after Two Decades of Independence"와 2014년 신글라(Singla)와 고엘(Goel)의 "Development Experience of Central Asian Countries since their Independence"를 들 수 있겠다. 전자는 소비에트 연방체제 붕괴 이후 새롭게 국제사회에 등장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 1990년대와 2000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방향 및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후자는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 수준 평가 및 국가별 경제성과와 교역 패턴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 성과물이다. 한편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2007년 발간된 이재영 외의『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과『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등이 있다. 전자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발전 전망, 지구촌 주요 국가들의 중앙아시아 진출 방안과 정책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바람직한 대중앙아시아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통상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가치,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 목표 및 기본방향 설정, 구체적인 통상전략

제28권 제1호; Ganiev, B. and Y. Yusupov(2012), "Trade Regime and Recent Trade Developments," *UCA Working Paper*, No. 4; Ruziev, K. and T. Majidov(2013), "Differing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65, No. 4; ICG(2013), "Kazakhstan: Waiting for Change," *ICG Working Paper*, No. 250(30 September); Felipe, J. and C. Rhee(2013), "Report to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Policies for Industrial and Service Diversification in Asia in the 21st Century," *ADB Working Report*(October 2013); Hindly, B.(2008), "Kazakhstan and the World Economy: An Assessment of Kazakhstan's Trade Policy and Pending Accession to the WTO," *ECIPE Policy Essays*, No 1(March 2008); Bendini, R.(2013a), "Uzbek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246(September 2013); Bendini, R.(2013b), "Turkmen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169(May 2013); Mckinley, T.(2010), "The Puzzling Success of Uzbekistan's Heterodox Development," *CDPR Working Paper*, No. 44(January 2010); Kuchins, A. C. and J. Mankoff(2015), "Central Asia in a Reconnecting Eurasia: Turkmenistan's Evolving Foreig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CSIS Working Paper*(June 2015); ADB(2014),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Economic Centers," *ADB Institute*; Laruelle, M.(2014), "Russia and Central Asia," *European National Policies Series*, No. 17(September 2014).

및 실행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정책 방향 또는 국가발전 전략에 관한 우수한 학술 성과물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출간된 기존 연구들의 경우 몇 가지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첫째,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상당히 협소하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는 대체로 중앙아시아의 개별 국가에 대한 분석에 우선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비교주의 시각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체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연구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편이며,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전략의 독특성으로 인해 국내외 연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가이기에 그렇다. 둘째, 단면적인 연구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들은 외국자료에 대한 문헌분석에 집중하거나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의 공식문헌을 중심으로 한 단순한 정보 소개에 그치고 있다. 셋째, 현실정합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중앙아시아 관련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을 심도 있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에서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경제발전 정책의 방향과 특성을 정밀하게 비교한 연구들도 거의 부재하다. 그래서 연구의 대상 국가별 또는 시기별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일반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지역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상당히 포괄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들의 경우 현실정합성 측면에서 다소간의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는 편이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 볼 때, 기존 연구의 본질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학술적 및 정책적 차원에서 선도적인 중앙아시아 지역연구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측면에서 연구의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첫째, 연구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면서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본고는 개별 국가에 대한 연구의 범주에서 벗어나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세 국가들의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비교주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했다. 둘째, 단순한 문헌 분석 작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연구 방법을 적극 활용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 간담회 개최와 중앙아시아 3국 대상 현지 조사 진행, 중앙아시아 현지 전문가에 대한 위탁 연구 실시 등을 통해 본 연구 주제에 관련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대한국 협력 수요를 파악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특징, 경제성장 잠재력과 제약요인 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이에 기초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본원적인 경제발전 여건과 각국별 실질 경제협력 수요를 도출했다. 특히 수교 이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 현황과 경제관계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작업을 통해 지난 24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고찰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대외경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새로운 상생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접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넷째,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별 경제발전전략의 특성에 부합하는 한국의 중앙아시아 진출방안, 즉 현실정합성과 지속가능성을 겸비한 보다 차별성 있는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3.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본고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과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작업은 본질적으로 기존 연구 성과물들과 비교 시 차별성과 독창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분석의 정합성을 한층 높이는 데 주된 강조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핵심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의 방법과 구성은 아래와 같다.

먼저, 본고는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선행 연구들의 단점을 보완했다.

첫째, 보다 체계적인 문헌연구 작업을 진행했다. 1차 및 2차 자료를 적극 활용한 문헌연구와 통계조사를 진행함으로써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경제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기존 선행연구들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유용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함과 동시에, 해당 연구주제에 관련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의 제반 공식문서들(전략,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둘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한 현지 전문가 간담회 및 인터뷰를 최대한 활용했다.[8]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 분야 연구자, 경제부서 담당 정부 관리는 물론이고, 현지 진출 한국기업 관계자들 및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실제 경제상황과 유용한 현지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의 관계 현황 평가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취합하여 본고 내용에 적극 반영했다. 특히 중앙아시아 주요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제협력 프로젝트들

8) 현지 조사 시에 중앙아시아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특성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1차 전문가 간담회(발표자: 바체슬라프 도도노프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발표주제: "카자흐스탄 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는 2016년 7월 11일 아스타나에서, 2차 전문가 간담회(발표자: 블라들렌 김 우즈베키스탄 전망 및 거시경제분석 연구소 연구사무장, 발표주제: "우즈베키스탄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목표와 우순선위")는 2016년 7월 26일 타슈켄트에서, 3차 전문가 간담회(발표자: 세르게이 이그나쩨프(Sergei Ignat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연구원, 발표주제: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는 모스크바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의 참여 기회와 가능성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함과 동시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지속가능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셋째, 국내외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을 연구 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국내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을 수시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해외 중앙아시아 전문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연구작업의 객관성과 정밀성을 더욱 제고했다.[9] 또한 현지 중앙아시아 경제 전문가가 직접 연구진으로 참여했다.[10]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그에 대응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정책 변화 양상과 핵심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각 국가별 현지 경제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전체적인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격적인 연구작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사회적 및 경제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중앙아시아 각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그리고 제약요인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지리적 위치 및 천연자원 개발 잠재력, 생활수준, 생산・투자・교역 현황과 경제 구조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세부적으로 고찰한다. 이 작업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수립의 기본 배경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비교 및 평가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추진하는 경제발전전략

9) 해외 중앙아시아 지역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는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총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10)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산하 전략연구소 경제운영팀장인 예브게니 홍(Yevgeniy Hong)을 공동 연구진으로 참여시킴으로써 중앙아시아 주요국(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의 기본 구상(목표 및 과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들을 다각도로 파악하는 데 연구의 역량을 집중하며,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국가별 발전전략의 성격과 차별성을 규명한다.

셋째,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인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현안 과제를 도출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협력 추진체계 현황, 교역・투자・ODA 분석을 바탕으로 분야별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를 고찰하며, 이를 토대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별 미래 경제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넷째, 상기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에 부합하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새로운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고찰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1.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상반기 약 40%의 GDP 감소, 세 자릿수 이상의 하이퍼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다.[11] 이는 독립 이후 과거 소비에트 시기 구성공화국들 간에 형성되었던 수요・공급망에 불균형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획경제하에서 통제되었던 가격이 자유화되면서 급격한 가격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이다.[12] 게다가 1998년 핵심 경제협력 대상국인 러시아에서 경제위기가 발발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처럼 1990년대는 체제이행에 따른 혼란과 러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카자흐스탄에 역경의 기간이었다.

2000년대 국제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에너지 자원 수출국인 카자흐스탄도 경제적 번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0~07년간 평균 10%를 넘는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하게 됨에 따라,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부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세계 경제위기 발발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다. 그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임으로써 2010년과 2011년 경제성장률이 각 7.3%와 7.5%로 다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전성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에 촉발된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러시아에서 경기둔화가 나타났다. 그 결과 2012년부터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도 점차적으로 둔화되기 시작했다(표 2-1 참고). 이는 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한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 모델이 일정한 한계에 직면했기에 더욱 그렇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장기적 차원의 새로운 경제성장 모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1) 김영진 역(2012), pp. 154~162.
12) European Parliament(2013b), p. 4.

표 2-1. 카자흐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8.2	9.8	9.7	7.3	7.5	5.0	6.0	4.3	1.2
물가상승률 (전기말, %)	60.4	9.8	7.6	7.8	7.4	6.0	4.8	7.4	12.0
산업생산율	-5.2	14.1	5.1	10.1	3.5	0.7	1.8	0.5	-1.6
고정투자증가율	-37.9	16.1	28.1	3.8	3.9	9.1	4.9	0.2	0.0
소매거래증가율	5.5	9.4	7.4	17.0	11.6	12.4	13.2	8.4	-7.4
재정수지(%)	-	-	6.0	1.5	6.0	4.5	5.0	1.8	-5.3
경상수지(%)	-1.3	2.0	-1.8	0.9	5.4	0.5	0.4	2.8	-2.6
수입(십억 달러)	5.3	7.1	17.9	32.9	40.3	48.8	50.8	43.4	33.6
수출(십억 달러)	5.4	9.3	28.3	61.4	85.2	86.9	85.6	79.1	46.3
외환보유고 (십억 달러)	-	-	-	-	-	-	-	21.8	21.6
환율	60.95	142.13	132.88	147.36	146.63	149.12	152.14	179.18	222.66

자료: IMF(2016), WEO, http://www.imf.org(검색일: 2016. 7. 20);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6. 28).

한편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던 국제유가가 2014년 말부터 급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배럴당 50달러 미만으로 떨어졌다. 이로 인해 2015년 카자흐스탄의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2009년보다 낮은 것이었다. 2015년 8월 카자흐스탄 정부가 신속하게 변동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정적자 확대 및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고갈을 막을 수 있었다.[13]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달러당 179텡게였던 환율이 2015년 말 달러당 300텡게까지 급등하여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확대되었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소비재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카자흐스탄에서 소비자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과 동시에, 소비는 크게 위축되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경기부양책을 실시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저유가 추

13) KOTRA(2015b),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창(窓)」, 『KOTRA 알마티 무역관 소식지』, http://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306/fileDownLoad/37352.do(검색일: 2016. 10. 5).

세의 지속에 따른 재정수지 및 경상수지 적자 등이 발생하여 카자흐스탄의 거시경제지표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저유가 추세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회복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의 최근 경제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에 대한 고찰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는 에너지 관련 산업에 편중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독립 직후인 1992년만 해도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는 비교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당시 농업은 GDP의 27%, 공업은 43%, 서비스 부문은 29%를 차지했다.[14] 당시에도 자원 관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야금, 화학, 경공업, 기계제조 등 원자재 가공 및 제조업의 비중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15] 그러나 2000년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채굴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16] 2010년 GDP에서 차지하는 채굴업의 비중이 17.7%까지 확대되었으나, 최근 저유가로 인해 2015년 15.1%로 다소 축소되었다(그림 2-1 참고). 채굴업 이외에 에너지 관련 산업을 포함시킬 경우 실질적으로 GDP에서 약 20%를 차지하는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17] 또한 산업부문만 고려할 경우 채굴업의 비중이 2015년 기준 50.9%(2010년 61.4%)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다.

카자흐스탄은 무역구조에서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수출에서 광물자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 71.6%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그림 2-2 참고). 한편 기계・설비・운송기기(40.6%), 석유・화학제품(14.9%) 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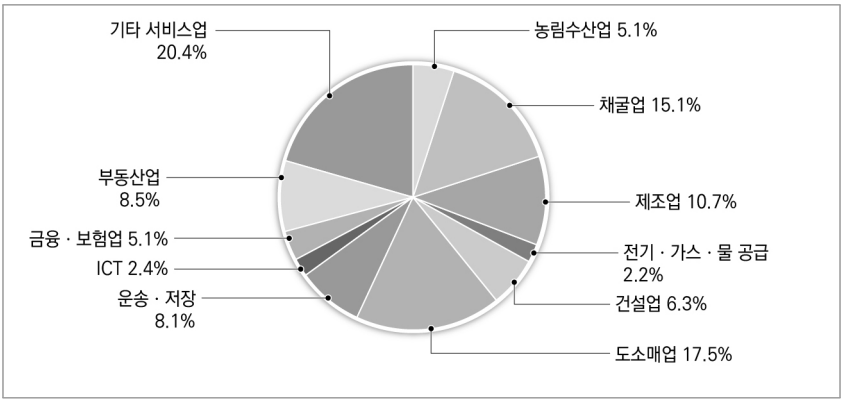
14) European Parliament(2013b), p. 7.

15) Вестник, "Казахстан - анализ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аны," http://365-tv.ru/index.php/analitika/%20kazakhstan/129-kazakhstan-analiz-osnovnykh%20-otraslej-promyshlennosti-strany(검색일: 2016. 10. 19).

16) Esanov, A.(2012), p. 7. http://www.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RWI_Econ_Diversification_Kazakhstan.pdf(검색일: 2016. 10. 19).

17) 염동호(2016), p. 1.

그림 2-1. 카자흐스탄의 GDP 구조(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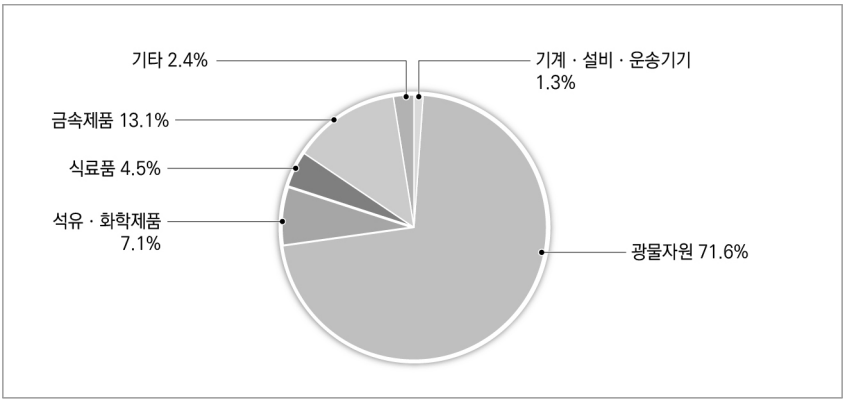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검색일: 2016. 8. 10).

같은 제조품의 수입 비중이 크다(그림 2-3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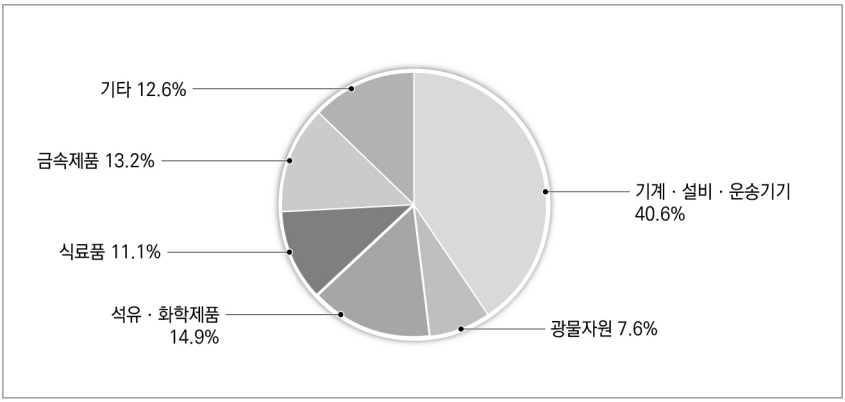
카자흐스탄의 주요 무역대상국에서도 편중된 모습이 나타난다(표 2-2 및 2-3 참고). 2015년 기준 주요 수출국은 이탈리아(17.8%), 중국(12%), 네덜란드(10.9%), 러시아(9.5%), 프랑스(5.9%) 등이며, 5대 무역 파트너에 대한 수출

그림 2-2. 카자흐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검색일: 2016. 8. 10).

그림 2-3. 카자흐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검색일: 2016. 8. 10).

이 전체 수출의 절반을 상회한다. 상품 무역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주로 카자흐스탄의 에너지 수출 대상국이다. 한편 수입국의 경우 편중도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 러시아(33.9%), 중국(16.8%)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이미 전체 수입의 50%를 넘는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의 경우 제조품의 수입처가 매

표 2-2.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출국

2010		2015	
중국	17.1	이탈리아	17.8
이탈리아	16.2	중국	12.0
러시아	8.1	네덜란드	10.9
프랑스	7.5	러시아	9.5
네덜란드	7.0	프랑스	5.9
오스트리아	4.3	스웨덴	5.8
캐나다	4.1	그리스	2.8
독일	3.0	터키	2.8
영국	2.3	스페인	2.7
이스라엘	2.2	우크라이나	2.6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0"(검색일: 2016. 8. 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검색일: 2016. 8. 9).

표 2-3. 카자흐스탄의 주요 수입국

2010		2015	
러시아	37.0	러시아	33.9
중국	13.3	중국	16.8
우크라이나	6.4	독일	6.6
독일	6.1	미국	4.7
이탈리아	5.3	이탈리아	3.9
미국	4.4	우크라이나	2.7
영국	2.4	터키	2.5
터키	2.1	우즈베키스탄	2.4
한국	1.8	프랑스	2.2
프랑스	1.7	한국	2.0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0"(검색일: 2016. 8. 9);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검색일: 2016. 8. 9).

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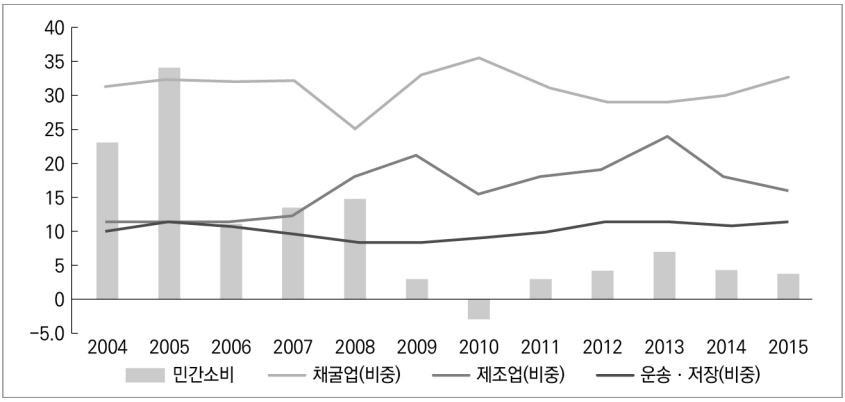
에너지 부문은 카자흐스탄 GDP의 24%, 재정수입의 50%, 수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의 70% 등 경제에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18] 에너지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제는 세계경기가 상승 국면에 있는 경우엔 높은 성장을 이루는 반면, 최근과 같이 세계경제 둔화와 저유가가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매우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러한 카자흐스탄 경제의 취약성은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후부터 경제성장률 하락, 재정수지 적자, 환율 급등 등을 통해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채굴업은 자본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며, 실물경제 성장에도 별다른 도움을 줄 수 없다. 반면 제조업 발전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저축 증가 및 가계 소비 지탱, 총요소생산성 향상, 인적자원과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 경제성장을 이끄는 데 큰 도움이 된다.[19] 따라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제조업 발전을 통한 산업다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20]

18) Lazard Asset management(2015), p. 176.

19) Dan Su and Yang Yao(2016), pp. 12-14.

그림 2-4. 카자흐스탄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및 산업별 비중

(단위: %)



자료: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검색일: 2016. 8. 9).

카자흐스탄의 제조업 기반은 상당히 취약하다. 2015년 기준 카자흐스탄 제조업은 GDP의 10.7%를 차지하지만, 에너지 관련 산업을 제외한 제조업의 비중은 이 수치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제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지만, 제조업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적은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정자산투자에서 채굴업의 비중이 30%에 달하는 반면, 제조업은 단지 10%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2-4 참고). 이처럼 부실한 제조업 기반으로 인해 카자흐스탄은 자본재와 소비재를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총 수입에서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43%와 3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21] 향후 제조업 발전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및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카자흐스탄 경제의 주요한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천연자원, 인구, 사회 현황, 인프라 등 기본적인 경제발전 여건을 살펴보기로 한다.

20) World Bank(2015b), p. 28.

21) WITS, "Kazakhstan import 2011-2015," http://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KAZ/StartYear/2011/EndYear/2015/TradeFlow/Import/Indicator/MPRT-PRDCT-SHR/Partner/WLD/Product/UNCTAD-SoP3(검색일: 2016. 9. 29).

카자흐스탄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300억 배럴의 원유(전 세계 매장량의 1.8%, 세계 12위)와 1.5조㎥의 천연가스(전 세계 매장량의 0.8%, 세계 22위)가 매장되어 있다.[22] 최대 규모의 유전은 2000년에 발견된 카샤간 유전으로 추정매장량만 380억 배럴에 달한다. 2013년 생산 개시 후 한 달 만에 가스 누출사고로 생산이 중단되었으나, 향후 생산이 재개될 경우 카자흐스탄의 석유생산량은 현재의 일일 170만 배럴에서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 세계 최대 우라늄 생산국(세계 생산량 31%), 세계 2대 크롬철광 생산국(세계 생산량 13%), 세계 4대 티타늄(세계 생산량 6%) 및 마그네슘 생산국(세계 생산량 3%), 세계 5대 레늄 생산국(세계 생산량 5%)이다. 이 외에 카자흐스탄에는 중정석, 보크사이트, 카드미늄, 구리, 갈륨, 황, 아연 등 다양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첨단기술을 활용한 광물산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향후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광물생산국으로서 큰 잠재력을 지닌다.[23]

카자흐스탄은 2015년 기준 약 1,77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나 광활한 영토로 인해 인구밀도(1㎢당 6.4명)는 낮은 편이다. 인구의 평균연령은 29.7세로 비교적 젊으며,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의 고등교육인구는 30% 정도로 다른 개도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동인력의 질도 양호한 편이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은 100여 개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이다.[24] 1989년 40.1%에 불과했던 카자흐인의 비중이 2009년 기준 63.1%로 늘어난 반면, 독립 이후 이주 급증에 따라 러시아인의 비중은 23.7%로 줄어들었다.[25] 그 외에 독일계, 우크라이나계, 우즈벡계, 한국계 등의 주요 소수민족이 존재한다. 다양한 민족

22) 한국수출입은행(2015), p. 10.
23) USGS(2016a), pp. 24.1-24.12.
24) Tolesh(2012), p. 2.
25) Saparbekova, Kocourkova and Kucera(2015), pp. 80-83.

표 2-4. 카자흐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달러)	1,059	1,231	3,753	9,009	11,278	12,034	13,501	12,506	9,796
빈곤율(%)	-	46.7 (2001)	31.6	6.5	5.5	3.8	2.9	2.8	-
평균수명(세)	64.9	65.5	65.9	68.3	69.0	69.6	70.5	71.6	-
명목임금수준(달러)	-	-	256	527	614	679	717	675	565
고등교육 인구(%)	-	-	-	26.3	27.6	29.5	30.0	-	-
실업률(%)	11.0	12.8	8.1	5.8	5.4	5.3	5.2	5.0	5.0
인구(백만 명)	15.7	14.9	15.2	16.4	16.7	16.9	17.2	17.4	17.7

자료: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6. 28); World Bank data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 (검색일: 2016. 7. 20).

으로 구성된 카자흐스탄은 민족간 갈등 발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가 건설과정에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인만의 국가가 아닌 카자흐스탄 국민국가로서의 국가정체성을 제시했다. 이에 기초하여 오늘날 카자흐스탄은 다민족 통합사회를 추구하며 안정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고유가 덕분에 급속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은 주변국들에 비해 양질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표 2-4 참고). 2000년 약 1,200달러에 불과했던 카자흐스탄의 1인당 GDP는 다년간의 고성장을 통해 2011년에는 1만 달러를 상회했다. 최근 저유가로 1인당 GDP가 다소 감소하긴 했으나, 다른 개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1년 46.7%였던 빈곤율도 대폭 축소되어 2014년에 2.8%를 기록했으며, 평균수명은 2013년 70세를 넘어서게 되었다. 실업률도 5%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임금은 10년 만에 대략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부문의 발전은 기업환경 개선과 투자를 통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2014년 카자흐스탄 GDP에서 투자의 비중이 19.9%로 낮아졌는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26] 최근 경기악

26) 중국은 약 45%, 인도 및 인도네시아는 30% 이상의 고정자산투자 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World Bank data bank,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GDP)"(검색일: 2016. 10. 5); Dajin

화 상황 속에서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필요하다. 이는 금융제도 정비, 은행권 건전성 제고, 신용평가 기준 마련 및 정보 제공 등 금융부문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금융부문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발달한 편에 속하지만, 여전히 발전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체제전환 보고서 2015~2016』에서 카자흐스탄의 금융부문은 발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27] 2007년까지 카자흐스탄의 금융부문은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국계 은행자산의 비중이 축소됨과 동시에, 주식시장 자본화 비율 역시 감소되는 등 금융부문은 오히려 퇴보했다.[28] 카자흐스탄 은행권의 부실채권 문제도 금융부문이 저평가를 받는 주된 이유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기업들이 대출금 상환을 못하게 되면서 2008년 7.1%로 측정되었던 부실채권의 비중이 2009년 37.8%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5년 6월 기준 전체 대출액의 23%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29] 카자흐스탄의 경우 『글로벌 경쟁지수 보고서 2015~2016』의 금융시장 발전 항목 중 은행건전성 하부 항목에서 140개국 중 110위를 기록했다.[30] 급격한 경기둔화 상황에서 부실채권 문제는 카자흐스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속시키고, 최악의 경우 금융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세계은행이 평가하는 '물류성과지수(Logistics Performance Index) 2016'에서 카자흐스탄의 물류성과지수는 주변국들에 비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

Li(1998), p. 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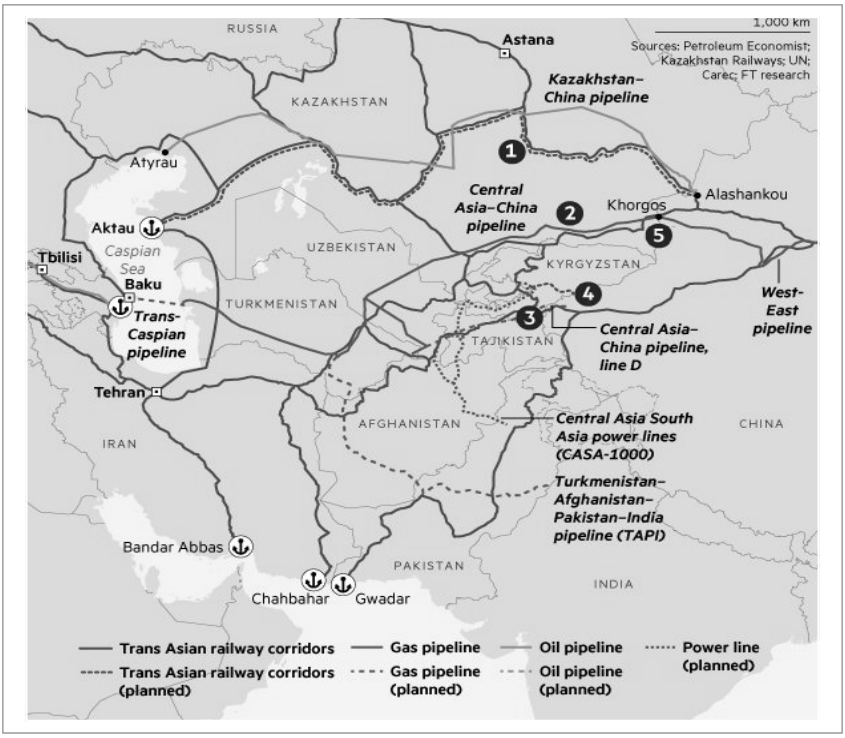
27) EBRD(2015), p. 91.

28)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검색일: 2016. 9. 23).

29) 염동호(2016), p. 7;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 (검색일: 2016. 9. 23).

30) World Economic Forum(2015), pp. 218-219.

그림 2-5. 중앙아시아 주요 운송로 및 에너지 수송로



자료: Jack Farchy and James Kynge(2016), "Map: Connecting central Asia"(May 9), http://www.ft.com(검색일: 2016. 10. 20).

며, 통관, 물류 인프라, 국제운송, 물류기업 경쟁력 등의 하부 항목에서도 모두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우수했다. 특히 물류 인프라 부문에서 카자흐스탄은 세계 160개국 가운데 65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정부는 물론이고, 국제기구와 중국 등이 카자흐스탄을 통과하는 육상교통 인프라 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향후 카자흐스탄의 교통・물류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인프라 사업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동서 운송노선과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을 연결하는 남북 운송노선 등이 있다. 카자흐스탄은 동서를 연결해주는 유라시아의 주요 운송통로로서 중국의 동부 항만과 우르무치로부터 컨테이너가 오갈 수 있는 교통・물류의 허브 역할을 담당하

고자 한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터키 등의 국가들과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고, 운송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 말 카자흐스탄 정부는 도스틱(알라샨코우) 국경지역에 이어 호르고스에 중국과의 두 번째 국경통관지역을 설치했으며, 카스피해 악타우 항에 투자하기도 했다(그림 2-5 참고). 이와 함께, 2015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출범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 추진은 카자흐스탄 교통 인프라 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중앙아시아를 주요 진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사업들이 실현될 경우 카자흐스탄은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ICT 인프라를 비교적 잘 갖추고 있는 국가이다. 카자흐스탄의 ICT 산업은 아직 초기 발전 단계이지만, 기존에 구축된 ICT 인프라는 향후 ICT 산업 발전은 물론, ICT 융합산업을 발전시키는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는 더 나아가 카자흐스탄이 산업다각화를 실현하고 경제성장을 지속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네트워크 준비지수(Network Readiness Index)'에서 카자흐스탄은 총 143개 국가 중 40위, 7점 만점에서 4.5점으로 비교적 높은 성적을 기록했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콘텐츠, 가격 적절성, 기술 등의 하부 항목이 포함되는 ICT 인프라와 관련된 부문에서는 5.5점으로 35위라는 양호한 점수를 받았다.[31] 또한 '글로벌 혁신지수 2016'에서 전체 순위는 총 128개 국가 중 75위를 차지했지만, 제도, 인적자원 및 연구 수준,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기술 생산, 창의 생산 등의 하부항목 중 제도 부문에서 66.5점으로 54위, 인프라 부문에서 46.8점으로 54위를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32]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카자흐스탄에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이 형성되고 있으며, 향후 ICT 인프라가 확대되고 기업환경이 개선된다면 경제효

31) World Economic Forum(2016), http://reports.weforum.org/global-information-technology-report-2015/economies/#economy=KAZ(검색일: 2016. 10. 5).

32) Global innovation index(2016), p. 234.

율성이 훨씬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관리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 중이다. 물론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시장경제와 가장 유사한 특징을 보유하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에 대한 개입은 상당히 큰 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민간부문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년 GDP 대비 민간부문의 비중이 65%로 전년도 70%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33] 한편 대외경제 정책의 경우 폐쇄경제를 표방하기보다는 경제개방을 통해 세계경제에 통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은 가입 신청 이후 거의 20년 만에 세계무역기구(WTO)의 162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가입 효과로 대외교역에서 관세, 비관세 장벽 완화, 국제기준에 합치하는 제도 마련, 투자환경 개선, 민간부문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그 예로서, 2018년부터 신차 수입관세율이 27.9%에서 13.3%로 인하되는 등 관세율이 인하되고, 같은 해 통신시장에 대한 외국인 지분 상한 49%가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2020년에는 외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립이 허용되는 등 서비스 시장이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34] 이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은 2015년에 출범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회원국으로 러시아, 벨라루스, 키르기즈 공화국, 아르메니아와 단일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아직까지 해결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공적으로 단일시장이 구축될 경우 시장 확대 효과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카자흐스탄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 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선결과제와 경제성장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축소하고, 지속적인 투자증진을 통해 제조업 기

33)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Structural Change Indicators,”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검색일: 2016. 9. 23).

34) 한국수출입은행(2015),「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p. 5.

반을 확대하여 산업다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부문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산업 및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투자가 활성화되기 위해 금융제도와 인프라 등이 확립되어야 한다. 반면 카자흐스탄의 첫 번째 발전 잠재력은 역시 풍부한 천연자원이다. 카자흐스탄은 산업발전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천연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원 수입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발전 잠재력은 물류 및 ICT 인프라 기반이다. 교통 및 ICT 인프라는 산업발전과 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큰 도움이 된다. 교통 인프라가 상품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다면, ICT 인프라는 정보의 흐름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물류 및 ICT 인프라가 일정 수준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개선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건전한 거시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개방경제 정책기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2.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우즈베키스탄은 체제개혁 초기부터 민영화, 대외개방 등 국제통화기금(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거부했다. 그 대신에 국가의 강력한 경제통제 아래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35] 1990년대 초반 우즈베키스탄은 폐쇄적인 대외경제 정책으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었으나, 급격한 개방정책을 선택했던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과는 달리 경제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1990년대 중반부터 4% 이상의 경제성장을 지속했으며, 다른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보다

35) 박상남(2012), pp. 209~210.

표 2-5.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0.9	3.8	7.0	8.5	8.3	8.2	8.0	8.1	8.0
물가상승률(%)*	304.6	25	10.7	12.3	12.4	11.9	11.7	9.1	8.5
수입(상품 · 서비스)	24.5	-11.2	-0.8	-13.2	16.7	18.5	7.6	-1.3	3.4
수출(상품 · 서비스)	18.9	1.5	-4.3	-0.3	-15.7	41.1	-6.4	-3.4	20.4
재정수지(%)	-3.8	-2.5	1.3	3.6	7.8	7.8	2.4	2.2	0.9
경상수지(%)	-0.2	1.8	7.7	6.2	5.8	1.8	2.9	0.7	0.0
환율	29.8	236.6	1,112.0	1,596.7	1,715.0	1,890.1	2,095.4	2,315.5	2,558.4

주: * 기간 평균치.
자료: IMF(2016), WEO, http://www.imf.org(검색일: 2016. 7. 20).

신속하게 1991년 경제수준을 회복할 수 있었다.[36] 면화 수출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37]은 1990년대 말부터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핵심기반을 마련했다. 그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은 2004~15년 동안 7%를 상회하는 지속적인 고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다(표 2-5 참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세계 경제체제와의 통합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당시 부정적 여파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단지 9%를 상회했던 경제성장률이 8%대로 약간 감소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유가급락으로 인해 밀접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의 경제가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우즈베키스탄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상기 두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과 이주노동자들의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송금규모는 2013년 기준 GDP의 11.9%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38] 그러나 2015년에는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해외송금액 규모

36) European Parliament(2013a), pp. 4-6.

37) Cotton Incorporated(2016), "Monthly Economic Letter," http://www.cottoninc.com/(검색일: 2016. 8. 11).

38) 러시아로부터 전달되는 송금액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2014년에는 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우즈베키스탄 GDP의 9.3%에 해당된다. 이 금액은 러시아 경기가 악화되면서 상당히 줄어든 금액으로 2012년 러시아로부터 전송된 금액이 57억 달러(우즈베키스탄 GDP의 약 16.3%)였다; World Bank(2016), p. 22.

가 전년대비 약 30% 정도 축소된 것으로 추산된다.[39]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이 2015년 8%(2014년 8.1%), 2016년 7.8%(전망)를 기록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성장률은 그 절반에 불과하다고 평가된다.[40]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공무원 임금을 15% 인상하는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물가상승률 증가와 소비감소 같은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부흥개발펀드(FRD)를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그런데 2016년 9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서거로 갑자기 정치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기도 했다. 그러나 총리인 미르지요예프(Mirziyoyev)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며, 그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공표함으로써 정권교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여전히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초기단계이며, 관리경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제구조를 살펴볼 때, 농업이 26.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제조업이 발전한 편이다(그림 2-6 참고). 우즈베키스탄에서는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부터 자동차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들어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자동차 생산국이자, 수출국이 되었다. 현지에서 생산된 자동차는 내수시장의 85~95%를 점유하고 있다.[41] 그러나 아직 제조업의 비중이 18.5% 정도이며, 농업을 추월하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러시아 시장으로 자동차를 수출했는데,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로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이 급감하면서 자동차산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42]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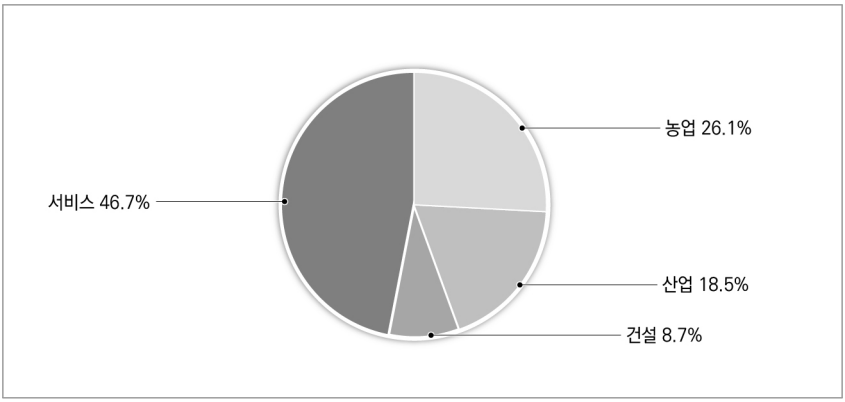
39) Inside the Cocoon(2015), "Remittances to Central Asia Fall Sharply, as Expected."(April 21).

40) EIU(2016b), p. 2; 대우 페르가나 면방 법인장 인터뷰(2016. 7. 28, 타슈켄트).

41) 한국수출입은행(2014), 「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 동향 및 시사점」, 타슈켄트 사무소, p. 3.

42)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발표 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28).

그림 2-6. 우즈베키스탄의 GDP 구조(2015년 예측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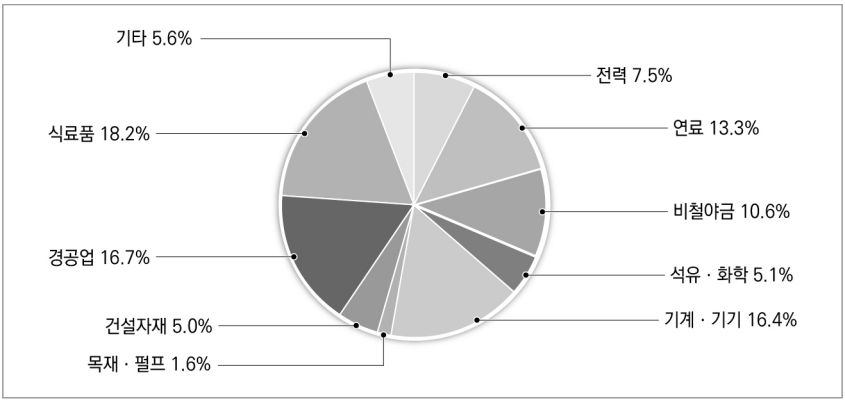


자료: World Bank(2015a), p. 3 내용 저자 편집.

업생산은 식료품(18.2%), 섬유에 기반을 둔 경공업(16.7%), 자동차를 비롯한 기계・기기 부문(16.4%)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 전력, 연료, 비철야금 등 자원과 관련된 부문도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2-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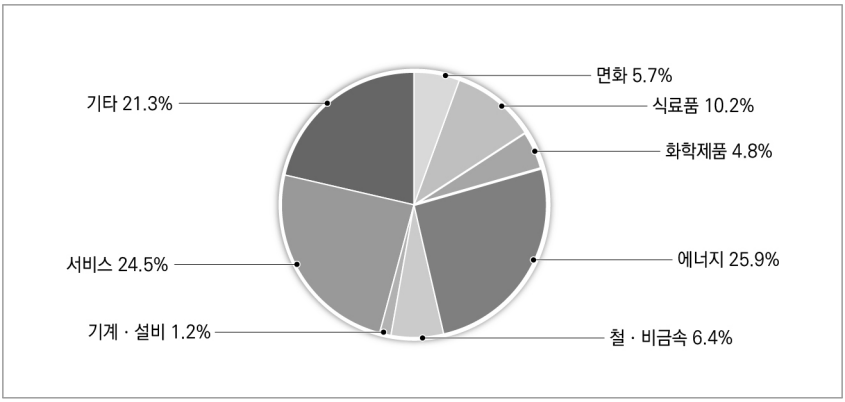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구조는 원자재 수출국의 면모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수출품은 주로 에너지(25.9%), 식료품(10.2%), 면화(5.7%)와 같은 원자

그림 2-7. 우즈베키스탄의 공업생산 구조(2015년)



자료: Гос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Осно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5"(검색일: 2016. 8. 9).

그림 2-8.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www.
mfer.uz/ru/export/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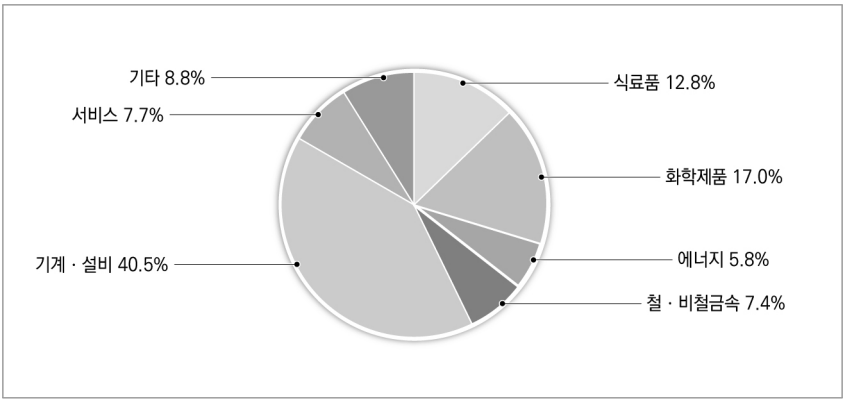
재로 구성된다(그림 2-8 참고). 따라서 수출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경제 개방도가 높지 않은 관계로 주변국에 비해 경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수입의 경우 기계・설비(40.5%), 화학제품(17.0%), 식료품(12.8%) 등 제조품 및 가공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 2-9 참고).

우즈베키스탄도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표 2-6 참고). 2015년 기준으로 수출부문에서 스위스(25.8%), 중국(17.6%), 카자흐스탄(14.2%)의 비중이 절반 이상이다. 수입의 경우에도 중국(20.8%), 러시아(20.8%), EU(16.5%)가 50%를 상회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최근 대외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과 협력을 강화하며 수출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43]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증가하는 경제활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제조업 및 첨단 서비스 산업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풍부한 노동인구는 경제성장에 긍정적

43) 전망 및 거시경제분석 연구소 연구사무장 블라들렌 김 & 노디라 압두나자로바 팀장(2016. 7. 26, 타슈켄트).

그림 2-9. 우즈베키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www.
mfer.uz/ru/export/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인 요인이지만, 만일 안정적인 일자리가 부족할 경우에 빈부격차 심화, 빈곤층 및 실업자들의 사회적 불만 고조 등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구조에서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실업률도 정부의 공식통계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주변국에서 일하고 있는 약 400만 명(경제활동인구 20% 상회)의 이주노동자를 고려할 때,[44] 우즈베키스탄의 고용문제는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최근 주변국의 경기 악화로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고용문제는 더욱 악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 및 첨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들 산업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과 노동생산성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45] 산업다각화, 특히 제조업과 첨단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중요

44) World Bank(2014), p. 26.

45) Center for Economic Research(2013), "Employment in Uzbekistan: Challenges and Prospects," *Development Focus Issue,* #10(June), http://www.cer.uz/upload/iblock/b4a/z10_qllxarhmiiydppewmgeng.pdf(검색일: 2016. 10. 7).

표 2-6.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2015년)

수출		수입	
스위스	25.8	중국	20.8
중국	17.6	러시아	20.8
카자흐스탄	14.2	EU	16.5
터키	9.9	한국	12
러시아	8.3	카자흐스탄	10.8
방글라데시	6.9	터키	4.6
EU	3.8	키르기스 공화국	3.2
키르기스 공화국	3.3	일본	2.4
투르크메니스탄	3.1	우크라이나	1.6
타지키스탄	1.3	미국	1.3

자료: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한 현안과제이다.

여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천연자원, 인구, 사회 현황, 인프라 등 경제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카자흐스탄이나 투르크메니스탄과 규모를 비교할 정도는 아니지만, 다양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임에 틀림없다. 우즈베키스탄은 2014년 기준 천연가스 1.1조 m^3, 원유 6억 배럴 등의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천연가스 생산량은 연 573억 m^3(세계 생산량의 1.6%)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효율화를 위해 외국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르길과 칸딤 프로젝트 등 가스 플랜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 우즈베키스탄에는 1,800여 종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8대 금 생산국(세계 생산량의 3.5%)이자, 세계 최대 고령토 생산국(세계 생산량의 19%)이며, 4대 레늄 생산국(세계 생산량의 11%)이기도 하다. 또한 몰리브덴, 질소, 황, 우라늄 등이 다량 생산되고 있으며, 구리, 석고, 은, 텅스텐, 아연 등도 채굴된다.[46]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주요 면화산지 가운데 하나이며, 2014년 기준으로 세계 7대 면화 생산국이자 3대 면화

46) USGS(2016b), pp. 49.1-49.9. 철광석, 리튬 등도 매장되어 있지만 생산되지는 않는다.

수출국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생산된 면화를 이용한 면직물 및 의류생산 부문에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면화를 원재료로 하는 면방직과 봉제업 등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2,990만 명이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인구밀도는 1㎢당 73.6명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2015년 인구증가율은 1.75%로 세계 인구증가율(1.18%)은 물론 상대적으로 인구증가율이 높은 남아시아 지역(1.34%)보다도 높다. 1991년 독립 직후 인구가 2,060만 명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지난 25년간 인구증가가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인구의 평균나이도 26세로 매우 젊으며,[47]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매우 높다. 경제활동인구는 1991년 55%에서 2015년 66.8%로 증가했으며, 이는 세계 평균 65.6%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48]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가 2012년 기준 1만 명당 20명으로 고급인력의 비중이 대단히 낮다. 따라서 비숙련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제조업 발전이 가능하다. 우즈베키스탄에는 카자흐스탄과 달리 소비에트 시대부터 우즈벡인이 주요 민족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이 외에 러시아인, 타지크인, 카자흐인 등의 소수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평균수명은 1995년 이후 소폭 늘어나 2014년에는 68.3세를 기록했다. 중저소득국인 우즈베키스탄의 빈곤율은 2000년 31.5%에서 2015년 13.7%로 감소했다.[49]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실업률은 5.1%로 낮게 유지되고 있지만, 국제연합(UN)은 2014년 실제 실업률을 10.2%로 추산했다(표 2-7 참고).[50] 현지조사 결과 최근 러시아의 경기침체, 주변국들의 경기둔화 등

47) UN data, "Median age," http://data.un.org/(검색일: 2016. 10. 7).

48) World Bank Data, "Population, Population ages 15-64, Population growth of Uzbekistan,"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10. 7).

49) IMF(2013), p. 9.

50) UN data, "Uzbek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UZBEKISTAN (검색일: 2016. 10. 6).

표 2-7.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달러)	448	551	544	1,367	1,561	1,721	1,891	2,062	2,121
빈곤율(%)	-	31.5	25.8	17.7	-	-	14.1	-	13.7
평균수명(세)	66.3	66.9	67.3	67.8	68.0	68.1	68.2	68.3	-
실업률(%)	0.5	0.4	0.3	5.4	5.0	4.9	4.9	5.1	5.2
인구(백만 명)	22.7	24.5	25.9	27.7	28.2	28.6	29.0	29.5	29.9

자료: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6. 28); World Bank data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6. 8. 9); Гос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Осно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5"(검색일: 2016. 8. 9).

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이 국내로 돌아오게 되면서 실업률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51] 또한 최근 경기악화로 인해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다.[52]

우즈베키스탄의 금융부문에서는 은행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2년 이후 보험, 임대, 소액금융 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금융부문은 여전히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53] 우즈베키스탄 금융부문은 정부의 강력한 통제하에 놓여 있으며, 국영은행의 비중이 무척 크다. 국영은행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최대지분을 보유한 은행을 포함한다면, 국영은행의 비율은 전체 은행부문의 77%에 달한다. 3대 국영은행이 전체 은행권 자산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5개 정부 지분 보유 은행이 35.5%의 비중을 차지한다. 반면 민간 및 외국계 은행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송금 및 환전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매우 어려우며, 외국 또는 국제 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아야만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다. 외화환전 문제는 외국계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무

51) 포스코 대우 우즈베키스탄 지사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전망 및 거시경제분석 연구소 연구사무장 블라들렌 김 & 노디라 압두나자로바 팀장(2016. 7. 26, 타슈켄트).

52) 대우 페르가나 면방 법인장 인터뷰(2016. 7. 28, 타슈켄트).

53) ADB(2011), p. 3.

역대금으로 받은 외화의 50%를 솜화로 환전해야 하며,[54] 현지은행에서 현지 화폐를 달러로 환전을 요청한 경우 6개월에서 1년 동안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는 현지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입하거나 과실송금을 할 때 큰 장애가 될 수밖에 없다.[55] 이러한 엄격한 환전 통제가 시장상황과 불일치하게 되면서 최근 암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56] 우즈베키스탄의 공식 환율은 2016년 초 달러당 2,822솜이었으나, 암시장에서는 약 6,360솜에 거래되었다.[57]

교통 인프라 발전은 우즈베키스탄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우선 추진과제이다. 교통 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그렇다. 실제로 타쉬구르자르~보이순~쿰쿠르곤 철도 건설로 지역총생산이 약 2% 증가했으며, 산업 부가가치, 서비스 부가가치가 각각 5%, 7%씩 증가한 바 있다.[58]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에 존재하는 교통 인프라의 대부분이 보수 또는 현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59] 독립국가연합(CIS) 회원국 이외의 국가들과 연결된 교통로가 없으며, 모스크바로 이어지는 철로는 단 한 개뿐이다. 철도의 경우 대부분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며, 2011년 9월부터 운영 중인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구간 고속열차선이 철도부문의 주요 성과물이다.[60] 도로의 경우도 상태가 열악하여 전반적으로 보수 및 재건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 도로의 40%만이 아시아 고속도로망(Asian Highway Network)에서 1급으로 분류되며, 나머지는 2급 또는 3급에 속한다.[61]

---

54) 『현대경제신문』, 「KDB 산은 "2012년 아시아 파이어니어 뱅크로 새로운 도약"」,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8(검색일: 2016. 10. 20).

55) 조영관(2015), p. 67.

56) EBRD(2013), p. 11, eDownLoad/37352.do(검색일: 2016. 10. 5).

57) EIU(2016b), p. 8.

58) Naoyuki Yoshino and Umid Abidhadjaev(2015), p. 25.

59) TRECECA, "Country Report on Infrastructure and Finance Uzbekistan," p. 2, http://www.traceca-org.org/fileadmin/fm-dam/Investment_Forum/110805_UZB_country_report.pdf (검색일: 2016. 10. 21).

60) Wikipedia, "Transport in Uzbekistan," https://en.wikipedia.org/wiki/Transport_in_Uzbekistan (검색일: 2016. 10. 21).

61) 1급은 아스팔트 및 시멘트로 만들어진 4차선이며, 2급은 아스팔트 또는 시멘트로 만들어진 2차선, 3

우즈베키스탄의 ICT 인프라는 매우 기초적인 발전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보통신 부문은 정부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인 우즈텔레콤이 주요 이동통신 사업자인데, 이 기업은 때때로 인터넷 속도를 통제하기도 한다. 우즈텔레콤이 2006년에 브로드밴드를 처음 도입했으며, 2008년 민영기업이 브로드밴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인터넷 보급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17%에서 2014년 40%에 도달했다. 인터넷 이용료가 비싸며,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인터넷 보급률 정체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하겠다. 아직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가정에서보다는 직장에서 인터넷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지역별 정보격차도 크게 나타난다.[62]

우즈베키스탄의 폐쇄적인 대외경제 정책과 엄격한 정부통제는 비효율성을 초래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방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경기침체를 빠른 시일 내로 극복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및 저유가의 직접적인 타격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부터 추진한 수입대체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에너지 수입국 우즈베키스탄은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모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자동차 수출국이 되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거나 국내산 제품이 수입제품과의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경우에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다.[63]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에너지뿐만 아니라 제조업, 금융 등 전체 산업부문에서 국영기업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국영기업들이 관료주의와 결합되어 운영시스템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인식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규모 민영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64] 그러나 기업환경이 아직 열악한 상황에

급은 역청으로 만들어진 2차선 도로이다.

62) Freedom House(2015), "Freedom on Net 2015 Uzbekistan,"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2015/Uzbekistan(검색일: 2016. 10. 23).

63) Bartel and Harrison(1999), pp. 1-49.

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지는 사실상 미지수이다.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 기업환경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경제적 여건을 고찰한 결과,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와 경제성장 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와 면화 등 1차 산업에 대한 의존도 감소와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단순 제조업의 비중 확대 등을 통해 산업다각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기반은 거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산업화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의 현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경제부문의 비효율성 축소와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목표로 삼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축소와 민간의 역할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반면 우즈베키스탄의 첫 번째 발전 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에 있다. 천연자원은 우즈베키스탄의 산업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국가의 전략자산이다. 두 번째 발전 잠재력은 풍부한 노동력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경제활동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제조업이 발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 향후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제반 여건이 개선된다면, 우즈베키스탄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64) 2015년 3월 대통령령 '2015~19년 생산구조 개혁과 현대화 방안 프로그램' 및 2015년 4월 '민간기업 확대 프로그램'을 통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2016년 2월에는 매각 예정 89개 주식회사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목록에는 우즈벡텔레콤, 우체국, 석탄공사, 5개 국영은행(Asaka, AgroBank, Ipoteka Bank, MikroKredit Bank, Qishloq Qurilish Bank) 등 주요 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

3.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독립 이후 투르크메니스탄은 민영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소비에트 형태의 경제발전전략을 유지하면서 수입대체정책 추진에 집중했다. 1990년대 상반기 노동생산성의 저하, 산업시설 파괴로 인한 장기실업과 경제악화, 아프가니스탄 국경분쟁 등이 발생함으로써 투르크메니스탄은 사회・경제적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낮은 생산성, 채굴업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제적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로 면화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농기계 노후화 및 수자원 관리 미흡 등으로 농업이 쇠퇴하고, 축산업과 식료품 산업 역시 후퇴했다.[65] 투르크메니스탄은 풍부한 천연가스 자원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자원개발 기술 부족과 폐쇄적 투자환경 등에 따라 한동안 열악한 경제사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66]

2000년대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10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꾸준히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및 운송업 중심의 경제발전전략을 마련했으며, 무역개방과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육성정책을 실시하는 등 이전 시기보다 다소 개방적인 대외경제 정책을 채택했다. 아울러 2000년대 말부터 새로운 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그동안 러시아에 국한되었던 석유・가스 수출을 점차 중국과 이란 등으로 다변화시킬 수 있었다.[67]

2014년 말부터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경제성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경제성장률은 6.5%를 기록했다(표 2-8 참고). 그러나 현지조사 결과 체감경기는 이보다 훨씬 안 좋은

65) 강명구, 공석준(2007), pp. 109~128.
66) 이지은(2012), p. 265.
67) 이지은(2012), pp. 264~266.

표 2-8.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경제성장률(%)	-7.2	18.6	13	9.2	14.7	11.1	10.2	10.3	6.5
물가상승률(%)*	1,005.3	8.0	10.7	4.5	5.3	5.3	6.8	6.0	5.5
수입(상품 · 서비스)	-	15.1	-9.5	-13.3	19.0	26.5	13.7	4.7	-20.4
수출(상품 · 서비스)	-	69.4	3.4	27.6	21.0	10.1	0.5	5.1	9.0
재정수지(%)	-	-0.5	0.8	2.0	3.6	6.3	1.2	0.6	0.0
경상수지(%)	0.0	8.2	5.1	-10.6	2.0	0.0	-7.2	-6.7	-12.7
환율(달러당)	0.02	1.04	1.04	2.85	2.85	2.85	2.85	2.85	3.50

주: * 기간 평균치.
자료: IMF(2016), WEO, http://www.imf.org(검색일: 2016. 7.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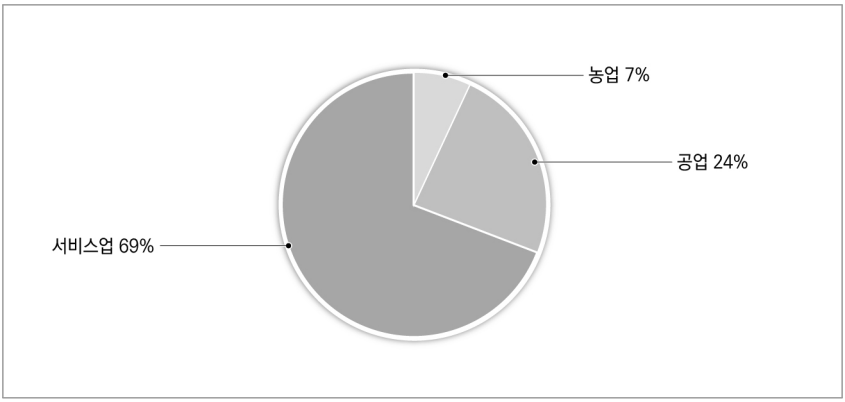
편이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2015년 실제 경제성장률은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16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2015년 초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급락하면서 자국화폐 가치를 20% 절하시킨 바 있다. 최근 경기악화가 지속됨에 따라 마나트화 가치절하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와 무역구조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이 겪고 있는 경제 현황의 근본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를 살펴보면, 서비스업이 6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공업이 24%, 농업이 7%를 각각 차지한다(그림 2-10 참고). 일반적으로 첨단 서비스 산업은 경제에 효율을 제공하여 성장에 기여하지만, 기존의 전통적 서비스 산업의 경우 경제발전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68]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이고, 첨단 서비스 산업도 저발전 상태에 있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서비스 산업은 높은 비중에 비해서 경제성장 기여도는 낮은 것으로 보이며, 고용도 실질적으로 많지 않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경제구조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전체

68) Ejaz Ghani(2011), pp. 4-5.

그림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GDP 구조(2013년)



자료: CIA Fact Book, "Turkmenistan," http://www.cia.gov(검색일: 2016. 8. 12).

산업생산에서 에너지 자원 부문이 80%를 차지하고 있기에 산업기반은 에너지 산업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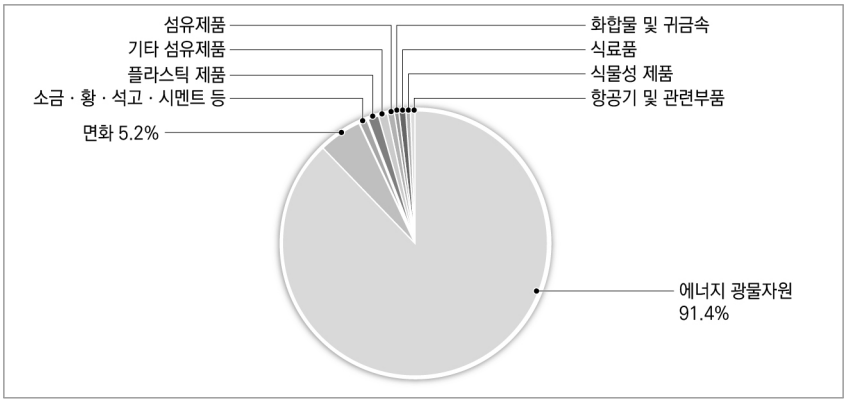
투르크메니스탄의 무역구조도 상당히 편중되어 있으며, 전형적인 자원수출국의 무역구조라고 할 수 있다. 수출의 91.4%가 에너지 및 광물자원으로 구성되며, 면화가 5.2%를 차지한다(그림 2-11 참고). 수입의 경우 기계(19.1%), 전자기기(14.2%), 운송기기(7.0%) 등의 제조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외에 알루미늄 및 철금속 제품(13.7%) 등 원자재 가공품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그림 2-12 참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높은 경제 의존도를 보인다(표 2-9 참고). 2015년 기준으로 주요 수출 대상국은 터키(24.9%), EU(16.3%), 러시아(12.3%)이며, 주로 가스를 수출하고 있다. 그동안 러시아에 대한 가스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았는데, 최근 중국, 이란, 유럽, 인도, 파키스탄 등과의 외교관계 개선을 통해 가스수출 다각화를 추구하고 있다.[70] 이에 대해 불만을

69) Kaznex Invest(2014), "Туркменистан - страновой обзор," p. 4, http://www.kaznexinvest.kz (검색일: 2016. 8. 10).

70) EIU(2016a), pp.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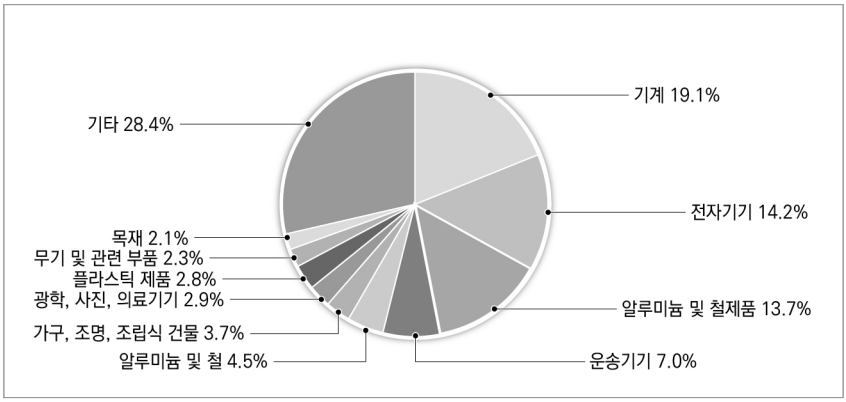
그림 2-11.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출구조(2015년)



자료: Trade Map, http://www.trademap.org/(검색일: 2016. 8. 9).

표시한 러시아는 2016년 초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했으며, 이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가 다소 소원해진 상태다.[71] 한편 수입의 경우 중국의 비중이 68.5%로 압도적이다.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어 소비재를 대부분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중국으로부터 조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환

그림 2-12. 투르크메니스탄의 수입구조(2015년)



자료: Trade Map, http://www.trademap.org/(검색일: 2016. 8. 9).

71) 윤지현(2016), p. 5.

표 2-9.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2015년)

수출		수입	
터키	24.9	중국	68.5
EU	16.3	터키	4.9
러시아	12.3	EU	4.2
중국	10.9	아프가니스탄	3.6
UAE	9.1	UAE	3.6
카자흐스탄	5.1	이란	2.4
이란	4.4	카자흐스탄	1.1
우즈베키스탄	2.8	타지키스탄	1.1
한국	2.4	조지아	1
우크라이나	2.3	러시아	0.6

자료: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율상승으로 인해 현지 체감물가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72]

앞서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구조와 무역구조가 매우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에너지 부문이 GDP의 40%, 재정수입의 70%, 수출의 90%, 공업생산의 75%를 차지한다. 또한 무역 파트너도 중국, 터키, EU, 러시아 등으로 매우 단조로운 편이다. 2000년대와 같이 유가가 높게 유지되고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저유가가 지속되고 러시아와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산업 및 무역다각화를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적절한 해결방안이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인구가 매우 적고 산업기반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 기계 등과 같은 제조업이 발전하기 쉽지 않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있는 상품은 식료품, 건설자재 등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숙련기술이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원자재 및 식품 가공업 발전

72) 포스코 대우 우즈베키스탄 지사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인력자원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첨단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식의 다각화가 보다 적합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자원, 인구, 사회 현황, 인프라 등 제반 경제여건을 우선적으로 고찰하고,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장기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와 성장잠재력을 파악하기로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매우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4대 천연가스 매장국가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2010년 424억 ㎥, 2011년 595억 ㎥, 2012년 623억 ㎥, 2013년 623억 ㎥, 2014년 693억 ㎥으로 점점 증가해왔다.[73] 2013년부터 생산이 개시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갈키니쉬 가스전 덕분에 천연가스 생산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3대 요오드 생산국인 동시에, 세계 8대 브로마인 생산국이다. 이 외에도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천청석, 벤토나이트 및 고령토 등의 점토, 석탄, 석고, 대리석, 탄산칼륨, 규사, 소금, 모래 및 자갈, 황 등 200여 가지의 광물이 매장되어 있다.[74]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540만 명이다. 인구에 비해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어서 인구밀도(1㎢당 11.4명)는 매우 낮은 편이다.[75] 인구의 평균연령은 26.4세로 매우 젊고, 총 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인구의 숙련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전체 인구에서 투르크멘인은 절대다수인 85.6%를 차지하고 있으며,[76] 그 외에 우즈벡인, 러시아인 등이 소수민족으로 존재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실업률은 2014년 12.1%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2-10 참고).[77]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민들에게 폭넓은

73) BP(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p. 22.

74) USGS(2015), pp. 46.1-46.8.

75) World Bank Data, "Population Density, 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1).

76) Chronicles of Turkmenistan(2015), http://www.chrono-tm.org/en/2015/02/the-results-of-census-in-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1).

표 2-10.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사회지표

구 분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인당 GDP(달러)	1,403	1,116	3,617	4,393	5,725	6,798	7,934	8,699	6,622
빈곤율(%)	29.9 (1998)	-	-	-	-	-	-	-	-
평균수명(세)	63.0	63.9	64.4	65.0	65.2	65.3	65.5	65.6	-
명목임금수준 (월, 달러)	-	-	-	-	297.5	330.9	367.4	405.0	188.0
실업률(%)	10.9	11.7	11.6	11.4	11.5	11.3	12.2	12.1	14.9
인구(백만 명)	4.2	4.5	4.7	5.0	5.1	5.2	5.2	5.3	5.4

자료: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6. 28); World Bank data(검색일: 2016. 8. 9),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검색일: 2016. 8. 9).

복지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크지는 않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1993년부터 국민들에게 전기, 가스, 물 등을 무상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78] 또한 거주비 지원과 관련하여, 집을 구매할 경우 30년 만기 및 연이율 1%대로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79] 최근 저유가로 인해 경기악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16년 7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공무원 임금, 연금, 학자금 지원을 10% 인상하겠다고[80] 발표하는 등 포퓰리즘에 가까운 복지정책을 계속 수행하고 있다. 평균임금은 2014년 405달러까지 상승했으나, 2015년 마나트 화폐가치를 절하시킴으로써 달러 표시 임금은 낮아졌다. 평균수명은 1995년 이후 소폭 늘어나 2015년 65.6세를 기록했다.

77) UN data, "Turkmen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TURKMENISTAN (검색일: 2016. 10. 7).

78) OilPrice.com(2014), "Free Energy Ride Over in Turkmenistan"(2014. 1. 20), https://www.google.com.ph/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X0t_9r8jPAhVGro8KHdroBOwQFggaMAA&url=http%3A%2F%2Foilprice.com%2FEnergy%2FEnergy-General%2FFree-Energy-Ride-Over-in-Turkmenistan.html&usg=AFQjCNEJAQBwQMgPRY9c5vFwmHvRIcvVYA(검색일: 2016. 10. 7).

79)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2014),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http://tkm.ved.gov.ru/ru/economy_fin(검색일: 2016. 9. 23).

80) EIU(2016a), p. 2.

투르크메니스탄의 금융부문은 국제금융시장과 매우 낮은 수준으로 통합되어 있어서 2008년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금융부문은 국영은행에 의해서 통제되고 있으며, 정부의 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은행부문이 금융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부문의 자산은 GDP의 52% 수준이다. 11개 은행 중 1개만이 민영은행이며, 상위 6개 은행이 총 대출액의 90%를 차지한다. 민간부문의 대출비중은 2012년 기준 GDP의 4%에 불과하다. 민간대출이 적은 이유는 은행권의 자산이 적고 기업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대출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비은행권으로부터의 대출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자본시장도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사모펀드는 존재하지 않는다. 향후 민간부문 활성화와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신용정보 시스템, 동산・부동산 자산에 대한 권리 등 금융서비스 관련 제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81]

투르크메니스탄의 교통 인프라는 대체로 낙후되어 있다. 국영기업이 교통부문을 주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 또는 국영기업에 의해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총 5만 8,592km의 도로가 건설되어 있으며, 이 중 1만 2,255km만이 포장된 고속도로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20년까지 총 2만 4,000km의 고속도로를 복구 또는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인 아슈하바트~다쇼구즈 구간의 고속도로가 보수 중이다. 철도는 소련 시기에 설치되어 매우 낙후된 상태이다. 2010년 기준 철도 길이는 총 3,110km이다. 최근에 남북철도사업이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길이는 보다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도시간 철도와 국제철도가 현대화되어야 한다.[82]

아울러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수출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즉 가스 플랜트 건설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과거 러시아로만 가스를 수출할

81) EBRD(2014), “Strategy For Turkmenistan,” p. 19, p. 25, http://www.ebrd.com/downloads/country/strategy/turkmenistan.pdf(검색일: 2016. 10. 21).

82) ADB, “Sector Assessment (Summary): Transport,” pp. 1-3,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linked-documents/43441-01-tkm-ssa.pdf(검색일: 2016. 10. 21).

그림 2-13. TAPI 가스관

자료: "Turkmenistan begins work on gas pipeline to India," World Bulletin(2015. 9. 4), http://www.worldbulletin.net(검색일: 2016. 11. 2).

수 있었던 투르크메니스탄은 1997년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완공함으로써 가스수출 다각화의 첫발을 내딛었다. 2009년 말부터 중국과 연결되는 가스관이 건설되었으며, 네 번째 라인이 추진되고 있다. 초기 가스관 용량은 연 300억 ㎥이었으며, 점차 연 650억 ㎥까지 확대될 계획이다.[83] 중국으로의 가스관 연결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에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TAPI 가스관 건설을 통해 인도로 천연가스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그림 2-13 참고). 이는 1993년 투르크메니스탄이 독립 직후부터 계획했던 가스관이었으나 2015년 12월에야 착공되었다. 100억 달러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TAPI 가스관은 길이가 1,800km(투르크메니스탄 200km, 아프가니스탄 773km, 파키스탄 827km)이며, 연간 330억 ㎥의 가스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로 각각 수송될 예정이다. 이 외에 아제르바이잔의 카스피해 연안과 조지아 및 터키를 연결하는 SCP 가스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터키의 동부와 서부를 연결하는 TANAP 가스관 건설도 추진되고 있다(그림 2-14

83) 조영관(2016a), p. 103.

그림 2-14. SCP, TANAP, TAP 가스관

자료: "SOCAR grapples with Sourthern Gas Corridor link-up," Interfax Global Energy(2016. 2. 8), http://www.interfaxenergy.com(검색일: 2016. 8. 20).

참고).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카스피해 해저로 가스관을 건설하여 아제르바이잔으로 연결하는 논의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 EU는 이 가스관을 통해 아제르바이잔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를 함께 도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84]

투르크메니스탄의 ICT 인프라는 초기 발전단계에 있다. 투르크멘 텔레콤이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2000년에 ICT 서비스 제공 독점권을 확보했다. 이후 정보통신부문의 성장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06년 중반에 아슈하바트에 인터넷 카페가 생기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인터넷 접근은 제한적이다.[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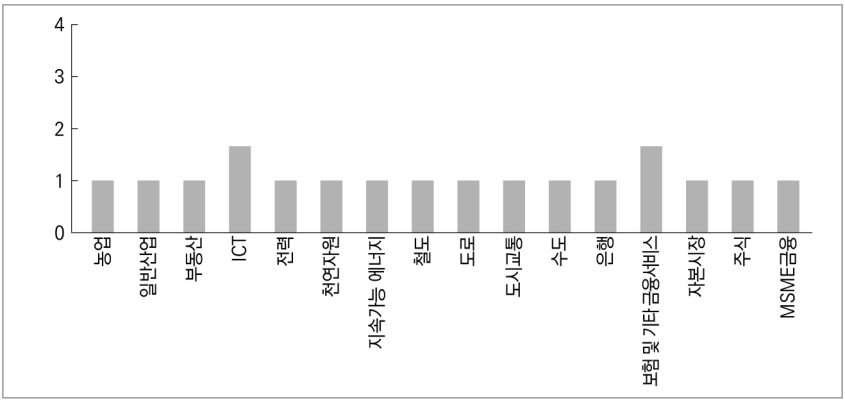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는 정부에 의해 관리 및 통제되고 있다. 또한 폐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펴고 있는데, WTO 가입 신청서를 내지 않은 상태이다.[86] EBRD

84) CACI(2016. 3. 30), http://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47-eus-southern-gas-corridor-still-lacks-strategic-approach.html(검색일: 2016. 8. 20).

85) EBRD(2014), "Strategy For Turkmenistan," p. 19, p. 25, http://www.ebrd.com/downloads/country/strategy/turkmenistan.pdf(검색일: 2016. 10. 21).

86) "Turkmenistan Country Strategy Paper 2014-2020," p. 3,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comitology/index.cfm?do=Search.getPDF&w97TlalgtiuyGKj9v9pF9VqBB7fI4EnisQ1BdEUO8vC5SVAw47eF02NzJJLXFBE77kGvLzo2Pu5uyjPyPE0HGhn1Yyu8a5hceFqN5ixnq

그림 2-15. 투르크메니스탄의 부문별 전환지수(2014년)



주: EBRD의 전환지수는 1~4점으로 표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가까움. 즉,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ICT와 보험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문에서는 별다른 개선이 없었음을 의미함.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 Turkmenistan, http://2014.tr-ebrd.com/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2).

가 평가하는 부문별 전환지수를 살펴보면, 정부의 개입 정도가 매우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2-15 참고).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가격통제, 관세인하, 보조금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키고 경제다각화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현지인들과의 교류도 정부의 통제가 심하며, 비자 발급과 현지인 초청 등의 절차도 매우 복잡하다.[87] 또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관료주의 행정절차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88]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공공부문은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6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30여 개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발표했으며, 2020년까지 민간부문을 7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에너지 산업은 전략산업인 만큼 100% 정부지분 원칙은 유지해 나가되, 비에너지 산업 중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비중을(현재 약 56%) 2020년까지 70%로 증가시키겠다는

YI=(검색일: 2016. 10. 21).

87) 엘지 인터내셔널 관계자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88) 서중물류 관계자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것이다.[89] 해당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에서 비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아주 작기 때문에 민영화 효과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여건을 고찰한 결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해결과제와 성장잠재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다. 첫 번째 과제는 인적자원에 대한 효율적 투자와 더불어, 산업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원자재 가공산업 및 단순 제조업의 활성화를 통해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다. 세 번째 과제는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것이다. 산업기반이 거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산업현대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이상의 과제 해결을 토대로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무역대상국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제의 비효율성을 축소하기 위해 경제에 대한 정부의 통제 및 개입 정도를 점진적으로나마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발전잠재력은 풍부한 천연자원에 있다. 천연자원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자, 산업발전의 유용한 토대가 될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향후 정부부문의 축소와 민간부문의 활성화 등 경제부문에서 제반 여건이 개선된다면,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여건 비교 및 평가

중앙아시아 3국 중 카자흐스탄은 비교적 개방된 경제체제를 보유하고 있기에 다양한 통계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 및 평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과 투

89)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2014),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http://tkm.ved.gov.ru/ru/economy_fin(검색일: 2016. 9. 23).

르크메니스탄의 경우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나 분석 작업은 매우 어렵다. 이처럼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전문가 설문조사, 현지조사, 철저한 문헌조사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과제 및 잠재력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특히 국제기구들이 개발한 다양한 지수를 동원하여 3국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ICT 인프라의 경우 카자흐스탄 이외에 두 국가에 대한 평가 내용이 없어서 생략하기로 한다.

우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사회발전 현황을 UNDP가 개발한 '인간개발지수(HDI)'로 비교해 볼 수 있다(표 2-11 참고). 앞서 각 국가의 경제여건에서 살펴보았듯이, 카자흐스탄에서 삶의 질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카자흐스탄은 2014년 0.788점, 총 188개국 중 56위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유일하게 '높은 인간개발지수 국가군'으로 지정되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0.688점으로 109위, 우즈베키스탄은 0.675점으로 114위를 차지하여 '중간 인간개발지수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긍정적인 점은 중앙아시아 3국의 인간개발지수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인간개발지수가 우즈베키스탄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의 평균수명과 교육기간은 우즈베키스탄보다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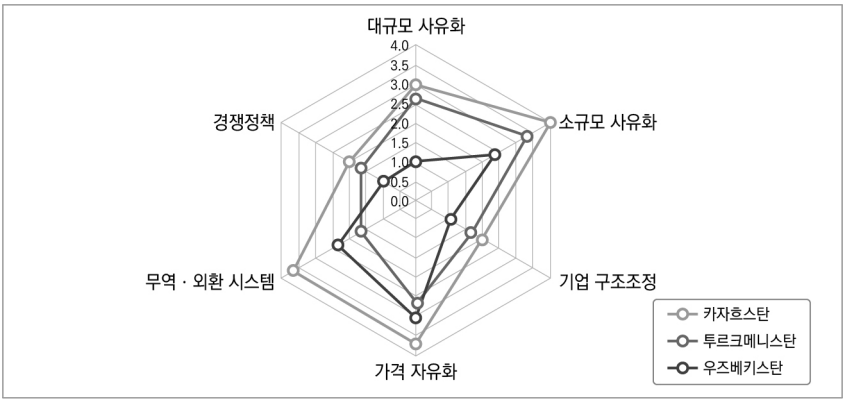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 관리경제에서 온전히 시

표 2-11. 인간개발지수[1] 비교

국 가	세계 순위[2]	2010	2011	2012	2013	2014
카자흐스탄	56	0.766	0.772	0.778	0.785	0.788
투르크메니스탄	109	0.666	0.671	0.677	0.682	0.688
우즈베키스탄	114	0.655	0.661	0.668	0.672	0.675

주: 1) 인간개발지수는 평균수명, 기대교육기간, 평균교육기간, 국민총소득 등을 종합하여 도출됨.
2) 인간개발지수(HDI)는 0~1점으로 평가되며, 1에 가까울수록 발전이 많이 된 것임. 2014년에는 188개국이 평가됨.
자료: UNDP(2015), pp. 212-215 데이터 저자 정리.

그림 2-16. 2014 EBRD 체제이행지수 비교



주: EBRD의 전환지수는 1~4점으로 표기. 점수가 높을수록 시장경제에 가까움.
자료: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검색일: 2016. 9. 23).

장경제로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다.[90] 중앙아시아에서 비교적 시장경제화가 진행된 카자흐스탄의 경우에도 EBRD '체제이행지수'의 6개 세부 항목에서 소규모 사유화 항목을 제외하면 시장경제(4점) 수준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쟁정책,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의 효율성과 관련된 항목에서 별다른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그림 2-16 참고).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경쟁정책, 무역・외환 시스템, 기업구조조정 등은 여전히 이행 초기단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이 평균적으로 이행 수준이 가장 낮다고 볼 수 있지만, 무역・외환 시스템과 가격자유화 부문에서는 우즈베키스탄보다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체제이행지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제자유도지수'에서도 카자흐스탄이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등 여타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표 2-12 참고). 2016년 기준 178개국 중에 카자흐스탄은 63.61점으로 68위를 차지하여 주변지역에서 유일하게 중간 정도 자

90) European Commission(2016), "College orientation debate on the treatment of China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2016. 1. 1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6-61_en.htm(검색일: 2016. 9. 23).

표 2-12. 2016 경제자유도지수 비교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국
세계 순위[1]	**68**	**166**	**174**	**27**
2016년 점수[2]	**63.61**	**46.02**	**41.89**	**71.74**
재산권	30	15	5	70
부패로부터 자유	29	18	17	55
재정적 자유	93	90.4	95.3	73.8
정부 지출	87.7	66.6	92.2	69.7
기업 자유	72.3	67.1	30	91.1
노동 자유	82.7	61.9	20	50.6
통화 자유	74	65.6	69.4	82.6
무역 자유	77.4	65.6	80	74.6
투자 자유	40	0	0	70
금융 자유	50	10	10	80

주: 1) 총 186개국 중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 시리아, 리히텐슈타인, 예멘 등 8개 국가는 평가 데이터 없음.
2) 100~80점은 자유로운 국가군, 79.9~70점은 대부분 자유로운 국가군, 69.9~60점은 중간 정도 자유로운 국가군, 59.9~50점은 대부분 자유롭지 못한 국가군, 49.9~40점은 통제된 국가로 분류됨.
자료: Heritage Foundation(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heritage.org/index/(검색일: 2016. 10. 5).

유로운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경제 전반에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존재하는 우즈베키스탄은 46.02점으로 166위, 투르크메니스탄은 41.89점으로 174위를 각각 차지함으로써 통제된 국가군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국가의 경제자유도 세부항목별 평가를 살펴보면, 투자와 밀접하게 연관되는 재산권, 부패로부터 자유, 투자 자유, 금융 자유 등의 항목에서 비교적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투자 자유 항목에서 최하 점수인 0점을 받아 투자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Doing Business'에서 카자흐스탄은 2016년 41위(12위 상승), 우즈베키스탄은 87위(16위 상승)를 기록했다(표 2-13 참고). 항목별로 보면 카자흐스탄의 경우 소액투자자 보호 및 사업 시작 등의 항목에서 큰 진전이 있었으며,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자금대출, 재산등록, 사업 시작 등의 항목에서 발전을 보

표 2-13. Doing Business 2016 항목별 순위

항목	카자흐스탄	순위변화	우즈베키스탄	순위변화
전체	**41**	**12**	**87**	**16**
사업 시작	21	32	64	22
건축허가	92	8	149	-2
전력공급	71	-3	108	-4
재산등록	19	6	113	26
자금대출	70	1	105	63
소액투자자 보호	25	39	87	-1
세금납부	18	-1	117	2
국경무역	122	-1	158	-1
계약서 발효	9	5	32	-
파산절차	47	16	75	-

주: 투르크메니스탄 통계는 부재.
자료: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검색일: 2016. 9. 30).

이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평가 대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 2-13]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의 폐쇄성과 정부의 강한 통제 등을 고려할 경우 우즈베키스탄보다는 낮은 순위를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앙아시아의 물류 현황은 전반적으로 중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최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물류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및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물류 인프라를 개선할 목적 아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에 점차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2-14

표 2-14. 물류성과지수(LPI) 비교

국 가	2014		2016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카자흐스탄	2.70	88	2.75	77
우즈베키스탄	2.39	129	2.40	118
투르크메니스탄	2.30	140	2.21	140
총	160개국		160개국	

주: 1~5점, 점수가 높을수록 우수함.
자료: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6. 7. 31).

표 2-15. 부패인식지수 비교

국 가	세계 순위	2015	2014	2013	2012
카자흐스탄	123	28	29	26	28
우즈베키스탄	153	19	18	17	17
투르크메니스탄	154	18	17	17	17

주: 총 168개 국가.
자료: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검색일: 2016. 10. 5).

참고). 2007년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의 물류지수는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2010년부터 러시아의 물류지수를 넘어서면서 최근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세계 160개 국가들 중 77위로 올라섰다. 우즈베키스탄도 물류 상황이 개선되고는 있으나 개선 속도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은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부패인식지수'는 전반적으로 낮게 평가된다(표 2-15 참고). 카자흐스탄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수의 등락이 반복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전반적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개선 정도가 매우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자유도의 하부 평가 항목인 '부패로부터의 자유'에서도 3국 모두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표 2-16]은 앞에서 국가별 경제 현황과 주요 특징, 해결과제와 잠재력, 그리고 국제지수에서 나타난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최근 저유가 기조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방도가 높고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카자흐스탄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경제의 폐쇄성과 국가의 통제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은 적은 편이나, 러시아와 중국 등 주변국들의 경기침체 또는 경기둔화로 인해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과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편이며, 새로운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의 방향

표 2-16.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구조와 성장잠재력 비교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경제 현황	• 저유가 지속에 따른 경기악화 • 경기침체기 진입 우려	• 저유가 및 주변국 경기악화로 인한 경기둔화 추세	• 저유가 및 주변국 경기악화로 인한 경기둔화 추세
경제 특징	• 풍부한 천연자원 •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 금융, 물류, ICT 인프라 기초 구축 • 개방경제	• 풍부한 천연자원 • 풍부한 노동인력 • 중앙아시아 최대 시장 •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 폐쇄경제	• 풍부한 천연자원 • 에너지 산업 중심 경제구조 • 금융, 물류, ICT 인프라 미발전 • 경제에 대한 강한 정부 통제 • 폐쇄경제
해결 과제	• 제조업 육성 및 산업다각화 • 금융부문 발전	• 1차 산업 의존도 축소 • 제조업 확대 발전 •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 인적자원 투자 • 금융 인프라, 물류 인프라, ICT 인프라 개선 • 경제협력 대상국 다양화 • 정부부문 축소 및 민간부문 활성화
잠재력	• 풍부한 천연자원 • 물류 및 ICT 인프라 • 개방경제 정책	• 풍부한 천연자원 • 풍부한 노동력	• 풍부한 천연자원
인간개발지수	높은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중간 인간개발지수
경제자유도	중간수준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통제된 경제자유도
시장경제	시장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관리경제에 근접
기업환경	양호한 수준	하위수준	-
물류환경	중간수준	하위수준	하위수준
부패인식지수	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최하위수준

자료: 저자 작성.

성은 큰 틀에서 나머지 두 개 국가와 유사하지만, 카자흐스탄의 경우 보다 높은 수준의 산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된 상태이다. 단기적으로 경공업을 중심으로 산업다각화를 도모해야 하며, 장기적으로 첨단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정부의 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폐쇄경제의 성격이 강하다. 경제가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기에 산업화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형성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경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풍부한 노동인력을 활용하여 단기적으로 단순 제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물론, 장기적으로 각종 산업 인프라를 개선 및 구축하여 경제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단기적으로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하며, 전략산업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에 대한 장기투자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제3장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분석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현재 세계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저유가 추세의 지속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전반에 불확실성을 고조시키고 있다.

2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 3국은 1990년대에 대체로 급격한 경제후퇴를 경험했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 경제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석유・가스, 비철금속, 면화 등 원자재 수출 호조에 있었다. 이렇듯 일차산품 수출에 의존적인 경제구조는 이들 국가의 경제가 대외경기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작용해 왔다.

2000년대 들어 고도성장을 거듭하던 중앙아시아 3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발발에 따른 경제의 급격한 위축을 경험했다. 게다가 최근 전 세계적 경기 침체와 유가하락의 영향을 동시적으로 받으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저유가 시기 중앙아시아 3국이 지금까지의 경제발전전략과 다른 정책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대중앙아 협력방안 모색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1.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최근 카자흐스탄은 과거 수출확대와 외자유치에 기반한 성장 중심 전략의 질적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즉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카자흐스탄의 정책방향 변화와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2000년대: 양적 성장 중심 전략

풍부한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을 보유한 카자흐스탄은 2000년대 들어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수출 잠재력의 극대화에 기초한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양적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91] 이러한 성장 중심 전략은 1997년 10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카자흐스탄 2030' 전략(이하 전략 2030)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략 2030은 카자흐스탄 정부가 독립 이후 체제전환 혼란기를 거치면서[92] 국가적 차원의 경제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자각한 후에 마련한 장기적 국가발전전략이다.

전략 2030은 경제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목표를 두었다.[93] 이 같은 목표달성을 위한 우선과제로 첫째, 석유・가스 생산 및 수출 확대, 둘째, 시장개방 및 외국인 자본유치 확대를 제시했다. 카자흐스탄 경제는 에너지・광물자원에 기반을 둔 소규모 경제(small economy)라는 점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시장개방이 필연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었다.[94] 카자흐스탄 정부도 에너지자원 개발 분야가 자본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외자유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

91) 아르슬란벡 오무르자코프(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 공화국 실크로드연구센터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92) 카자흐스탄은 가격자유화와 사유화에 기반한 급진적인 체제전환전략을 추진했으나,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경제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카자흐스탄의 1990년대 체제전환전략의 특징과 성과에 대해서는 김영진(2009b), pp. 103~135를 참조하기 바람.

93) Akorda(1997),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Октябрь, http://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rodu-kazahstana-oktyabr-1997-g(검색일: 2016. 9. 15).

94) 카자흐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자원기반 성장 모델을 추진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정책을 동반할 수밖에 없었다. 쿠쉬쿰바예프 사나트(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김석환 한국외대 교수 토론 내용,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이후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미래 전망」,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9).

이처럼 수출과 외자유치를 성장의 엔진으로 이용하여 비교적 단기간 안에 급속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은 한국을 포함한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압축 경제성장 노선을 추종한 것이었다. 전략 2030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30년경에는 카자흐스탄이 이들 국가의 뒤를 이어 중앙아시아의 눈표범(Snow Leopard), 즉 리더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전략 2030에 기반을 둔 성장 중심 전략의 또 다른 특징은 자원 수출 확대와 외자유치에 역점을 둔 개방경제체제를 추구하면서도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에 개입하는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를 운용해 왔다는 점이다. 이는 첫째,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장기집권체제 지속과 그에 따라 정비된 관료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운영, 둘째, 경제성장의 핵심 축인 자원분야에 대한 전략적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카자흐스탄 정부도 자원 채굴산업에 중점을 둔 성장전략의 한계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국제상품 가격변동에 취약한 경제의 구조적 제약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전략 자산을 관리하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 8월 원자재 가격하락에 대비한 국부펀드를 설립했다. 국부펀드의 설립 목적은 "첫째, 안정적인 사회・경제 발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저축, 둘째, 급격한 대외경기 변동으로부터 국가경제의 위기 예방을 위한 안정"에 있었다.[95] 즉 카자흐스탄의 성장 중심 전략의 기저에는 원자재 수익을 경기부양과 다른 산업육성에 투자함으로써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96]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략 2030 차원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비에너

95) 조영관(2012), p. 36.

96)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략 2050'에서 '전략 2030'의 성과 가운데 하나로 석유가스부문이 다른 산업부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의 동력(powerhouse)으로 자리매김한 점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수출시장 다각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한 점도 긍정적인 성과로 강조했다.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검색일: 2016. 9. 25).

지 부문 발전과 산업다각화를 중점과제로 제시했으나, 2000년대 국제 원자재 가격 호황기에 따른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정책의지와 추진력이 탄력을 받지 못했다.[97]

이렇듯 2000년대에 카자흐스탄은 정부 주도 아래 외자도입과 자원수출에 의존한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국제분업체제 아래에서 비교우위를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신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내륙국가, 소규모 경제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유지하면서 무역자유화를 추진했다. 카자흐스탄은 2015년 11월 가입 신청 19년 만에 162번째 회원국으로 WTO에 가입했다. 또한 역내에서도 개방적 지역주의 기조 아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에 참여하고 있다.[98]

2) 2010년대: 질적 성장 병행전략 추진

카자흐스탄의 성장 중심 경제발전전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둔화추세와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유가하락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질적 성장 병행전략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99]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략 2030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100] 이는 본격적인 경제개발 초기단계에 자본집약적 산업발전을

97) ADB(2013), p. 9; 한홍열 외(2015), p. 105.

98)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참여를 통해 경제다각화, 생산성 증대 등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교통, 제조업, 농업 등의 분야에서 잠재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내륙국이기 때문에 EAEU 차원에서 역내 통합 관세 적용을 통해 교통・물류비 절감 효과와 이에 따른 국내 상품의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비굴 마세르바예바(Bibigul Masserbaeva)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과장 면담(2016. 7. 12, 아스타나).

99) 염동호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전문가 간담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100) 기존 전략 2030을 개정하여 발표한 것은 변화하는 대내외 경제 환경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 노선을 빠르게 수정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략 2030을 개정

도모하면서 요소투입에 의존하여 양적성장을 유지해온 경제발전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였다.

이러한 고민은 2012년 12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통해 발표한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이하 전략 2050)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전략 2050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로존(Eurozone) 위기와 국제상품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2013~14년을 거치며 또다시 급격한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는 결국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 경제에 큰 불안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카자흐스탄 정부는 전략 2050을 통해 경제정책의 근본방침(principle)의 전환을 모색해 나갔다.

전략 2050은 세계 30위권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경제실용주의(economic pragmatism)에 기반한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기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 강화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세부과제는 투자환경 개선, 민간부문 효율성 제고, 인프라 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다각화 추진, 천연자원을 비롯한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PPP) 확대 등이다.

이렇듯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창출하는 데 장애요인이라는 점을 보다 분명하게 인식하고, 산업다각화를 통해 자본 집약적 산업에서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으로의 발전을 도모할 것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정부의 선제적이고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자원의존적인 경제구조의 타파가 어려운 것임을 자인한 것"이다.[101] 때문에 전략 2050에 기반을 둔 질적 성장 병행전략도 기본적으로 개입주의에 입각한 정부주도형 개

한 배경으로 첫째, 카자흐스탄은 이미 성숙한(matured) 현대(modern) 사회로 발전했기 때문에 경제발전 초기단계에 설정한 전략과 목표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으며, 둘째, 전략 2030의 기본 목표를 이미 달성했고, 셋째, 전략 2030 발표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금융위기, 세계적 경기침체 등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과제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검색일: 2016. 9. 25).

101)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대외경제전문가풀 연구회,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방안: 카자흐스탄 대내·외 환경 기반의 상생협력시대로」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방경제체제 노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자원의존적 불균형 성장이 초래한 불안요인들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구조를 개선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정책방향을 재정립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전환은 2015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국정연설 '새로운 글로벌 현실 속 카자흐스탄: 성장, 개혁, 발전'에서도 거듭 강조되었다.[102] 전략 2050 발표 후 3년 만에 이루어진 해당 연설은 국제 상품시장의 불안정과 세계경제의 저성장 지속, 유가하락 등 직면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8월 국가프로그램 '산업·혁신발전 2015~2019' 채택, 2014년 11월 인프라 개발에 중점을 둔 '신경제정책 누를리 졸(Nurly Zhol, Bright Path)' 발표, 2015년 5월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100 concrete steps)' 발표 등을 통해 직면한 경기대응과 장기적인 성장기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103]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민간 주도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 산업다각화를 비롯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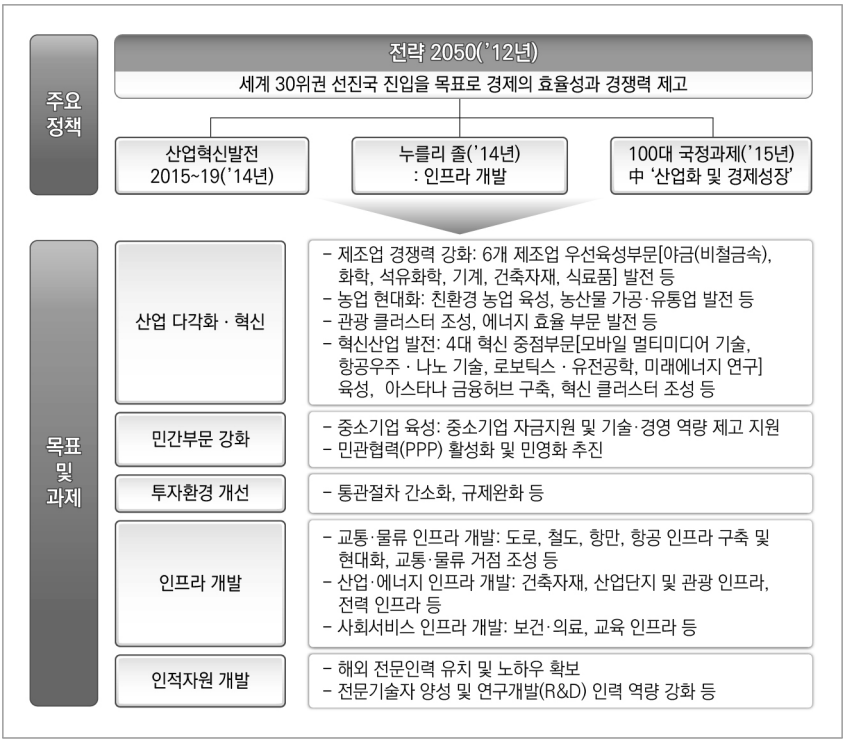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양적 성장과 함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질적 성장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큰

102)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30 ноября 2015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30-noyabrya-2015-g(검색일: 2016. 9. 25).

103)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15년 11월 국정연설 '새로운 글로벌 현실 속 카자흐스탄: 성장, 개혁, 발전'에서 글로벌 위기는 불가피한 물결(wave)이며, 이는 리스크인 동시에 기회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선도적인 반위기 전략(proactive anti-crisis strategy)을 추진하고 있다고 역설하고, '산업·혁신발전 2015-2019', '신경제정책 누를리 졸', '100대 국정과제'를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30 ноября 2015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30-noyabrya-2015-g(검색일: 2016. 9. 25).

그림 3-1. 최근 카자흐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자료: 저자 작성.

틀은 전략 2050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략 2050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 2050 추진의 일환인 동시에, 최근 대외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1 참고).

1) 전략 2050

전략 2050은 카자흐스탄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목표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2050년까지 세계 30위권 선진국 진입을 위한 양적 성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즉 질적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전략 2050은 새로운 단계(new course)의 경제정책 이행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 경제 실용주의(economic pragmatism)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첫째, 경제적 타당성과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의사결정 방식 채택, 둘째, 새로운 시장과 경제성장 동력 창출, 셋째, 투자환경 개선, 넷째, 민간부문 효율성 제고와 민관협력(PPP) 촉진 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경제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큰 틀에서 5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첫째, 정부자산 관리 현대화 및 자원개발의 효율성 제고, 둘째, 산업화 추진 및 혁신 기반 조성, 셋째, 민간부문 강화, 넷째, 인프라 개발, 다섯째, 인적자원 역량 강화이다. 각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전략 2050'의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목표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30위권 선진국 진입
기본원칙	경제 실용주의(economic pragmatism)에 기반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추진과제	**1. 정부자산 관리 현대화 및 자원 개발의 효율성 제고**
	• 국부펀드의 효율적 활용: △경제정책의 추진체(driver)인 국부펀드 재원을 장기적 전략적 프로젝트에 투자 •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 △신소재, 정보통신 등 기술개발 투자 확대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보다 사회경제적 중요성 및 효율성을 고려한 지원 강화 • 원자재 수출의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과 시장 다각화를 통해 국제상품시장 변동에 대비 △대체에너지(태양열, 풍력) 개발
	2. 산업화 추진 및 혁신 기반 조성
	• 국내산업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 촉진: △WTO 가입에 따른 충격 완화를 위한 경쟁력 있는 틈새시장(niche market) 창출 △'12.1.1일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간 공동경제공간(CES: Common Economic Space) 출범에 따른 국내 제조업 경쟁력 제고 △수출지향 비에너지 부문 신산업 개발 △혁신산업 역량 강화, 기술 교류 촉진 △우주서비스 부문(우주선 점검 설비, 관측 시스템, 지상 인프라 등)의 위상 제고 △혁신 클러스터(나자르바예프 대학교, 혁신기술단지) 개발 지속 △저탄소 경제 전환(EXPO 2017 계기 녹색성장 기반 마련) • 농업 현대화: △경작지 확대 △최신 기술 도입을 통한 곡물수확량 확대 △선진 가축사료공급 기반 구축 △친환경 농업 브랜드 개발 → 친환경 농산품 선도시장으로 발전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분야 혁신 중소기업 육성

표 3-1. 계속

목표	국가 경쟁력 제고를 통한 30위권 선진국 진입
기본원칙	경제 실용주의(economic pragmatism)에 기반한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추진과제	**3. 민간부문 강화**
	• 중소기업 육성: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 △지방기업 활성화 및 규제완화 △WTO 가입 및 CES 고려 국내기업 지원체계 구축 • 민관협력(PPP) 모델 구축: 강력한 비즈니스-강력한 정부(Strong Business-Strong State) 원칙에 기반한 민관협력(PPP) 활성화 • 민영화 추진: 비전략적 부문 공기업 민영화
	4. 인프라 개발
	• 교통·물류 인프라 개발: △영토 외 교통·물류 설비 확대 △유럽, 아시아, 미국 등지에 교통·물류 거점 구축 및 항만 건설을 통한 해양 접근성 제고 △지방 낙후지역에 교통인프라 확대 및 '인프라 센터' 구축 → 국내 지역간 연계 강화 및 세계시장과의 통합 가속화 •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제고 △보건의료 기술(스마트 메디컬 시스템, 원격 진료 시스템 등) 발전 △의학교육 체계 향상(R&D 역량 강화, 민관협력을 통한 민간 의료분야 활성화 등) △교육장비 현대화
	5. 인적자원 역량 강화
	• 관리자원 역량 강화: △공공부문 거버넌스 강화 및 최신 매니지먼트 수단 도입 △국제적 노동분업 활용을 통한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노하우 확보 • 과학, 연구개발(R&D) 인력 역량 강화: △전문 기술자 양성 △R&D 인력양성을 위한 고등교육체계 정비

자료: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검색일: 2016. 9. 25)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산업·혁신발전 2015~2019

2014년 8월 채택된 국가프로그램 '산업·혁신발전 2015~2019'(이하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전략 2050 실현의 일환인 동시에, '산업·혁신발전 2010~2014'(2010년 3월 채택, 글상자 3-1 참고)의 후속단계로 채택되었다.

산업혁신 프로그램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정부는 경제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다. 만일 원자재 의존 경제구조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창출이 없다면, 선진국뿐 아니라 저소득국가에서도 경쟁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지하듯이, 한국, 대만, 핀란드의 경우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제조업 발전의 가속화에 있었다. 바로

글상자 3-1. 산업 · 혁신발전 2010~2014

2010년 3월 채택된 '산업 · 혁신발전 2010~2014'는 경제의 다각화와 경쟁력 제고를 통한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성장 실현을 중점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우선 육성부문 다각화 및 경쟁력 제고, 둘째, 우선 육성부문 개발의 사회적 효율성 강화 및 투자 프로젝트 추진, 셋째, 산업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 넷째, 노동생산성 증대, 다섯째,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 확대 등이다.
'산업 · 혁신발전 2010~2014'는 세계 각국의 산업발전 사례가 '추격형 발전', '전통(특화)산업 발전', '후기 산업화' 등으로 구분된다고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카자흐스탄의 산업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전략은 일차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특화)산업 발전' 전략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화 전략 아래 우선 육성분야를 다음과 같이 전통부문과 내수부문, 비원자재부문으로 구분했다:

- 전통부문(일차산품생산→고부가가치화): 석유 · 가스 생산 및 가공, 광업, 야금, 원자력, 화학
- 내수부문: 기계, 건설, 제약
- 비원자재부문(수출지향): 농업, 경공업, 관광

이와 함께 향후 15~20년 동안 글로벌 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미래부문을 제시했다.

- 미래부문: 정보 · 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대체에너지, 항공우주

특히 '산업 · 혁신발전 2010~2014'의 특징은 주요 실천과제 가운데 전통적인 수출지향 부문(원자재)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전통부문과 비전통부문 간 전후방산업 연관효과를 통해 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업 발전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중소기업 육성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0-2014 гг, http://www.baiterek.gov.kz/ru/programs/gpfiir-program/(검색일: 2016. 10.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이 점에서 제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 아래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다각화 촉진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중점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제조업 발전 가속화, 둘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효율성 및 부가가치 제고, 셋째, 비원자재 상품 시장 확대, 넷째, 노동생산성 증대, 다섯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의 기술력 제고 및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미래 산업발전 기반 마련, 여섯째, 제조 중소기업 및 대기업 활성화 등이다.

상기한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은 국내외 시장성, 잠재적인 경제적 파급효과, 현재의 발전수준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야금,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등 6개 범주로 구분되는 14개 우선 육성부문을 제시했다(표 3-2 참고).

표 3-2. 산업혁신 프로그램의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과 혁신부문

구분	분야		세부부문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	1	야금	①	철금속
			②	비철금속
	2	화학	③	농화학
			④	화학제품
	3	석유화학	⑤	석유 · 가스정제
			⑥	석유 · 가스화학
	4	기계	⑦	자동차 및 부속품
			⑧	전자기계 및 부속품
			⑨	농기계
			⑩	철도기계
			⑪	광업기계
			⑫	석유 · 가스 생산 · 정제기계
	5	건축자재	⑬	건축자재
	6	식료품	⑭	식료품
혁신부문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분야		①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②	항공우주 · 나노 기술
			③	로보틱스 · 유전공학
			④	미래 에너지 연구

자료: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5-2019 гг, http://www.mid.gov.kz/ru/pages/gosudarstvennaya-programma-industrialno-innovacionnogo-razvitiya-respubliki-kazahstan-na-2015(검색일: 2016. 10. 14) 바탕으로 저자 작성.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분야 활성화를 위한 세부목표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첫째, 우선 육성부문의 첨단제품 생산 현지화와 기술이전 촉진, 둘째, 혁신제품 수요 확대, 셋째, 기술 및 관리역량 증대 등이다(표 3-2 참고).

혁신분야의 중점부문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나노 기술, 로보틱스・유전공학, 미래 에너지 연구 등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이러한 과학기술집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과학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중점부문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부문에 대한 기초・응용과학 기술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기계 및 기술, 태양에너

지 등 재생에너지 기술, 스마트 네트워크 기술, 발전 시스템 시뮬레이션 기술, 정보・통신기술, 로보틱스, 환경경제학 및 환경보호, 광전자장비 등 전자기계, 재생의학, 바이오 의약품, 유기화학 응용연구 등이다.

산업혁신 프로그램은 이러한 제조업 활성화와 혁신발전을 위해서는 적절한 파이낸싱,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 인프라 제공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성장률 및 투자 둔화, 원자재 가격 및 운송비용 변화 등 거시경제 리스크와 역내 정세 변화, 유라시아 경제통합 심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법적・제도적 지원 미비와 같은 규제적 리스크 등을 변수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산업혁신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첫째, 투자환경 개선이다. 제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가 투명성 개선, 부패 척결 등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인프라 개선이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되는 교통・물류, 에너지, 산업 인프라 발전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셋째, 인적자원 역량 강화이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준 높은 전문인력 양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고등교육과 기술인력 훈련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넷째, 혁신 분위기 조성이다. 공공 및 민간기업의 혁신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신경제정책 누를리 졸(Nyrly Zhol)

2014년 11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 '누를리 졸(Nyrly Zhol, Bright Path)-미래로 가는 길'을 통해 인프라 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신경제정책 누를리 졸'(이하 누를리 졸)을 발표했다. 이어 2015년 4월 해당 정책의 실행을 위해 국가프로그램 '누를리 졸 인프라 개발 2015~2019'을 채택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현재 세계경제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카자흐스탄 경제도 원자재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

는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정책의 재평가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새로운 경제정책 방향으로 장기적 측면에서 경제 전반에 승수효과(multiplier effect)를 가져올 수 있는 중점 분야, 즉 인프라 개발에 대한

표 3-3. '누를리 졸(Nyrly Zhol)'의 추진과제

교통 · 물류 인프라 개발	• 광역 경제권 연계 물류허브 구축: 중앙허브(아스타나)와 지역허브 연계를 위한 방사형 교통 · 물류 인프라(고속도로, 철도, 항공) 구축 • 도로 건설 프로젝트 추진: 서중국(Western China)-서유럽(Western Europe), 아스타나(Astana)-알마티(Almaty), 아스타나(Astana)-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Ust Kamenogorsk), 카라간다(Karaganda)-제즈카즈간(Zhezkazgan)-키질로르다(Kyzylorda), 아티라우(Atyrau)-아스트라한(Astrakhan) 구간 • 동부 물류허브 및 서부 해양인프라 구축 • 카스피해 항만 경유 서부시장 수출잠재력 증대: 쿠릭(Kuryk) 항과 보작틔(Borzhakty)-에르사이(Ersai) 구간 철도를 경유하는 대형 페리 운행 확대 • 중국, 이란, 러시아, EU의 내륙항만(dry ports), 해양항만 터미널 건설 및 임대 추진
산업 인프라 개발	•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 활성화를 통한 건축자재, 교통 · 통신 · 에너지 · 주택 관련 생산 및 서비스 확대 • 특별경제구역(SEZ) 내 인프라 구축 완료 및 실질적 프로젝트 유치 추진 • 중소기업 육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 검토 •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공업부문 일자리 창출보다 투입비용이 낮다는 이점 활용)
에너지 인프라 개발	• 남부지역 전력난 해소 및 중동부지역 천연가스 부족 해소를 위한 고압선 건설: 에키바스투즈(Ekibastuz)-세메이(Semey)-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Ust Kamenogorsk), 세메이(Semey)-악토가이(Aktogai)-탈디코르간(Taldykorgan)-알마티(Almaty) 구간
주택, 상수도 · 열 공급 인프라 현대화	• 주택 및 편의시설, 상수도 및 열공급 네트워크 현대화 •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슬람개발은행(IDB) 및 민간 투자자 유치 확대
임대주택 확대	• 도시의 인구집중 심화에 따른 주택난 해소 및 근로자 부담 완화 • 주택기금 설립 및 장기 매입형 임대주택 건설 · 보급(중개인 없이 최저대출금리 지원)
사회 인프라 개발	• 교육시스템 개선과 유치원 확충: 부적합 학교 및 3부제 교육의 문제점 개선, 유치원 부족 문제 해결 • 10개 고등교육기관 설립: 과학기술, 경제연구 및 인력훈련 등 산업화 프로그램 추진과 연계 육성
중소기업 지원	• 경제성장의 동력인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4,500개 일자리 창출 • 2050년까지 GDP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50%까지 확대 • ADB, EBRD, 세계은행 자금 활용

자료: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1 ноября 2014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1-noyabrya-2014-g(검색일: 2016. 10. 10) 바탕으로 저자 작성.

중점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원자재 시장 호황기에 축적된 국부펀드 재원을 해당 인프라 개발에 투자하여 경제발전의 선순환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듯 누를리 졸은 국부펀드를 활용하여 소위 경제의 전환(transformation)을 촉발시킬 수 있는 핵심 인프라 개발을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장기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세부 투자분야는 교통・물류, 산업, 에너지, 주택 및 상수도・열공급 시설, 사회 인프라 개발과 중소기업 지원 등이며, 주요 내용은 [표 3-3]과 같다.

4) 100대 국정과제

2015년 5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5대 제도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00 concrete steps(이하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는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략 2050의 목표인 세계 30위권 선진국 진입을 위해 사회 전반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뒷받침되었다. 이른바 '시스템적 장애요인에 대한 처방(treatment of systemic disorders)'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먼저 큰 틀에서 5대 개혁분야는 첫째, 국가기관 전문성 강화(1~15번, 15개 과제), 둘째, 법치 강화(16~34번, 19개 과제), 셋째, 산업화 및 경제성장(35~84번 50개 과제), 넷째, 정체성 및 통합 강화(85~90번, 6개 과제), 다섯째, 정부의 책임성 확립(91~100번, 10개 과제) 등이다.

이 가운데 산업화 및 경제성장 분야의 추진과제는 큰 틀에서 투자환경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통과국 잠재력 제고, 혁신 발전, 중소기업 육성, 인적자원 개발,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 등이며, 주요 내용은 [표 3-4]와 같다.

한편 100대 국정과제 정책 추진 차원에서 일련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민관협력(PPP) 메커니즘을 법적으로

표 3-4. '100대 국정과제' 중 '산업화 및 경제성장' 분야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투자환경 개선	•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 및 관세행정통합시스템 구축, 세관신고 자동화, 수출입 통관서류 축소 등 • 규제 완화: 건축인허가, 재산권, 전기세율 등 • 비즈니스 옴부즈만 제도 강화(기업 이익 보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	•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고: 수출지향 가공업 부문에 최소 10개의 글로벌 기업 유치 • 우선 육성분야에 주축(anchor) 투자자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여 국내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현재 에어아스타나(Air Astana), 텡기즈쉐브로일(Tengizchevroil)이 해당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조인트벤처의 정부지분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 계획 • 관광 클러스터 조성, 도로 인프라 유지 · 구축, 에너지 효율 개선, 유제품 생산, 육류 생산 · 가공 등 부분에 성공적인 경험을 보유한 전략적 주축 투자자 유치 * 유제품 생산량의 절반은 3년 내에 CIS 국가에 수출 목표, 육류 생산 역량 제고 및 가공품 수출 목표
통과국 잠재력 제고	• 국제 교통 · 통신 네트워크로 통합 촉진: '유라시아 대륙간 복합교통로(Eurasian transcontinental multimodal transport corridor)' 구축 프로젝트 추진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협력 사업으로 추진 • 국제 항공허브 조성: 알마티 인근 지역에 신국제공항 설립 예정(전략적 투자자와 협력) • 에어아스타나와 철도공사(KTZ)를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
혁신 발전	• 지식기반경제로 이행을 위한 2개의 혁신 클러스터 조성: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의 아스타나 비즈니스 캠퍼스에 과학연구센터 설립 → 국내외 첨단 기업과 협력 촉진 및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수행 • 산업 · 혁신 프로그램 수행 차원에서 '과학기술활동 상업화' 법안 마련 • 아스타나를 유라시아 비즈니스 · 문화 · 과학 중심지로 발전: 국제 교통 · 물류 시스템, 신 공항터미널 설립 등 추진 • 아스타나를 역내 금융허브로 발전: 아스타나국제금융센터(AIFC) 설립
중소기업 육성	• 비원자재 분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National Champions Initiative 추진: 경영 및 기술역량 강화 지원
인적자원 개발	• 교육제도 개선: 12년 교육과정 단계적 이행 • 고숙련 근로자 훈련 강화: 주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우선 육성부문을 중심으로 교육훈련 프로그램 추진 • 영어 사용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국제화와 유학생 유치 확대
보건 · 의료 서비스 개선	• 보건 · 의료 서비스 수준 및 접근성 제고: 인력 훈련, 의약품 수준 향상 등

자료: План нации – 100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ят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рефор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май 2015 года),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31977084(검색일: 2016. 10. 14) 바탕으로 저자 작성.

도입(2015년 11월 발효)했으며,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법」을 채택(2015년 12월)했다.

2.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폐쇄경제체제 기조 아래 수입대체산업화와 일차산품 수출 호조에 기반한 안정적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수입대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비교우위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출구조 및 산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정책방향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이에 앞서 고려할 부분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이 2016년 9월 2일 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이후 중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6년 12월 초 대선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직무대행이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현시점에서 신정부는 카리모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04] 특히 아래에서 논의할 2015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제시한 우선정책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미르지요예프 정부의 경제발전전략이 새로운 정책적 전환을 모색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 2000년대: 내수 기반 수입대체산업화 추진

우즈베키스탄 경제의 발전과정은 카자흐스탄과 대조적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성장보다는 '안정'을 강조하면서[105] 수입대체산업화(Import-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 정책을 중심으로 폐쇄적,

104) 2016년 9월 9일 미르지요예프 직무대행은 "세계경제 둔화 및 수요 감소,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대외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 경제의 구조개혁과 경쟁력 확보 등 카리모프 대통령이 설정한 우선과제의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발표 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28).

105) 김영진(2009a), p. 96.

점진적 개혁을 추진했다. 이는 소비재 수입과 원자재 중심의 일차산품(가스, 면화, 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를 대외적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산업화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과 경제적 독립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였다.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이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성장전략은 교역조건 악화, 인플레이션 등의 문제 해결과 산업발전 실현 등 이른바 '사회문제해결형 시장경제(socially oriented market economy)'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106]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산업화 기반 발전전략은 1900년대 중반 중남미 국가들의 발전 모델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중남미 국가들은 자유무역과 국제분업에 근거한 일차산품 수출의 구조적 난관을 극복하고자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자급자족적인 경제체제와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국내 제조업의 육성"과 이를 위한 "보호관세와 각종 지원책 마련을 위한 국가의 시장개입"으로 특징되었다.[107]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산업화 기반 발전전략의 특징도 기본적으로 내수시장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두는 동시에, 국가가 자원을 통제・독점하면서 전략적으로 내수 소비재 및 제조업 분야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력한 수입규제와 수입대체산업화 분야의 집중 육성을 추진했으며, 금융부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을 차단했다.

이렇듯 우즈베키스탄은 경제발전의 본격화 시기에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을 추진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력을 차단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석유・가스 및 철도 엔지니어링, 현대식 건축자재, 생활가전, 의료제품, 식료품 가공 등 완전히 새로운 산업들을 창출해내는 데 기여했다.[108]

---

106) 탈리포바 툴쿠노브나(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107) 강명구(2007), p. 44.

108) 탈리포바 툴쿠노브나(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의 수입대체를 통한 산업화 전략은 그 성격이 수출보다는 내수 지향적이었기 때문에 주요 수출품목은 여전히 일차산품이었다. 따라서 산업화에 따른 소비재의 국내생산 대체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중간재의 수입은 지속되었기 때문에 외화획득, 즉 국제수지 균형을 위해 일차산품의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따라서 우즈베키스탄 경제는 여전히 일차산품의 국제경기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0년대를 거치며 우즈베키스탄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보인 것은 일차산품의 수요 확대와 가격 상승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2) 2010년대: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 추진

최근 세계 저성장 및 저유가 기조 아래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수출품목인 원자재 가격하락과 러시아의 경기침체 등으로 성장속도 둔화를 피하지는 못하고 있다.

앞서 밝혔듯이,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체정책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산업화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수입대체산업화가 수입장벽을 통해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산업이 국내 시장을 기초로 성장하는 전략이라고 볼 때,[109] 이러한 발전전략이 지속적인 성장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산업육성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자동차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수출이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원자재 수출에 의존적인 단순한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제조업도 취약한 상황이다.[110] 특히 제조업은 자동차 조립, 섬유 산업 등 현지 원료를 가공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111] 수입대체산

109) 김종섭(2003), p. 25.

110) 염동호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전문가 간담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조영관(2016b), p. 2.

111) ADB, "Uzbekistan Towards 2030: Defining the Pattern of Growth and Policies for Accelerated Transformation," http://www.adb-asianthinktanks.org/sites/all/libraries/2015-researchpapers/UZB_CER_Kamila%20Mukhamedkhanova_Uzbekistan%20Towards%202

업화 과정을 통한 제조업 분야의 성장이 일정부분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과 생산의 효율성 향상을 가져오지는 못했다.

따라서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대체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모색하는 한편,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112]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미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수출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2009년 3월 발표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에서, 첫째, 국내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주도 및 현지화 상품생산의 기술 및 설비 현대화, 둘째,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셋째, 기업의 생산 효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넷째, 내수 진작을 통한 국내기업 지원 등이 우선과제로 제시되었다.[113]

우즈베키스탄의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은 기존 노동자본집약적 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생산성・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자본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첫째, 폐쇄적인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경제자유화, 즉 무역활동과 환율규제 완화,[114] 둘째, 산업다각화 및 고도화, 셋째, 민간부문 발전, 넷째, 교통・통신 인프라 개발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무역 및 외국인 투자 여건 악화와 대외경쟁력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점진적, 전략적인 규제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115]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방향과 추진과제는 2015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제시한 '경제정책의 우

030.pdf(검색일: 2016. 10. 3).

112) 탈리포바 툴쿠노브나(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113)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ути и меры по его преодо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http://www.press-service.uz/ru/about/books/1132/(검색일:2016. 10. 3).

114) 염동호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전문가 간담회,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115)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발표 내용, 「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28).

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이 채택한 '단・장기 액션 프로그램'에 제시되어 있다.[116] 카리모프 대통령은 해당 내각회의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경제 현대화 및 다각화 실현, 현지화 강화, 민간부문 활성화, 공공부문 축소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에 따라 단・장기 액션프로그램은 첫째, 지속적인 경제구조 개혁 및 현대화 추진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도입, 주요 산업의 다각화를 통한 경제부문의 경쟁력 제고, 둘째, 민간 대기업 및 중소기업 보호 육성, 셋째, 정부개입 축소, 넷째, 생산과 무역 및 투자활동에 대한 국제기준 도입, 다섯째, 현지화 심화 및 산업간 협력 확대, 여섯째, 정보・통신 시스템, 도로교통,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발전 등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와 같은 국가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련의 경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는 해당 정책들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나 다름없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된 프로그램은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 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2015~2019', '현지화, 완제품・부품・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 '농업발전 프로그램 2015~2019', '산업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2015~2019', '에너지 절감, 절전기술・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 등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적인 차원의 경제정책 수립 필요성에 대한 인식 아래, 현재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마련 중이다. 주요 내용은 원자재 가공 및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프로젝트 이행을 통한 제조업 발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구조 개선이야말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동력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GDP 대비 공업 비중을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1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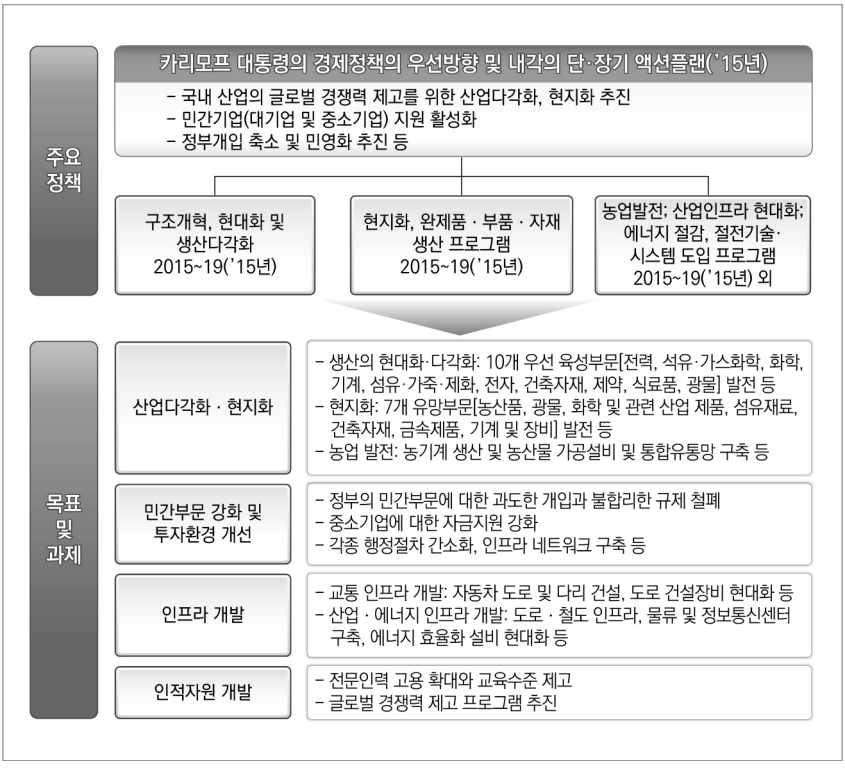
116) Программа дей 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 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검색일: 2016. 10. 3).

117)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2016), 「경제소식지118호」(7. 20),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검색일: 2016. 8. 11).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정책 추진과 함께 수출지향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큰 틀은 [그림 3-2]에서 보듯이, 2015년 1월 카리모프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내각의 단·장기 액션플랜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따라 마련된 정책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2 참고).

그림 3-2. 최근 우즈베키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자료: 저자 작성.

1)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2015~2019

2015년 3월 4일 채택된 '구조개혁, 현대화, 생산다각화 방안 프로그램 2015~2019'(이하 다각화 프로그램)의 목표는 첫째, 지속적인 구조개혁 및 생산 다각화 실현, 둘째, 차세대 경제성장 동력인 첨단산업 발전, 셋째, 제조업 에너지 절감 및 노동비용 감축, 넷째, 경쟁력 있는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 확대, 다섯째,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및 조인트벤처 설립 등이다.[118]

다각화 프로그램은 846개(총 408억 달러)의 현대화 및 기술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표 3-5]에서 보듯이 전력, 석유·가스·화학, 화학, 기계, 섬유·가죽·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물 10개의 중점분야로 구분된다.

표 3-5. 다각화 프로그램의 중점분야와 프로젝트

중점 분야	목표	주요 프로젝트
전력	자원절약형 복합가스터빈 설치 및 태양에너지 기술 이용 · 도입을 통한 기존 전력시설의 현대화 및 신규 발전소 건설로 전력 생산 1.2배 확대	나보이화력발전소 확장(2차 450MW 복합가스터빈 설치), 니즈니-부즈수 수력발전소 · 파르하드 수력발전소 · 타슈켄트 수력발전소 현대화 사업의 시행 등
석유 · 가스 · 화학	천연가스 · 콘덴세이트 완제품 생산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량 확대 및 품목 다양화	부하라 정유공장 시설 현대화 · 재건사업, 무바렉 가스처리공장 내 가스화학공장 건설, 우스투르트 가스화학공장 내 탄화수소 분해 신규공장 건설, 우즈벡-중국 간 3차 가스파이프 건설, 대용량 석유가스화학 장비 생산을 위한 '우즈벡화학중공업' 생산 용량 확대(2단계), 플라스틱 제품 생산, 지질탐사 작업 관련 첨단장비 구입 등
화학	복합비료 · 폴리머 · 합성고무 · 메탄올 · 생활 화학제품 생산을 위한 현대적 기술 도입 및 수출 다변화	사마르칸트화학공사의 황산칼륨 및 복합비료 생산, 나보이 질소공장의 메탄올 및 폴리염화비닐 생산, 안그렌 경제특구의 승용차 및 농기계 타이어 생산 등

118)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www.uzkimyosanoat.uz/ru/documents/presidents/o-programme-mer-po-obespecheniyu-strukturnyh-preobrazovaniy-modernizacii-i-diversifikacii-proizvodstva-na-2015-2019-gody(검색일: 2016. 10. 22).

표 3-5. 계속

중점 분야	목표	주요 프로젝트
기계	선진 업체와의 합작을 통한 농기계 · 트럭 · 부품 부문 국산화 및 수입대체 농업 기계, 트럭, 부품 생산 관련 신규 시설 건설, 기존 시설 현대화	- UZAUTOTRAILER JV(Uzavtosanoat와 MAN AUTO Uzbekistan 합작)에서 화물차 캐빈 및 부품 국산화 추진, 지작 축전지 공장 장비 현대화, 자동차(Gentra · Spark · Cobalt · T250 등)의 알류미늄 · 브레이크 · 플라스틱 부품 생산 등 - 국영농기계주식회사는 선진 농기계 업체(Klass, Lemken 등)와 공동으로 타슈켄트 및 치르칙 농기계 공장 현대화 · 기술장비 재건사업을 통하여 부품 · 트랜스미션 · 기어의 생산 및 열처리 시설 건설, 트랙터 생산, 곡물 · 사료 · 목화 수확기 생산 등
섬유 · 가죽 · 제화	국내 원료의 심화 가공을 기반으로 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 높은 완제품 및 반제품 생산(염색 원사, 원단, 무두질 가죽, 니트, 의류, 신발 및 가죽제품)을 통한 상품 품목의 구조 개선	- 우즈벡 경공업성은 주요 외국 업체와 신규 공장 건설 및 기존 생산시설 현대화 관련 58개의 프로젝트 시행(엘리칼린 · 쿤그라드 원면 공장 내 편직기 건설, 부하라주 존도르 · 로민탄 지역 미준공 시설 내 편직기 건설, 인도라마코간 텍스타일 공장 내 섬유 생산(4단계) 등 - 우즈벡가죽제화산업협회(Uzbekcharmpoiavzali)는 국내외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가죽 및 제화생산 관련 61개 프로젝트 시행
전자	전기기기 생산 가속화 및 첨단기술 습득, 정보통신 기술 장비 및 부품 생산 시설 구축	우즈벡 전자산업공사(Uzeltexsanoat)는 안디잔 케이블에서의 유럽 기술 이용 자동차 케이블 생산, 마이크로회로 · 소형 태양광발전소 · 전기동력기 · 가전제품용 컴프레셔 생산, 가전제품 생산 확대(냉장고 · 가스오븐 등), 구(舊) 모터공장부지 내 생산 · 마케팅 · 물류 종합센터 설립 추진(2.68억 달러 규모의 39개 신규 투자사업 이행) 등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품목의 다양화	우즈벡 건설자재주식회사(Uzstroymateriali)는 키질쿰시멘트공장 내 현무암 섬유 · 철재 생산 및 철근콘크리트 플레이트 · 활성석회 생산, 우즈 오이나(Uz Oyna) 업체의 유리 생산, 카라칼팍스탄 지역 내 시멘트 공장 건설, 지작주 시멘트 공장 내 마감재 생산시설 공사 등
제약	유명 외국 제약업체의 라이선스 및 특허를 이용한 약품 생산 확대와 품목 다양화, 국내원료 및 기술을 이용한 자국산 약품 생산 추진	Pharm Product 공장의 앰플 · 일회용 주사기 · 수액 · 가루약 · 알약 · 캡슐 등 생산, Soft inter medical사의 수액 생산, Radiks의 혈장수액 생산, 기타 약재 제조를 위한 식물성 농축액 생산 등
식료품	국제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반가공품 및 과일 · 채소의 훈증 기술 도입, 진공 포장, 급속 냉동 및 기타 현대적인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 역량 강화	수르한다리아주 내 Faizi Ramz 농장의 과일 및 야채 건조 가공, 지작특구 내 인스턴트식품 생산, 사마르칸트주 내 SIEB SAHOBATI 외국기업의 육류 생산, 타슈켄트주 EURO FOOD TRADE의 버섯 가공 및 생선 통조림 생산, 기존 식품회사 현대화(165개 사업) 등 시행
광물	알말릭광업공사(AGMK) 및 나보이광업공사(NGMK) 현대화/장비 재건 관련 41개 프로젝트 시행	무룬타이(Muruntay) 광산 개발(5단계) · 부대생산시설 현대화, 지작 시멘트 공장 확대, 쉐라바드 지역 시멘트 공장 건설, 구리전선 생산사업 등

자료: 한홍열 외(2015), pp. 140~141.

2) 현지화, 완제품 · 부품 · 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생산의 현지화와 산업간 연계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간 유기적 협력 등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2월 11일 '현지화, 완제품 · 부품 · 자재 생산 프로그램 2015~2019'(이하 현지화 프로그램)가 채택되었다.

현지화 프로그램은 600개의 광물자원 가공 프로젝트와 수요가 높은 1,225개의 상품생산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35억 달러의 수입대체 및 1만 3,3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미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현지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119] 현지화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자동화 시스템도 마련했다. 또한 현지화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 개선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존 현지화 정책의 일환으로 광물자원 심층가공 분야(혁신 기술 포함)에 대한 58개의 완제품 생산 유망 프로젝트를 제시한 데 이어, '현지화 프로그램' 차원에서 162개의 생산 권고제품 목록도 제시했다. 162개 품목은 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등 7개 분야로 구분된다(표 3-6 참고).

2016년 1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경제개발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에 현지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696개의 현지생산 프로젝트(15억 6,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820개의 새로운 산업제품 생산이 이루어졌다.[120]

---

119) 한홍열 외(2015), p. 142.

120) Об итог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2015 год,

표 3-6. 현지화 프로그램의 생산 권고제품 목록

분야	세부 품목
농산품(2개)	육골분(Meat and Bone meal), 우유 대체 원료(substitute for whole milk)
광물(9개)	그라파이트 실버(Graphite silver), 인산칼슘(Calcium Phosphates), 아이오딘(Iodine), 이산화규소(Silica), 화이트 카본(White carbon) 외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39개)	탄화수소(시클로알칸 외), 에틸렌글리콜(Ethylene Glycol), 프탈산무수물(Phthalic Anhydride) 외
섬유재료(6개)	타이어, 직물, 위생부직포 외
건축자재(6개)	연삭숫돌(Grinding Wheels), 내화벽돌(Refractory Brick) 외
금속제품(35개)	망간철(ferromanganese) 외
기계 및 장비(65개)	에코 보일러 가스 실린더 외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еречень 162 готовых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материалов 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зделий, рекомендуемых к освоению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в 2015-2019 годах., https://mineconomy.uz/ru/local(검색일: 2016. 8. 10).

이러한 현지화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생산이 2005년 9.2%에서 2014년 20%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직까지 산업 전반의 제조기반이 미약하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121]

3) 농업발전 프로그램 2015~2019

2015년 마련된 '농업발전 프로그램 2015~2019'는 농업생산의 구조개혁 지속 추진, 농업생산의 효율성 향상,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과제는 첫째, 목화 재배면적의 단계적 최적화, 둘째, 고효율 면화 품종 및 수확작물 개발, 셋째, 최신 트랙터, 채면기(cotton-picking machines) 등 농기계 생산, 넷째,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이다(표 3-7 참고).[122]

---

https://mineconomy.uz/ru/node/1098(검색일: 2016. 10. 20).

121) KOTRA(2015a), 「2016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p. 12,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UPFileFolder/2015/12/24/20151224115647230_013.pdf(검색일: 2016. 8. 10).

122) Программа дей 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 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검색일: 2016. 10. 3).

표 3-7. 농업발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목화 재배면적의 단계적 최적화	수확량이 낮은 토양의 개량과 과일·야채·감자 및 기타 작물 파종 후 빈 공간에 순차적 배치
고효율 면화 품종 및 수확작물 개발	새로운 고효율의 내염성(salt-tolerant) 및 내건성(drought-resistant) 면화 품종 및 다수확작물 개발
농기계 생산	2014년 5월 설립된 국영 농업기계 회사인 '우즈아그로프롬마쉬홀딩'은 '클라아스', '렘켄' 및 기타 세계적인 기업들과 협력하여 현대적인 고효율의 트랙터, 현대화된 면화수확 기계, 곡물수확 콤바인 및 기타 장비 생산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식료품 산업에 391개의 투자 프로젝트, 130만 톤의 과일 및 야채를 보관할 수 있는 냉장창고를 포함한 총 200만 톤 규모의 저장 창고 2,000개 이상 건설; 통합 유통망 구축

자료: 한홍열 외(2015), pp. 143~144 바탕으로 저자 정리.

4) 산업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2015~2019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세계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교통・물류, 정보・통신 등 산업 전반의 인프라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산업인프라 현대화 프로그램 2015~2019'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로 및 철도 인프라 개발,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150개 프로젝트가 수행될 계획이다.[123]

이러한 차원에서 2015년 3월 '도로・교통 인프라 현대화 발전 프로그램 2015~2019'가 채택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약 2,400km의 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총 993개의 도로수리 기술장비 구매, 38개의 아스팔트 및 시멘트 플랜트와 콘크리트 혼합・분쇄・분류 설비 현대화 등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124]

정보・통신 인프라의 경우 '정보・통신 시스템 발전 프로그램 2013~2020'을 통해 전자정부 및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위한 확고한 기술 기반 확립, 무선통신 및 디지털 TV 보급률 확대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

123) Программа дей 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 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검색일: 2016. 10. 3).

124) 한홍열 외(2015), p. 145.

키스탄 정부는 정보・통신 분야 고용 확대와 인적자원 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직업전문대학교와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고용 확대, 해당 교육시설에 최신 컴퓨터 및 연구설비 지원 확대, 외국어 및 비즈니스 교육 강화 등이다.[125]

5) 에너지 절감, 절전기술・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

2015년 5월 채택된 '에너지 절감, 절전기술・시스템 도입 프로그램 2015~2019'은 경제 전반의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 강화,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 추진과제는 첫째, 에너지 효율화 설비 및 기술 현대화, 둘째, 재생에너지의 단계적 도입, 셋째, 첨단 절전설비 생산 확대, 넷째, 건축 시 절전설비 도입 등이다.

특히 2017년 1월부터 건축 인허가 시 최신 자동검침기 및 절전장비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하는 업체에 10년간 설비시설에 대한 재산세, 토지세, 전기료 VAT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126]

3.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가.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은 과거 천연가스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에 따른 경제의 비효율과 경쟁력 저하를 탈피하고자 국내산업 육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

125) Программа дей 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 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 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검색일: 2016. 10. 3).

126) 한홍열 외(2015), pp. 146~147.

하고 있다. 이는 일차산품 비교우위를 활용한 수출주도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산업다각화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창출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이러한 정책방향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1) 2000년대: 천연가스 수출 기반 불균형 성장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 들어 천연가스를 주요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고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 이는 경제발전 본격화 시기에 에너지자원 개발 및 수출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양적 성장을 이루어낸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에 기반한 국내산업 보호를 동시에 강조했다는 점에서 개방경제체제 아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카자흐스탄의 사례와는 차별화된다.

다만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 초반 수입대체정책보다는 대외지향적 정책이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수입 제한을 완화하고 무역을 부분적으로 자유화시켰다.[127] 또한 원자재 시장 호황을 배경으로 자본집약도가 높은 가스부문 발전 지속과 유치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점진적인 외국인투자 개방정책을 추진했다.

2000년대 전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 및 경제체제 전환전략 2000~2010'(1999년 채택),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2003년 채택)을 마련하고, 석유・가스 부문 현대화 추진과 함께 비에너지 부문의 균형발전을 중점 목표로 추진해 나갔다. 이들 정책이 제시한 주요 과제는 첫째, 석유・가스 생산량 증대 및 수출선 다변화, 둘째, 정유 및 가스화학 산업발전 등을 통한 에

127) 투르크메니스탄은 1991년 독립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무역제한을 통한 수입대체정책과 이중환율제를 유지하는 등 자립정책을 고수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 자유화는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정부가 대부분의 경제부문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를 지속하면서, 해외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을 제정했으나 효과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다. 이머릭스, 「투르크메니스탄 WTO 가입 전망」,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5481&systemcode=04(검색일: 2016. 10. 5).

너지 산업의 잠재력 제고, 셋째, 수입대체산업 부문 확대를 통한 자급자족 경제 실현, 넷째, 섬유, 농업, 중공업 등 비에너지 부문 발전을 통한 산업다각화 촉진 등이었다.[128] 그러나 원자재 시장 호황에 따라 최대 전략산업인 에너지 부문에 국가자원이 집중되었고, 이에 따라 일차산품 수출주도의 불균형적 성장정책이 추진되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일찍이 천연가스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경제발전을 위한 적극적 중립정책(positive neutrality)'을 강조했는데(1995년 UN의 영세중립국 승인), 이는 천연가스를 세계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우호적 대외환경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략적 판단에 기인한 것이었다.[129]

2) 2010년대: 산업다각화 기반 균형 발전 모색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 확대와 점진적인 외자유치 확대에 힘입어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원자재 수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의 취약성과 경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포괄적인 개입・통제에 따른 비효율성, 폐쇄적인 경제체제 등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다.[130]

이에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2010년 채택한 '장기 사회・경제 발전전략 2011~2030'(이하 전략 2030)을 통해 비교우위 분야인 석유・가스 부문의 지속적 발전과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의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다각화 실현을 중점목표로 제시했다.[131] 이 정책의 수행 차원에서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128) 이시영, 조영관(2010), p. 7; 조정원 한양대 교수 전문가 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정책과 중국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발표 내용((2016. 8. 4, 세종시).

129)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전문가 간담회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분석」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130) 이머릭스, 「투르크메니스탄 국제 교역 현황 및 무역체제 개선 방안」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7666&systemcode=04&regioncode1=01&regioncode2=13&regioncode3=00(검색일: 2016. 10. 5).

131) 현지 전문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이 특정산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으며, 농업, 과학, 섬유, 의료업, 에너지 산업, 제조업, 관광 등 다양한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2~2016'을 추진한 바 있으며, 현재 후속단계인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마련 중이다.[132]

이와 같은 맥락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133] 먼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기업의 기술 저변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산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유치 중점분야는 석유・가스 가공, 전력, 철도・도로 건설, 농산업 단지 개발, 산업 및 사회문화 기반시설 건설 등이다.

또한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정책을 통해 경제 및 산업의 기술수준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우호적인 대외환경 조성과 자본축적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한 주요 과제로는 석유・가스, 화학제품, 섬유제품, 가공식품, 건설자재 등의 수출을 확대하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2015년 5월 '수출 상품 확대 프로그램'과 '수입대체 상품 생산 프로그램'을 채택했다.

한편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16년 9월 '2017년 사회・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 민간부문 발전 및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육성을 중점과제로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생산설비 건설,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가스 화학제품 생산, 투르크메니스탄~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인도(TAPI) 가스관 건설, 신규 발전소 건설 및 개보수, 광물가공단지(complex) 건설, 아슈하바트-투르크멘바시(Ashgabat-Turkmenbashi) 고속도로 건설, 투르크멘바시 국제항만 건설 등이 중단기적인 주요 투자 프로젝트로 추진될 전망이다.[134]

고 강조했다. 아가바예트 레시예트(Agabaet Resiet) 투르크메니스탄 전략연구소 생명정책부 부소장 면담(2016. 8. 23, 아슈하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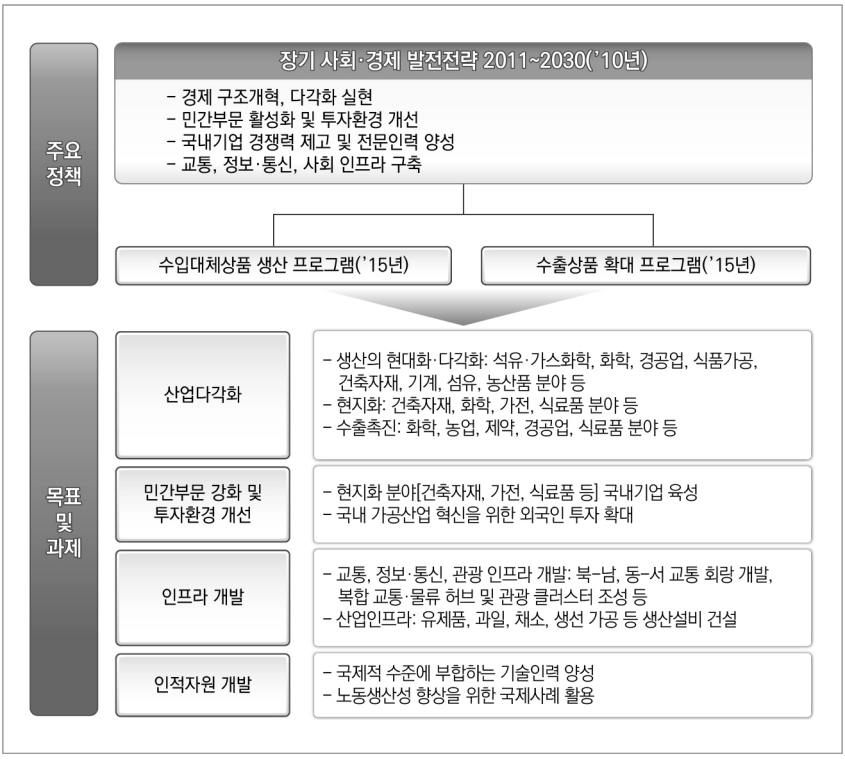
132) Приорите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http://www.turkmenistan.gov.tm/?id=10324(검색일: 2016. 10. 10).

133) Структурная реорганизаци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целена на диверсифик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ю страны в мировой рынок, http://www.turkmenistan.gov.tm/?id=10459(검색일: 2016. 10. 10).

나. 경제발전전략의 내용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산업다각화를 통한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큰 틀에서 '전략 2030'에 기반을 두고 있다. 아래에서는 전략 2030과 2015년 마련된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그림 3-3 참고).

그림 3-3.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경제발전전략의 목표와 과제



자료: 저자 작성.

134) Определены вектор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7 год, http://turkmenistan.gov.tm/?id=11803(검색일: 2016. 10. 5).

1) 전략 2030

2010년 5월 채택된 '장기 사회・경제 발전 2011~2030(이하 전략 2030)'은 경제다각화, 시장경제체제 도입, 민간부문 발전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135]

이 전략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추진된다.

첫째, 1단계(2011~15년)에서는 경제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경제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중점과제는 경제구조 개혁과 다각화 심화, 투자환경 개선 등이다. 세부 추진과제는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콤플렉스, 건축자재, 농산품 생산 확대, 북-남,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등이다.

둘째, 2단계(2016~20년)에서는 글로벌 혁신역량 제고와 경제다각화 심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중점과제는 민간부문 활성화와 국내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선진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교육 및 보건, 주택 분야에 혁신기술 도입, 교통 및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 등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이 시기에 2020년까지 연간 GDP 성장률 8.3%를 달성하고,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42%까지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만 석유가스 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다.

셋째, 3단계(2021~30년)의 중점목표는 경제다각화를 완전히 실현하고, 산업의 경쟁력도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특히 '전략 2030'은 아슈하바트 시, 아할 주, 발칸 주, 다쇼구즈 주, 레바프 주, 마리 주 등 6개의 지역 거점에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고, 중점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 거점별 중점육성 분야는 첫째, 아슈하바트 시는 신기술 및 기계공학 연구개발(R&D), 바이오기술, 섬유산업, 교통(복합 교통・물류 허브), 관광 클러스터 개발, 둘째, 아할 주는

135) Тр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шага реформ, http://www.turkmenistan.gov.tm/?id=2967(검색일: 2016. 8. 10);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2010),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1-2030 гг.

가스화학, 농업(곡물, 면화, 멜론, 와인, 축산, 가금, 어업), 건축자재 생산, 교통・물류 허브 개발, 셋째, 발칸 주는 석유・가스 화학, 정유, 광물 생산 및 가공, 농업(과일, 채소, 온실, 축산, 어업), 건축자재 생산, 교통(남-북 회랑, 항만, 복합교통・물류센터, 공항), 국제관광, 넷째, 다쇼구즈 주는 농업(곡물, 면화, 섬유), 교통・물류, 관광, 다섯째, 레바프 주는 석유・가스 생산 및 정유, 화학, 농업(곡물, 축산, 가금, 농산물 가공), 건축자재 생산, 교통・물류, 관광, 여섯째, 마리 주는 가스 생산 및 정유, 농업(곡물, 면화, 가금, 식품), 기계공학 등이다.

2)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

2015년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자원 중심의 경제발전에서 기술집약적, 원재료를 활용한 완성품 생산으로의 전환과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세 가지 정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먼저 '수입대체상품 생산' 프로그램은 81개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첫째, 건축자재, 가전, 식료품 분야 등의 국내기업 육성, 둘째, 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 생산설비 건설 프로젝트로 구분된다.

'수출상품 확대 프로그램'은 33개 프로젝트를 포함하며, 이는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국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핵심목적이 있다. 또한 국내 가공산업 혁신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례 활용 등도 연계 목표로 제시했다.

현재 입안 중인 전자설비 기업설립 프로그램에서는 해외 기업들과의 합자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경쟁력 있는 국산 전자제품의 생산과 국내시장 보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국내시장에서도 외국업체들과의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136]

136)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라인 추진을 관리하면서 외국 기업들과 로컬 기업들 간의 합자기업 설립과 투르크메니스탄 국내에서의 제품 생산, 판매를 유도할 것

표 3-8.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내 산업발전 촉진 프로그램(2015년)

정책	주요 내용
수입대체상품 생산 프로그램	• 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기계 · 설비와 가전제품을 비롯한 공산품의 과도한 수입 의존도 축소 • 국내 생산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수출상품 확대 프로그램	• 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등의 분야에서 국산품의 국제경쟁력 제고
전자설비 기업설립 가이드라인 (입안과정 진행 중)	• 전자설비 산업의 생산기반 마련 및 해외 기업들과의 합자 추진 • 반도체, 광전 설비, 조명기기, LED, 전자 공업 설비의 국내 생산기반 마련 방안 제시

자료: 조정원 한양대 교수 전문가 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정책과 중국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발표 내용(2016. 8. 4, 세종시) 참고 저자 보완.

4.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및 평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3국은 독립 이후 지난 25년간 체제전환, 대외경제 환경 변화 등 다양한 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그에 따라 이들 3국의 경제발전전략은 항상 변화의 압력 아래 놓여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성장둔화가 장기화되고, 2014년 하반기 이후 원유 등 원자재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일차산품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중앙아시아 3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과거 석유・가스 수출과 외자유치 확대에 기반한 양적 성장 중심 전략에서 최근 산업다각화와 혁신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 제고, 즉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내수 기반 수입대체산업화와 원자재 수출에 기반한 성장전략에서 최근 수출지향 산업화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

으로 보인다. 조정원 한양대 교수 전문가 간담회,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정책과 중국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 발표 내용(2016. 8. 4, 세종시).

표 3-9. 최근 중앙아 3국 경제발전전략의 방향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내부 지향적	자급자족			
	수입대체산업화		○	◎
외부 지향적	일차산품 수출주도	○	○	○
	수출대체산업화 (일차산품→공산품 수출)	◎	◎	◎
특징		석유·가스 수출 확대 및 외자유치 주도 → 비에너지 원자재 부문 수출확대 병행	수입대체 및 원자재(가스, 면화, 금) 수출주도 → 비원자재 부문 수출확대 병행	천연가스 수출 확대 → 비에너지 원자재 부문 수출확대 및 수입대체 병행

주: ○: 2000년대 경제성장 본격화 단계 발전전략. ◎: 최근 발전전략.
자료: 저자 작성.

의 경우 과거 천연가스 수출주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에서 최근 비에너지 부문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 산업육성을 통해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은 [표 3-9]와 같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다만 각국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립 이후 산업화의 역사가 길지 않고, 여전히 경제정책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과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비교·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시 [표 3-9]를 살펴보면, 이는 발전전략의 주체인 국가가 지향하는 산업화의 방향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것이다.[137] 즉 최근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 방향은 내부지향적 발전과 외부지향적 발전으로 구분할 수 있다.[138]

137)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가능성과 한계」, http://snuilas.snu.ac.kr/iberopdf/snuibero220105.pdf(검색일:2016. 10. 10).

138) (내부지향적 발전전략) "자급자족 전략은 생활물자의 생산과 소비를 국내체제 틀 안에서 완결시키려는 전략이며,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은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체제에 일정한 참여를 유지하지만, 발전의 초기 단계에 발생하는 공산품의 수입을 국내산업의 보호를 통해 대체하려는 전략이다." (외부지향적 발전전략) "일차상품수출주도 전략은 국제 분업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일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국부를 증가시키는 방안이며, 수출대체산업화 전략은 해외시장을 위한 수출품목을 일차산품에서 공산품으로 대체함으로써 산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가능성과 한계」, http://snuilas.snu.ac.kr/iberopdf/snuibero220105.pdf (검색일:2016. 10. 10).

먼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부터 외부지향적 발전전략을 추진해 왔다. 다만, 2000년대에 석유・가스 수출 확대 및 외자유치에 기반한 수출주도 전략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기존 수출주도 전략을 지속 추진하는 동시에 수출구조 다각화, 즉 수출대체산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39]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부터 2000년대를 거치며 수입대체산업화에 기반한 내부지향 발전과 원자재 수출확대에 기반한 외부지향 발전전략을 동시에 모색해 왔다. 이러한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나타난 변화는 비원자재 부문 육성을 바탕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은 2000년대 경제발전 본격화 시기에 천연가스 수출주도 전략을 추진했으며, 최근에는 비에너지 부문의 수입대체 및 수출지향 산업육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중앙아시아 3국은 공통적으로 과거 일차산품 의존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3국 모두 일차산품의 수출을 통해 축적된 자본을 투자하여 산업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여전히 확실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원자재 개발과 해당 부문에서 새로운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보다 구체적으로 산업정책의 범위와 목적에 근거하여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발전전략을 살펴볼 경우, [표 3-10]과 같은 특징이 나타난다.[140] 이에 따르면 3국 모두 우선 육성분야를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수직

---

139) 다만 현지 전문가는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가 '카자흐스탄 국산품(Made in Kazakhstan)' 장려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 정책기조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산업 보호정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왕 하이얀(Wang Haiyan)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18);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18).

140) 구체적으로 특정 산업, 영역, 분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직적 혹은 선택적 정책'과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같이 특정 분야 육성보다는 기반조성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평적 정책'으로 구분된다. 또한 수직적 정책은 방어적・대응적 정책과 전략적 정책으로 구분된다. 먼저 방어적 정책은 대외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취해지는 단기적 정책수단이며, 전략적 정책은 특정 산업, 분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전략적 정책은 이미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가 또는 새로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것인가에 따라 비교우위 기반형(추격형)과 비교우위 도전형(첨단산업형) 정책으로 구분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pp. 11~14.

표 3-10. 최근 중앙아 3국 산업정책의 특징

구 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수직적 (선택적)	방어적 · 대응적		◎	◎	◎
	전략적	**비교우위 기반형 (추격형)**	◎	◎	◎
		비교우위 도전형 (첨단산업형)	◎		
수평적(투자 및 비즈니스 환경 개선)			◎	◎	◎
			민간부문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글로벌 기업과 제휴를 통한 국내산업 경쟁력 제고 목표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2014), pp. 11~14. 참고로 저자 작성.

적, 전략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확고한 비교우위 또는 잠재적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 3국 모두 이러한 추격형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의 경우 금융허브 구축,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형 정책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최근 중앙아시아 3국의 산업화 우선 육성분야는 [표 3-11]과 같다.[141]

또한 중앙아시아 3국은 이러한 산업화 추진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목적 아래 최근 민간부문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 인적역량 제고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표 3-12]와 같다.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연구를 위해 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서면 인터뷰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3국이 최근 부정적인 대외 여건 아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독립 이후 지금까지 일차산품 의존 경제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41) 이는 앞서 살펴본 이들 국가의 최근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에 근거하여 정리한 것이며, 일부 내용은 전문가 서면 인터뷰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국별 정책문서 및 세부내용의 접근성에 편차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3-11. 최근 중앙아 3국의 제조업 우선 육성분야와 기타 중점 분야

분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제조업	야금	v	비철금속				
	화학	v	농화학, 화학제품	v	농화학, 화학제품, 시멘트	v	화학제품
	석유 · 가스 화학	v	정제, 화학	v	가스 · 콘덴세이트 정제	v	정제
	기계 · 전자	v	자동차(부품), 전자기계(부품), 농기계, 철도기계, 광업기계, 석유 · 가스 생산 · 정제기계	v	자동차(부품), 농기계(부품), 전자기계(부품)	v	전자기계(부품)
	건축자재	v	건축자재	v	친환경 건축자재	v	건축자재
	농산품 · 식료품	v	유제품, 육류가공	v	과일 · 채소 훈증, 진공포장, 급속냉동	v	농산물 가공
	섬유 · 잡화			v	섬유 · 가죽 · 제화	v	섬유
	제약	v	**국내 생산기반 구축 · 수출 도모[142]	v	외국 제약업체의 라이선스 및 특허활용 약품 생산, 품목 다양화; 국내원료 · 기술 기반 약품 생산 추진	v	
농업	농 · 축산	v	친환경 농업 브랜드 개발[143], 육류생산 확대	v	고효율 면화 품종 및 다수확작물 개발		면화, 과일 · 채소 온실, 축산 등
	유통	v	농산물 가공 · 유통체계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 선진 가축사료 공급기반 구축	v	과일 · 야채 저장창고 건설 및 통합유통망 구축		
인프라	산업설비	v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확충	v	아스팔트, 시멘트 플랜트 건설,	v	
	교통 · 물류	v	도로 · 철도 · 항공 · 항만	v	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v	복합교통 · 물류센터, 공항
	정보 · 통신	v	**ICT 융합 산업인프라 개발 수요 확대[144]	v	전자정부, 인터넷 시스템 구축; 무선통신, 디지털 TV 보급 확대	v	
	에너지	v	고압선 건설, 에너지효율 설비 구축	v	에너지 효율 설비 (자동검침기 및 절전장비)	v	

표 3-11. 계속

분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사회 · 교육	v	교육인프라(유치원, 고등교육기관) 개선; 주택, 상수도 · 열공급 인프라 개선	v	교육인프라, 연구설비 개선	v	
	보건 · 의료	v	스마트 메디컬 및 원격진료 시스템, **의과대학-병원 연계 시스템 구축[145]	v		v	
	관광	v	관광 클러스터			v	관광 클러스터
에너지	전력			v	전력시설 현대화 및 신규 발전소 건설	v	
	대체에너지	v	태양열, 풍력	v	태양열	v	
혁신	혁신 클러스터	v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 설립; 혁신 클러스터 조성				
	과학기술 집약	v	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 · 나노 기술, 로보틱스 · 유전공학, 미래 에너지 연구				

주: **는 해외 전문가 서면 인터뷰 내용에서 발췌.
자료: 저자 작성.

이들 국가가 산업다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배경으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부족했던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142)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제약 및 의료산업 발전계획 2014~2018'에 따라 2019년까지 의약품 내수의 60%를 현지생산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야 인프라 현대화와 기업육성을 통해 점차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회원국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43)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은 세계적인 곡물생산국 중 하나이며, 최근에는 유기농 제품 생산이 각광받고 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유기농 제품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44) 현지 전문가는 앞서 논의한 '누를리 졸' 인프라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서는 산업설비, 교통 · 물류, 사회서비스 등의 분야 전반에서 정보통신기술(ICT)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표 3-12. 중앙아 3국의 주요 산업화 지원방안

분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민간부문 활성화	중소기업 육성	v	비원자재 부문 중소기업 육성	v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강화	v	현지화 분야[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기업 육성
	민관협력 (PPP)	v	비수익부문 중심으로 추진 (보건·의료분야 등)[146]				
	민영화	v	국영지주회사 삼룩카지나, 바이테렉, 카즈아그로 산하 공기업 등	v	국영통신사, 우체국, 경공업성, 은행 등 주요 공기업	v	비전략적 부문 소규모 국영기업[147]
투자환경 개선	규제 완화, 통관절차 간소화	v	통관절차 간소화, 통관 단일창구 구축, 세관신고 자동화 등	v	-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불합리한 규제 철폐 -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해외기업 유치	v	우선 육성분야에 주축(anchor) 투자자로 글로벌 기업 유치→국내기업과 조인트벤처 설립			v	국내 가공산업 혁신을 위한 외국인투자 확대
인적자원 개발	해외 경험 공유	v	해외인력 유치 및 노하우 확보	v	글로벌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추진	v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국제사례 활용
	전문기술자 양성	v	- 산업화 우선 육성분야 고숙련 근로자 훈련 강화 - 보건·의료 인력 훈련	v	정보·통신 분야 등 전문 기술인력 고용확대와 교육수준 제고	v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

자료: 저자 작성.

중앙아시아 3국 가운데 산업화를 위한 경제적·정책적 역량이 가장 컸음에도 석유·가스산업 호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추진력을 얻지 못했다.[148] 카자흐스

145) 현지 전문가는 카자흐스탄의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아직 국제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화를 위한 투입비용이 높기 때문에, 병원과 의과대학의 연계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46) 카자흐스탄의 PPP 사업은 핵심 기간산업을 제외한 비수익 부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고, 대부분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정우진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면담(2016. 7. 11, 아스타나).

탄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면서 체계적・구체적인 산업발전 계획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원자재 이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고, 사실상 산업정책도 완제품보다는 원자재 생산에 집중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149] 투르크메니스탄도 풍부한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했기 때문에 다른 산업발전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150]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3국의 이와 같은 구조적 취약성, 즉 원자재 수출을 통해 확보한 수익에 기대어 경제성장과 부수적인 산업발전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 최근 위기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151] 이에 전문가들은 현재 이들 국가가 모색하고 있는 경제발전전략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산업다각화와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국내 상품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최근 경제발전전략이 대체로 앞서 제시한 전략 2050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프로그램, 누를리 졸, 100대 국정과제 등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었다.[152] 그러나 일부 전문가는 최근 카자흐스탄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방향은 'Made in Kazakhstan', 즉 수입대체전략이라고 지적했다.[153] 이들 전문가는 수입대체산업화는 카자흐스탄의

147)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은 외국기업이 관심을 가질만한 통신, 철도, 전력 등 수익성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대우 LG International Corp. 상무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148) 아르슬란벡 오무르자코프(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 공화국 실크로드연구센터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149)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50) 왕 하이얀(Wang Haiyan)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51) 아르슬란벡 오무르자코프(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 공화국 실크로드연구센터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쿠쉬쿰바예프 사나트(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152) 뱌체슬라프 도도노프(Vyacheslav Dodonov)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2016. 7. 11, 아스타나) 내용; 쿠쉬쿰바예프 사나트(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아르슬란벡 오무르자코프(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공화국 실크로드연구센터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세르게이 이그나쩨프(Sergei Ignat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IMEMO) 연구원 전문가 간담회(2016. 10. 1, 모스크바) 내용.

산업정책에서 새로운 기류라고 강조하면서도, 해당 정책의 성격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적 경기부양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국내기업에 대한 선심성 지원의 성격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도 대체로 앞서 제시한 다각화 및 현지화 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를 표시했다.[154] 또한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눈에 띄는 정책변화로 수출지향 산업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서도 다각화 및 수입대체에 기반한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을 통해 점진적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특징으로 언급했다.[155]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가 제시하고 있는 산업화 우선 육성분야에 대해 대체로 비교우위와 잠재력에 근거하여 타당하게 선정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전문가들은 중앙아시아 3국이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정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현재 대내외 경제상황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제약이 따를 가능성도 제시했으며, 산업화는 이들 국가가 장기적인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53) 왕 하이얀(Wang Haiyan)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8) 내용.

154) 가니예바 굴노라(Ganieva Gulnora) 우즈베키스탄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원 연구위원(2016. 9. 18); 탈리포바 툴쿠노브나(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베흐조드 타가예프(Behzod Tagaev)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2016. 9. 28) 내용.

155) 왕스하이(王四海) 중국지질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내용.

제4장

한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평가

1. 한 · 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2. 한 · 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3. 한 · 투르크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4. 한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1. 한 · 카자흐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 · 카자흐 협력 추진체계 현황

1992년 1월 28일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양국간 경제 · 통상 협력은 200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당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156] 이에 한국 정상도 에너지 자원 협력을 위해 이전보다 적극적인 대카자흐스탄 외교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림 4-1]과 같이,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 정상으로서 카자흐스탄을 최초로 방문했으며, 나자르바예프 대통령과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157]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자원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면서 카자흐스탄과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무려 다섯 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한 · 카자흐스탄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시키는 등 양국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는 데 기여했다.[158]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에너지 · 인프라 등 전통적 협력분야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과학, 산림,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넓힐 것을 제안했다.[159] 2016년 11월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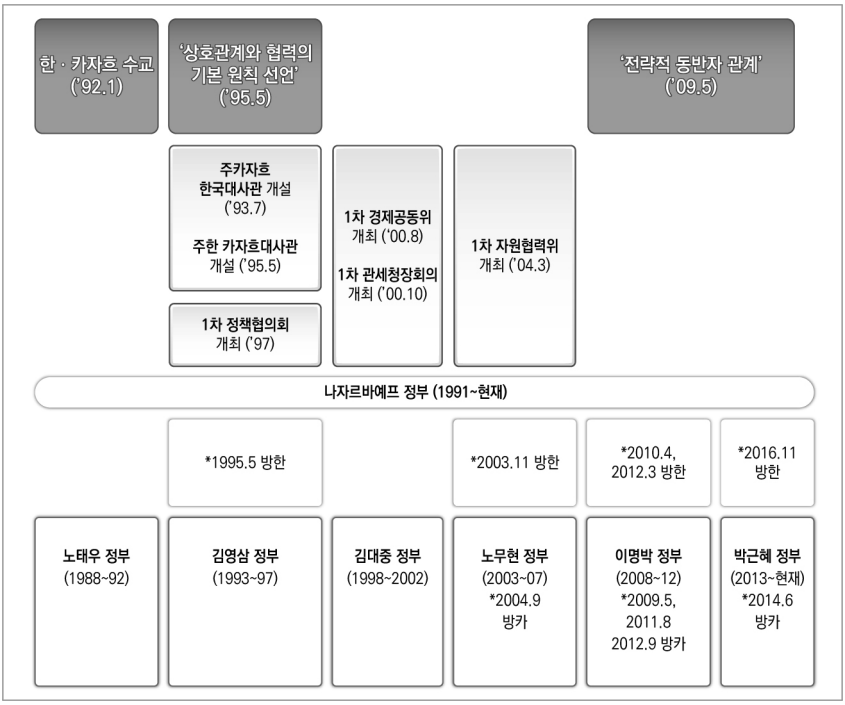
156) 조영관 외(2011), pp. 48~50.

157) 대한석유협회(2005), 「카자흐스탄 해상 석유광구 개발참여 본격화」, http://www.petroleum.or.kr/ko/sub05/02.php?ca_id=&mode=read&id=136(검색일: 2016. 7. 3).

158) KOTRA(2015c), 「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pdf(검색일: 2016. 9. 5).

159) 청와대(2014a), 「박근혜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http://kaz.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8&seqno=108150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

그림 4-1. 한 · 카자흐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주: 2008. 8 북경올림픽, 2013. 9 G20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건 포함 정상회담 횟수는 총 11차례이며, 카자흐스탄 독립 이전 1990. 11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방한은 제외.

자료: KOTRA(2003),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04-2005년판」, p. 8; 외교부(2009),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간 공동성명」(5월 19일), http://jpn-sappor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9795&seqno=322160&tableName=TYPE_DATABOARD(검색일: 2016. 8. 20); 청와대(2014b)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개최」(6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year%5D=&srh%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C4%AB%C0%DA%C8%E5%BD%BA%C5%BA&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0&srh%5Bdetail_no%5D=5(검색일: 2016. 9. 1) 기초로 저자 재구성.

EAEU 간 FTA 협상을 가속화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인프라, 교통·물류, 원격의료 시스템 구축, 공동 병원 설립, 자본시장 협력 등에 대한 관계 증진방안을 논의했다.[160]

---

du=(검색일: 2016. 9. 5).

160) 「"옛소련 5개국과 FTA 조기개시"…한·카자흐, 정상선언 채택(종합)」. 201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3552246612844408&DCD=A00601&OutLnkChk=Y(검색일: 2016. 11. 14).

2016년 현재까지 설립된 정부간 주요 경제협의체는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 '한・카자흐 정책협의회',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 '한・카자흐 관세청장회의' 등이 있다(표 4-1 참고).

먼저, '한・카자흐 경제공동위'는 경제・통상, 에너지 자원, 건설, 과학・기술, 농업, 우주기술, 교육, 정보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차관급 협의체이다. 그러나 동 공동위는 2000년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5년 동안 총 일곱 차례 회의를 개최했을 뿐이다. 이에 한국정부는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원회의 수석대표를 차관보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공동위의 위상을 제고하면서 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161] 이에 따라 '한・카자흐 경제공동위'는 향후 장관급으로 격상되어 개최될 예정이다.[162] 경제공동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한・카자흐 정책협의회'는 에너지・자원 개발, IT, 인프라 건설, 농업, 교육, 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1997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 이후 2010년 제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정책협의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동위와 마찬가지로, 본 정책협의회도 일회성 논의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카자흐 간 경제협력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채널이 '한・카자흐 경제공동위'와 '한・카자흐 정책협의체'라면, 보다 세분화된 분야를 다루는 대표적인 협의채널로는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 '관세청장회의' 등이 있다. '한・카자흐 자원협력위원회'는 양국간 협력에 가장 유망한 분야인 에너지 자원 협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2004년 3월 제1차 회의에서 2013년 9월 제8차 회의까지 비록 몇 해를 거르기는 했으나, 한국과

161) 『연합뉴스』(2014), 「민관 경제협력위 구성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6월 2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6/0200000000AKR20140626081400003.HTML?input=1215m(검색일: 2016. 7. 7).

162) 정우진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면담(2016. 7. 11, 아스타나) 내용; 나원창 주이탈리아 대사관 심의자료 내용(2016. 8. 30).

표 4-1. 한 · 카자흐 정부간 경제협의체 현황

명칭	주요 논의내용	최근 개최일
무역 · 경제 공동위원회 (차관급)	• 양국간 경제 · 통상, 에너지 · 자원, 건설, 과학 · 기술, 농업, 우주기술, 교육, 정보화,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협력 문제 논의 ※ 수석대표(7차 기준): (한국)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카자흐) 산업기술부 차관 ※ 2000. 8. 1차 회의(아스타나), 2010. 3. 5차 회의(아스타나), 2011. 7. 6차 회의(서울) 개최	7차 회의 2014. 5 (아스타나)
정책협의회 (차관급)	• 에너지 · 자원 개발, IT, 인프라 건설, 농업, 교육, 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 있어 양국간 실질협력 논의 ※ 수석대표(8차 기준): (한국) 외교차관보, (카자흐) 외교차관 ※ 1997년 1차 회의(서울), 2008. 9. 6차 회의(아스타나), 2009. 7. 7차 회의(서울) 개최	8차 회의 2010. 3 (아스타나)
에너지 · 광물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차관급)	• 자원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기업의 카자흐 유전개발 참여 확대, ※ 2002. 11. 산자부와 카자흐 에너지광물부는 자원협력약정을 체결하고 양국간 협력 확대를 위해 자원협력위(약칭) 구성에 합의 ※ 수석대표(8차 기준): (한국) 산업부 차관, (카자흐) 환경보호부 차관 ※ 2004. 3. 1차 회의, 2010. 10. 6차 회의(아스타나), 7차 회의 보도된 바 없음.	8차 회의 2013. 9 (아스타나)
관세청장 회의 (前세관협력 회의) (차관급)	• 통관애로 사항 해소,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 논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양국 관세청간 협조체계 구축방안 논의, AEO 제도 협력, 전자통관시스템 소개 ※ 수석대표(9차 기준): (한국) 관세청장, (카자흐) 조세위원장(관세위원장) ※ 2000. 10. 1차 회의(아스타나), 2012. 11. 7차 회의(서울), 2013. 12. 8차 회의(서울) 개최	9차 회의 2015. 9 (서울)

자료: 외교부(2014),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분야 확대 방안 논의」(5월 29일),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50506&c=CONTENT&t=%ED%95%B5&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외교부(2010), 「제5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및 제8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3월 16일),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8&seqno=79363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외교부(2011), 「제6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7월 20일), http://usa-sanfrancisc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3469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정우진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면담(2016. 7. 11, 아스타나); 「제7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2009), 『뉴스와이어』(7월 21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18434&ected=(검색일: 2016. 7. 27); 외교부(2008a), 「[중앙아 이용준 차관보, 중앙아 3개국 방문」,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63&seqno=729&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3); 외교부(2008b), 「차관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9월 11일),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371&ssid=28&mvid=582(검색일: 2016. 7. 3); 외교부,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 강화」, http://www.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200&tablename=TYPE_DATABOARD&seqno=052fef02bff806b019fac021&fileseq=05b06bfb1fd504dfa303b07b(검색일: 2016. 7. 4); 「산업부, 제8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 개최」(2013), 『뉴스와이어』(9월 3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2168(검색일: 2016. 10. 27); 「발하쉬 발전소 정부간 협정(IGA) 체결 합의 등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탄력 받는다」(2010), 지식경제부(10월 13일),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FcdWv6blL54J:motie.go.kr/common/download.do%3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64304%26file_seq_n%3D1+&cd=1&hl=ko&ct=clnk&gl=kr(검색일: 2016. 7. 3); 『악산세관비즈니스센터』(2012), 「제7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11월 13일),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npqWJG4cnWwTT2Jv3ry2DB4XXTjd25WzVrd7q2hGC9TVxGTpvxg2!1186443561?bbsId=BBSMSTR_1018&nttId=2223&layoutMenuNo=16647&siteId=iksa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bcode=&pcode=&recordCountPerPage=10(검색일: 2016. 8. 24); 관세청 국제협력팀(2013), 「제8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식 결과보고」;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맞손'」(2015), 『중앙일보』(9월 8일), http://news.joins.com/article/18619557(검색일: 2016. 8. 24); KOTRA(2003), 「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04-2005년판」 기초로 저자 재구성.

카자흐스탄 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온 몇 안되는 협의체 중 하나이다. 동 위원회는 석유・가스, 우라늄산업, 지질, 탐사권을 포함한 프로젝트 공동개발 등에 있어 상호 호혜적인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제3차 회의에서 잠빌광구에 대한 한국기업의 지분 양・수도 실무협상 최종 타결을 위한 합의의정서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한・카자흐스탄 민간협의체로는 '한・카자흐 경제협력위원회', '한・카자흐 비즈니스포럼' 등이 운영되고 있다. 2014년 9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카자흐스탄 투자진흥센터(KazInvest)와 한・카자흐 민간경협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MOU를 체결하면서 2015년 제1차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163] 또한 전경련은 카자흐스탄 정부와 2011년부터 '한・카자흐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해 투자 확대 및 교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164]

현지 소재 상주공관은 이러한 협력 추진체계를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은 1993년 알마티에 개설된 이후 카자흐스탄이 1997년 12월 수도를 알마티에서 아스타나로 이전하면서 함께 아스타나로 옮겨갔다. 카자흐스탄은 1995년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이어 1995년 알마티에 KOICA 카자흐사무소 개소, 2001년 10월 KOTRA 알마티 무역관이 개관되었으나, KOICA 사무소는 2008년 카자흐스탄이 OECD/DAC 수원국 리스트에서 고중소득국으로 분류되면서 지원사업을 축소하기 시작했으며, 결국 2011년 2월 사무소를 철수했다.[165]

---

163) 산업부, 「6-8억 배럴 상당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참여 합의」, http://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6728&file_seq_n=1(검색일: 2016. 10. 27).

164) KOTRA(2015c), 「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pdf(검색일: 2016. 9. 5).

165) 외교부(2014b), p. 68.

나. 한 · 카자흐 협력의 분야별 성과

1) 교역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은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 본격화된 원자재 가격상승과 이에 따른 카자흐스탄의 높은 경제성장 덕분에 급속히 확대되었다. 비록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양국 교역량은 잠시 주춤했으나, 2010년에 급속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4년에 역대 최고치인 14억 6,773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그림 4-2 참고).

그러나 여전히 양국 교역의 절대적 규모는 카자흐스탄보다 GDP 규모가 작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상호 무역의존도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이 카자흐스탄의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자흐스탄의 주요 교역국은 러시아(22.7%), 중국(20.5%), 프랑스(6.2%), 독일(6.1%), 이탈리아(4.6%) 등이며, 카자흐스탄의 수출입은 가까운 이웃국가인 러시아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166] 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은 소련 시절에 건설된 러시아 소유의 기존 송유관 및 가스관을 통해 원유를 수출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였다. 2010년 1월 1일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관세동맹의 출범으로 인해 카자흐스탄과 러시아의 교역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167] 또한 중국 국영석유천연가스공사(CNPC: China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가 카스피해 해안의 Atyrau~Atasu~중국 북서부 신장위구르자치구의 Alashankou를 연결하는 송유관(2005년 개통)을 건설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었다.[16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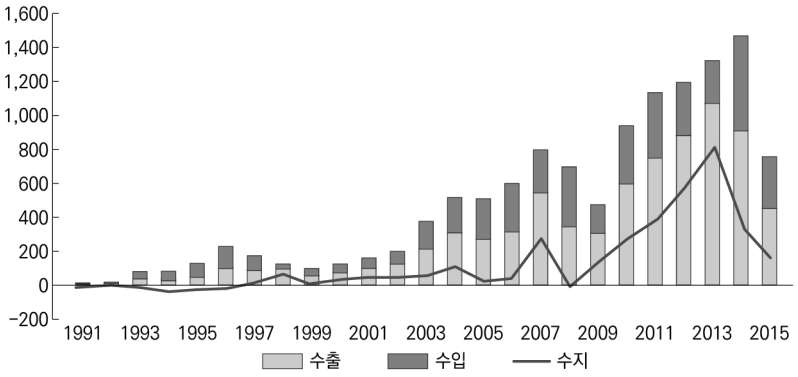
166)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10).

167) KOTRA(2013), 「[FTA · 통상정책]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현주소」, 『KOTRA 해외시장뉴스』(10월 18일).

168) 산은경제연구소(2009), 「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개발 현황 및 동국 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진출 전략」.

그림 4-2.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53	82	273	604	757	885	1074	907	454
수입	-	73	49	242	334	376	308	249	561	305
수지	-	-21	33	31	270	381	577	825	346	149
합계	-	126	132	514	938	1,133	1,194	1,324	1,468	76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8. 10).

2005년 이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은 주로 휴대폰, 칼라 TV, VCR 등 전자제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06년을 기점으로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에 집중된 수출구조로 변화했다.[169] 2014년 기준 전체 수출에서 자동차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3%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 저유가 장기화, 중국 및 러시아의 성장둔화, 텡게화 및 루블화의 가치 급락 등의 이유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교역이 크게 위축되었는데, 특히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자동차 수출이 크게 급감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과 수입은 전년대비 각각 49.89%, 45.61% 감소하면서 카자흐

169) 주카자흐스탄대사관(2006), 「카자흐스탄 개황」,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6&seqno=59021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 2016. 9. 5).

표 4-2. 한 · 카자흐 주요 교역품목 변화(MTI 4단위)

(단위: %)

수 출						수 입					
품 목	'95년	'05년	'13년	'14년	'15년	품 목	'95년	'05년	'13년	'14년	'15년
칼라 TV	41.6	3.6	5.2	2.9	3.4	동괴 · 스크랩	52.4	0.3	0.1	0.2	1.0
VCR	12.2	0.3	0.0	0.0	0.1	열연강판	17.9	20.9	0.0	0.0	0.0
피혁의류 · 기타	5.2	0.0	0.0	0.0	0.0	천연섬유원료	8.6	0.0	0.0	0.0	0.0
영상기록매체	4.5	0.1	0.0	0.0	0.0	아연괴 · 스크랩	4.3	0.3	0.0	0.0	0.0
전자레인지	2.6	0.5	0.0	0.0	0.0	기타정밀화학제품	3.2	0.2	0.0	0.0	0.0
자동차부품	1.1	1.1	2.7	2.5	3.5	동물성한약재	0.0	0.1	3.5	1.2	2.1
무선전화기	0.0	20.0	1.4	3.2	3.7	기타비철금속제품	0.0	13.2	16.3	2.0	2.3
합성수지	0.1	6.8	6.6	6.8	5.2	원유	0.0	0.0	0.0	66.4	22.6
평판디스플레이	0.0	0.0	3.6	4.1	6.3	합금철	4.4	43.3	27.7	17.1	34.1
승용차	4.8	6.2	36.9	38.3	8.9	우라늄	0.0	0.0	33.0	12.3	36.6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21).

스탄은 2014년에 비교해 15단계 떨어져 한국의 74위 수출국으로 밀려났다. 특히 2014년 3억 4,700만 달러에 달했던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승용차 수출이 2015년 약 4,000만 달러로 크게 감소했다(표 4-2 참고).

한편 카자흐스탄은 대륙중심부에 위치한 내륙국(landlocked country)이다.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으로의 육로는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경유하는 두 가지인데, 한국 제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김성국(2014)의 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상품은 운송비용 및 운송기간 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운송비용은 인프라 부족, 불균형적인 철도배치, 해상운송 부재 등으로 인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70] 이 때문에 한 · 카자흐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운송비용 절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으로 한 · 중 간 수출 경합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대카자흐스탄 수출에서도 수출품목이 중

170) 김성국(2014), pp. 271~279.

복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동차, IT 등에 있어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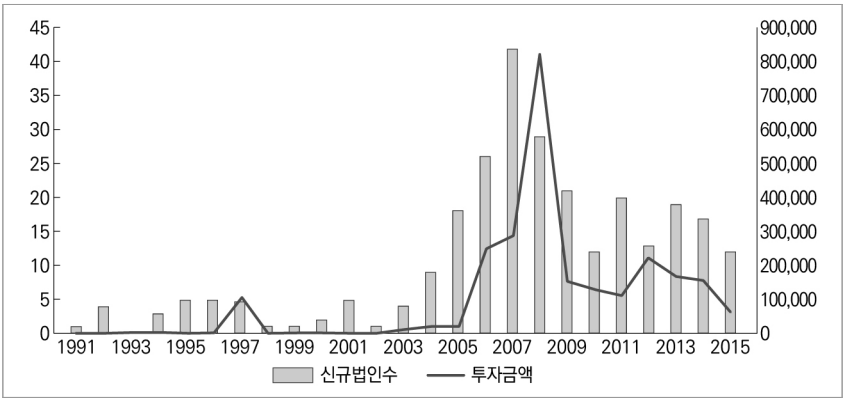
2014년까지만 해도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해외로부터 직접투자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국가였다.[171] 이는 카자흐스탄이 다른 중앙아시아 자원부국들처럼 풍부한 에너지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으로 중앙아시아 역내 국가들 가운데 투자 및 진출이 가장 용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반대로, 높은 대외개방도로 인해 세계경기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본격화된 저유가 현상, 러시아의 경기침체, 중국의 성장둔화,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텡게화에 대한 불안감 증폭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카자흐스탄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액이 전년대비 52.2% 급감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연도 카자흐스탄으로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는 투르크메니스탄보다 다소 축소되었다.[172]

카자흐스탄의 주요 투자국으로는 네덜란드, 미국, 중국 등이 있다.[173] 2015년 순유입액(net inflow) 기준으로 네덜란드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액이 37억 5,6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제일 높은 수준을 보였고, 미국이 24억 6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다.[174] 카자흐스탄의 최대 투자국인 네덜란드는 주로 석유, 화학, 기계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75] 참고로 카자흐

171) UNCTAD, 투자데이터베이스(flow 기준), http://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16. 11. 2).
172) UNCTAD, 투자데이터베이스(flow 기준), http://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16. 11. 2).
173) 한국수출입은행(2016),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174) 카자흐스탄중앙은행(NBK), 투자통계, http://www.nationalbank.kz(검색일: 2016. 11. 2).
175) 「Dutch Envoy Sees Opportunities for More Trade, Investment」(2014), 『The Astana Times』(3월 11일), http://astanatimes.com/2014/03/dutch-envoy-sees-opportunities-trade-investment/(검색일: 2016. 10. 30).

그림 4-3.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단위: 개,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8. 10).

스탄의 투자국으로서 네덜란드가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유지해온 배경에는 1997년 카자흐스탄과 네덜란드 간 체결된 이중관세방지조약과 다양한 세금 혜택으로 카자흐스탄 본국 투자자금이 네덜란드를 통해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176]

다음으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를 살펴보면, 2015년 기준 투자액이 6,969만 달러를 기록했다(그림 4-3 참고). 이는 2005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저유가 등과 같은 대외적인 요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직접투자의 93.1%가 카자흐스탄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7]

그러나 카자흐스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소련 붕괴 직후부터 컸던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성화된 시점은 2000년대 초반 이후 원유가격 상승세가 본격화되기 시작되면서부터다.

176) Merijn Hartog and Lawrence Kettle(2012), p. 2.

177)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10. 30).

당시 국내에서 자원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SK에너지, LG상사, GS홀딩스, 경남기업, 금호 석유, 현대중공업, 세하 등 많은 기업들이 석유, 가스, 광물 등을 비롯한 에너지・자원 관련 분야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게 되었다.[178] 또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건설 분야에 대한 한국기업의 진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우림건설의 알마티 애플타운, 동일건설의 아스타나 아파트 단지 등이 있다.[179] 한편 2000년 후반에 들어서 금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2008년 국민은행이 카자흐스탄 현지은행인 센터크레디트(Bank Center Credit)를 인수했고, 같은 해에 신한은행이 현지법인 인가를 취득했다.[180] 이렇듯 한국기업의 대카자흐스탄 진출이 활성화되면서 1991년 51만 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FDI는 2000년대 중반부터 크게 늘어나 2008년에 8억 2,294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투자업종을 살펴보면 2010~15년 투자총액 기준으로 제조업(38.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23.97%), 광업(8.71%), 건설업(7.73%) 순이다(표 4-3 참고). 카자흐스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를 국가발전전략의 핵심목표로 설정했다. 이에 제조업에 대한 한국의 높은 투자 비중은 카자흐스탄의 수요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기업의 광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카자흐스탄이 세계적인 광물자원 보유국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이후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광업 분야

178) 윤성학(2010),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방안」,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 발표자료.

179) 「카자흐스탄 건축시장 진출환경」(2014), 『Kotra 해외시장 뉴스』(8월 5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408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2&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100(검색일: 2016. 10. 1).

180) 외교부, 「카자흐스탄 금융 분야 진출 방안」,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41&seqno=666800&c=TITLE&t=&pagenum=25&tableName=TYPE_LEGATION&pc=&dc=null&wc=null&lu=&vu=&iu=&du=(검색일: 2016. 11. 2).

표 4-3. 업종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직접투자

(단위: 천 달러)

분야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31,183	101,688	192,996	174,047	158,835	69,42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859	-	82,363	10,845	60,972	38,272
제조업	2,945	9,795	94,477	159,026	83,532	20,232
농업, 임업 및 어업	165	500	1,473	650	2,620	4,851
금융 및 보험업	500	34,432	-	-	193	4,420
건설업	38,230	12,831	4,713	699	824	873
도매 및 소매업	95	480	398	1,450	313	49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2,372	100	-	-	20	12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	-	-	-	-	7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5	250	741	460	50
운수업	17,539	7,953	281	596	331	45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209	2,801	571	40	9570	-
광업	24,693	29,527	8,470	-	-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516	3,264	-	-	-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10).

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법규와 세제 운영 등을 들 수 있다.[181] 비록 체제전환 이후 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이 꾸준히 개선되어 역내 국가 중 외국인투자가 비교적 용이해졌으나, 여전히 권위주의적 사회 환경으로 인해 외국계 기업들이 겪는 사업상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182] 이에 대해 박지원(2013)은 50개의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기업의 경우 현지 부처 관계자 및 관료 등 현지인사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사업상의 어려움을 회피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같은 소규모 기업들은 인적 네트워크, 정보력, 자금여력

181) 김종인,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의 · 합동회의 프로그램 발표 내용(2013. 5. 13).

182) 2016년 사업환경지수(doing business 2016)에서 전체 182개국 가운데 4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정부 규제나 시장 개방성에 있어 빠른 개선을 보임.

표 4-4. 주투자자 규모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현황(2010~16년 3월)

구분	신규법인수		투자규모	
	법인 수(개)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79	100.0	828,592	100.0
대기업	16	20.25	675,380	81.51
중소기업	46	58.23	134,360	16.22
개인기업	4	5.06	10,145	1.22
개인	13	16.46	8,706	1.0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10).

등이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에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카자흐스탄 한국 투자진출은 주로 대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표 4-4 참고). 2010~16년 3월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전체 투자액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51%로 집계되었다. 다만 투자건수를 살펴보면, 79개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중소기업 또한 카자흐스탄 진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해외법인 설립 목적으로는 현지시장 진출이 82.83%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자원개발(8.11%), 제3국 진출(0.89%)이 그 뒤를 이었다(표 4-5 참고). 과거 2000~05년도 투자 목적이 자원개발(25.74%), 현지시장 진출(22.93%), 수출촉

표 4-5. 투자목적별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투자 현황(2010~16년 3월)

투자목적	신규법인수		투자규모	
	법인 수(개)	비중(%)	금액(천 달러)	비중(%)
전체	79	100.0	828,592	100.0
현지시장 진출	63	79.75	686,307	82.83
자원개발	3	3.80	67,191	8.11
기타	0	0	40690	4.91
제3국 진출	3	3.80	7361	0.89
선진기술 도입	1	1.27	1	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10).

진(6.33%), 저임금 활용(3.82%), 원자재 확보(0.35%) 순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투자 목적이 새롭게 바뀐 셈이다. 이러한 한국기업들의 투자 목적 변화는 카자흐스탄 경제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내수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현지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더불어, 2015년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즈 공화국 등이 참여한 유라시아경제연합이 출범하여 약 1억 7,100만 명에 가까운 소비시장이 형성되면서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에너지 자원 개발사업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1990년대 초반에 진출에 나선 다른 글로벌 메이저들보다 조금 늦은 시점이다. 예컨대 일본은 이미 1990년대 후반 카샤간(Kashgan) 유전 개발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한국보다 카자흐스탄 에너지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했다.[183] 반면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에너지 및 자원 관련 투자는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자원외교와 민간기업의 에너지 투자 붐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8년 한승수 총리는 첫 번째 자원외교 순방지로 중앙아시아를 지목하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잠빌 유전 탐사 개발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하여 발하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협력협약서를 체결했다.[184]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시기에 SK에너지, LG상사, GS홀딩스 등과 같은 한국 민간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면서 에너지 및 자원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최근 대규모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185] [표 4-6]에서 보듯

183) 이지은(2013), pp. 1~2.

184) KOTRA(2015c),「카자흐스탄」, pp. 18~19.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pdf(검색일: 2016. 9. 5).

185)「한・카자흐 협력사업 잇단 중단…"양국 우호 해칠라" 우려」. 2015.『연합뉴스』. (9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11700095.HTML(검색일: 2016. 10. 30).

표 4-6.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주요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프로젝트명	내 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 현황
발하쉬(Balkhash)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	• 발하쉬 호수 남서부 연안, 석탄화력 발전소 공사 • 660MW 석탄화력 2기 건설, 총 1,320MW 생산 • 총 사업비 중 70%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조달 • 20년간 BOOT 방식으로 IPP(Independent Power Plant) 민자사업으로 추진 • 카자흐 최대 국책사업, 발하쉬 호수 수질 보호시설을 갖춘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될 계획	삼성 엔지니어링/삼성물산	49억 달러 규모	2012. 6 수주 2015. 9 공사중단 (정부의 전력구매 보증 미정으로 지원자금 보류) 2020 완공예정
KLPE 석유화학 단지 건설	• 텡기즈(Tengiz) 유전(카스피해 연안 아티라우(Atyrau) 지역)에서 생산된 천연가스로부터 폴리에틸렌(PE) 40만 톤 생산 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 폴리에틸렌 공정,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 구매, 공사 수행 • 투자비 가운에 12억 달러는 합작법인 자본금, 나머진 PF 조달 • 발주처: KLPE(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GS건설	37억 7,700만 달러 규모	2013. 9 계약체결 2015. 5 계약해지(발주처와 EPC 컨소시엄 간 최종 공사 계약금 합의 실패)
쉼켄트(Shymkent)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 쉼켄트 지역, 연간 20만 톤의 1·2·3 등급 윤활기유 생산설비 건설 •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를 포함한 설계, 구매, 건설 등 EPC 업무 턴키로 수행	현대 엔지니어링, 현대종합상사	9억 달러	2012. 7 계약체결 2012. 11 착공
카라바탄 310MW 복합화력 발전소	• 아티라우 주 경제특구에 310MW급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 EPCm(설계, 기가재 제작, 설치감리, 시운전 일괄 수행)	두산중공업	3,400억 원	2015. 1 계약체결 2018. 2 완공예정

자료: 청와대(2014b),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개최」(6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year%5D=&srh%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C4%AB%C0%DA%C8%E5%BD%BA%C5%BA&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0&srh%5Bdetail_no%5D=5(검색일: 2016. 9. 1); 「[건설]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 공사 일시중단 관련」(2015), 『매일경제』(9월 22일),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t_uid=6&c_uid=28227&sCode=12(검색일: 2016. 10. 30); 「GS 건설, 1조 5천억 카자흐스탄 공사계약 해지(종합)」(2015), 『연합뉴스』(5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AKR20150519162251008.HTML(검색일: 2016. 10. 30);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윤활기유설비 수주」(2012), 『연합뉴스』(8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08/0304000000AKR20120808076000003.HTML(검색일: 2016. 10. 30); 「현대엔지니어링 9억弗 카자흐공사 수주」(2012), 『서울신문』(8월 9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9022014(검색일: 2016. 10. 30); 「두산그룹, 카자흐발전소 수주로 중앙亞 진출 '교두보'」(2015), 『매일경제』(8월 27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823363&year=2015(검색일: 2016. 10. 30);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www.icak.or.kr, 검색일: 2016. 6. 22) 기초로 저자 재구성.

이, 2013년 9월 계약이 체결된 KLPE(카자흐스탄 LG 폴리에틸렌) 석유화학플랜트 공사는 2015년 5월 공사금액을 둘러싸고 컨소시엄(GS건설, 페트로팩, 린데 등)과 발주처(LG화학,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화학기업 KPI 합작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어 삼성물산과 삼성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에서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발하쉬 석탄 화력 발전소 건설사업은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주처와 대주주단 간 협의가 지연되면서 2015년 9월 공사가 전격 중단되었다.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발하쉬에서 생산될 전력구매를 보증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86]

이러한 사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양국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협력 분야가 에너지・자원 분야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09년에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환경, 농업, 인프라・건설, 과학기술, 원자력,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187] 또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시 양국 정상은 의료・보건, 인프라 건설, 과학기술, ICT, 전자정부, 원자력, 우주기술, 산림, 농업 등의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188]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협력은 특히 보건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2011년 8월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 2014년 6월 사증면제를 체결한 이래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카자흐스탄

186)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 결국 좌초」. 2016. 『서울경제』. (9월 1일). http://www.sedaily.com/NewsView/1L18ZQVU4X(검색일: 2016. 10. 30).

187)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공동성명」. 2009. 『외교부』. (5월 13일). 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63&seqno=533&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10. 20).

188)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문」. 2014. 『청와대』. (6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3(검색일: 2016. 10. 20).

의료 관광객 수가 약 8,029명에 달했고, 2015년 동안 중국, 미국에 이어 한국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진출한 곳이 카자흐스탄이었다.[189] 또한 2016년 10월 14일 한국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체 에이티젠은 카자흐스탄 업체인 DCT BIOGEN과 1,429억 원 규모의 자사 의료기기를 2032년 12월까지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190]

3) 공적개발원조(ODA)

OECD 통계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는 약 97만 달러로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10위 원조공여국이다. [표 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카자흐스탄 원조공여국 순위는 터키(4,054만 달러), 미국(3,054만 달러), 독일(1,447만 달러), 프랑스(482만 달러), 일본(318만 달러) 등이며, ODA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ODA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와 경제개

표 4-7. 국제사회의 대카자흐스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분 류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터 키	-	-	-	-	-	54.12	53.32	50.17	39.30	40.54
2	미 국	-	-	-	-	-	70.63	21.58	23.04	29.70	30.54
3	독 일	-	-	-	-	-	15.27	17.29	15.53	14.91	14.47
4	프랑스	-	-	-	-	-	4.08	3.32	3.28	4.08	4.82
5	일 본	24.94	13.88	26.55	33.88	-	5.62	5.90	4.34	3.11	3.18
-	소 계	24.94	13.88	-	33.88	-	149.72	101.41	96.36	91.10	93.55
-	다 자	3.30	-	-	-	-	62.17	51.37	40.71	39.43	30.06
-	총 계	3.30	-	-	33.88	-	240.73	244.87	152.57	143.26	134.73

주: 총(gross) 지원액 기준.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10. 6).

189) 의료관광센터(2016), 「2016 카자흐스탄 국제 관광박람회(KITF)」 참가 결과보고(4. 26);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5), 『의료해외진출 현황분석』.

190) 「에이티젠, 카자흐스탄에 1429억원 규모 진단키트 수출계약 체결」(2016), 『매일경제』. (10월 14일)

발협력기금(EDCF) 유상원조로 이루어진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ODA는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1992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1990년대 말부터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00~11년 동안 무상원조가 매년 10억 원을 상회했으며(2009년 68억 4,637만 원 기록), 그 절대적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191] 또한 카자흐스탄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덕분에 OECD/DAC 수원국 리스트 기준 하위중소득국에서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되었으며, 그 결과 2010년대부터 무상원조액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192]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유상원조액은 2016년 5월 31일 집행액 기준으로 161억 4,000만 원이며, 이는 해당 기간 EDCF 총 집행

표 4-8. KOICA의 대카자흐스탄 원조 추이

(단위: 원)

분야		2010	2011	2012	2013	2014
총계	금액	3,196,923	1,365,457	472,201	267,739	629,528
	건수(신규)	2(1)	2(2)	0(0)	0(0)	1(1)
교육	금액	830,758	246,251	53,146	167,044	29,127
	건수(신규)	0(0)	0(0)	0(0)	0(0)	0(0)
보건	금액	1,447,469	105,906	42,910	0	268,599
	건수(신규)	1(0)	0(0)	0(0)	0(0)	1(1)
공공행정	금액	344,379	468,091	281,306	55,376	163,731
	건수(신규)	0(0)	1(1)	0(0)	0(0)	0(0)
농림수산	금액	15,091	15,206	29,800	0	0
	건수(신규)	0(0)	0(0)	0(0)	0(0)	0(0)
기술환경에너지	금액	500,058	494,672	0	0	19,920
	건수(신규)	1(1)	1(1)	0(0)	0(0)	0(0)
긴급구호	금액	0	0	23,270	45,319	148,150
	건수(신규)	0(0)	0(0)	0(0)	0(0)	0(0)
기타	금액	59,168	35,331	41,769	0	0
	건수(신규)	0(0)	0(0)	0(0)	0(0)	0(0)

자료: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6. 6. 13).

191)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6. 6. 13).

192) 외교부(2014b), p. 68.

액의 0.27%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원조액을 국가순위로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6위를 차지했다.

KOICA의 최근 5년간(2010~14년) 분야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행정 부문이 전체의 30.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24.46%), 보건(20.96%) 등이 뒤를 이었다(표 4-8 참고). 현재 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유상원조는 통신망현대화사업(사업규모: 162억 6,900만 원) 단 하나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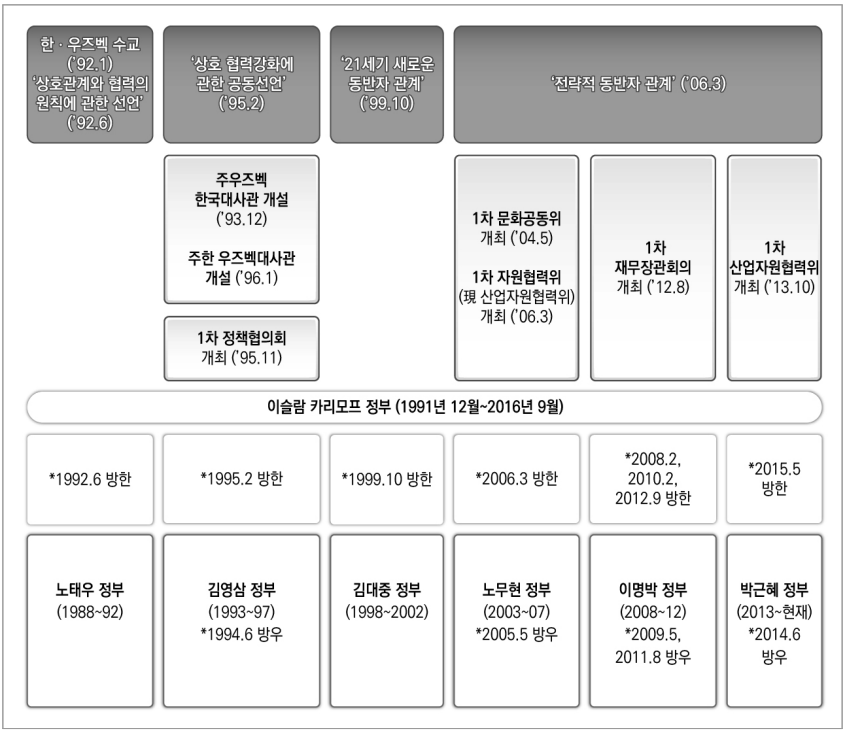
2. 한·우즈벡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우즈벡 협력 추진체계 현황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양자관계는 [그림 4-4]에서와 같이, 1992년 1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24년간 큰 발전을 이룩해왔다. 특히 경제협력을 확대・심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차원에서 경제협력 추진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력협정', '무역협정', '투자증진 및 상호보호협정'을 체결하여 경제적 교류기반을 구축한 데 이어, '한・우즈벡 정책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상호 정치・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2006년 3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관계는 상호 호혜적이며 미래지향적 실질협력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되었으며, 유전 및 가스전 공동탐사, 광산 공동개발 등이 합의되면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자원외교가 본격화될 수 있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력이 매우 떨어지는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적 특성상 정부간 협상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이례적으로 총 여섯 차례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어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수주계약에 성공하는 등 자원외교의 성과가 가시

그림 4-4. 한 · 우즈벡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주: 2008. 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시 개최된 건 포함 정상회담 횟수는 총 14차례.
2016년 9월 이슬람 카리모프 사망으로 현재(2016. 10 기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 중.
자료: 저자 작성.

화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지속 및 강화시키는 차원에서 기존의 '자원협력위원회'를 '산업자원협력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장관급 협의채널인 '재무장관회의'를 설립했다.

가장 최근 개최된 정상회담은 2015년 5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카리모프 대통령이 같은 해 3월에 실시된 대선 승리 직후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는 제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과정에서 첨단기술과 자본, 경제발전 경험 등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2016년 현재까지 설립된 정부간 주요 경제협의체는 '한・우즈벡 정책협의회', '한・우즈벡 무역・경제협력 공동위원회', '한・우즈벡 산업자원협력위원회' 등이며, '한・우즈벡 문화공동위원회'는 2006년 제2차 회의 이후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 있다(표 4-9 참고). 2016년 9월에는 서울에서 제8차 '한・우즈벡 무역・경제협력공동위원회'가 장관급으로 격상 개최되어 무역・투자, 에너지 자원, 개발협력(보건・복지), 산업(섬유, 농업) 등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양국간 희소금속 및 농기계 연구개발(R&D)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한・우즈벡 재무장관회의'는 2012년 양국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설립된 장관급 협의채널로 2015년 5월 제3차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와 함께 '한・우즈벡 민간경제협력위원회',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과 같은 민간 차원의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즈벡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간 민간경협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0년 6월 '한・우즈벡 민간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듬해부터 '한・우즈벡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

이처럼 양국간에는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 추진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며, 현지 소재 상주공관은 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1993년 12월 타슈켄트에 대사관을 개설한 데 이어, 1995년 6월에 KOICA 우즈벡사무소, 1996년 10월에는 KOTRA 타슈켄트무역관을 개관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1996년 1월 서울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이러한 상주공관들은 양국 정부 및 민간기업들 간 공식 채널로서 경제협력 활성화, 현지 진출 관련 정보 제공 및 애로사항 해결,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표 4-9. 한 · 우즈벡 정부간 경제협의체 현황

협의체	주요 논의내용	최근 개최일
재무장관회의 (부총리급)	• 경제정책 방향, 경협 증진, 투자환경 개선 등 ※ 수석대표(3차 회의 기준): (한국)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즈벡) 제1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 수교 20주년 계기 고위급 경협 채널 필요성에 따라 개최(중앙아 국가와는 최초의 장관급 회의) ※ 2012. 8. 1차 회의(타슈켄트), 2013. 12. 2차 회의(서울) 개최	3차 회의 2015. 5 (타슈켄트)
정책협의회 (차관급)	• 양국간 교역 · 투자 증진, 건설 · 인프라, 자원 · 에너지 협력, 한반도 및 중앙아 지역정세 등 ※ 수석대표(12차 회의 기준): (한국) 외교부 차관보, (우즈벡) 외교부 차관 ※ 1995. 11. 1차 회의 개최 후 2년마다 교차 개최, 2014. 4. 11차 회의(서울) 개최	12차 회의 2015. 12 (타슈켄트)
무역 · 경제협력 공동위원회 (장관급)	• 양국간 교역 · 투자 증진, 산업 · 기술 교류협력, 투자환경 개선 등 ※ 수석대표(8차 회의 기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우즈벡) 수석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 ※ 1994. 11. 무역위원회 설립 및 민간경제협력위원회 설립 MOU에 따라 추진. 2007. 5. 5차 회의(타슈켄트), 2009. 4. 6차 회의(서울) 개최 ※ 제8차 회의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 개최	8차 회의 2016. 9 (서울)
산업자원협력 위원회 (前 자원협력 위원회) (우즈벡 차관급, 한국 국장급)	• 양국간 산업 · 자원 협력, 민관협력사업 개발, 투자확대 등 ※ 수석대표(1차 회의 기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장, (우즈벡) 경제부 차관 ※ 2011. 8. 이명박 대통령의 우즈벡 방문을 계기로 기존 '자원협력위원회'를 산업 분야까지 포괄하는 산업자원협력위로 확대 개편 ※ 한 · 우즈벡 자원협력 MOU(2005. 5)에 따라 1~3차 자원협력위 개최: 2006. 3. 1차 회의(서울), 2007. 11. 2차 회의(타슈켄트), 2009. 4. 3차 회의(서울) 개최	1차 회의 2013. 10 (타슈켄트)
문화공동위원회 (국장급)	• 문화 · 인적 교류 활성화 ※ 수석대표(2차 회의 기준): (한국) 외교통상부 문화외교국장, (우즈벡) 문화부 문화유산시설 보호국 국장 ※ 1994년 체결된 문화협정에 따라 구성, 2004. 5. 1차 회의(타슈켄트) 개최	2차 회의 2006. 7 (서울)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6), 「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 신실크로드 시장진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9월 28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62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3(검색일: 2016. 10. 5); 외교부(2008a), 「[중앙아] 이용준 차관보, 중앙아 3개국 방문」,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63&seqno=729&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3);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6. 10. 5).

나. 한·우즈벡 협력의 분야별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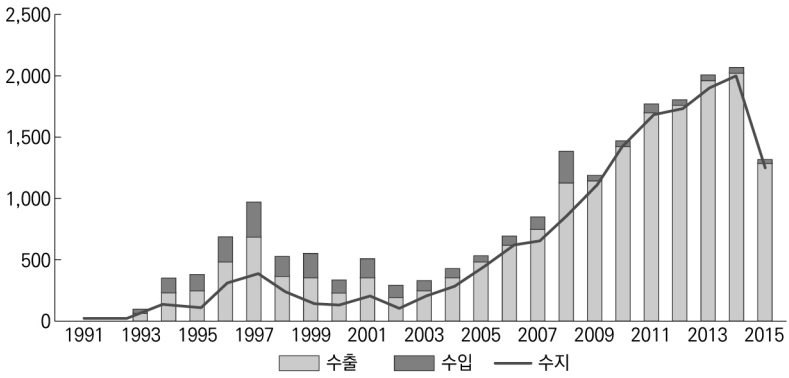
1) 교역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한국과 가장 많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이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규모는 [그림 4-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국의 경제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에 힘입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1990년대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와 섬유분야에 중점을 둔 제조업 육성전략과 한국의 새로운 수출시장 모색이 맞아떨어지며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중후반 교역량의 급격한 증가는 GM우즈베키스탄의 수요 증가에 의한 자동차부품 수출과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에 힘입은 결과이다.

2014년 양국 교역량은 20억 6천만 달러(수출 20억 3,246만 달러, 수입 2,736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10배 이상 확

그림 4-5.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교역

(단위: 백만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244	230	493	1,439	1,719	1,767	1,968	2,032	1,284
수입	-	135	104	29	22	40	42	53	27	16
수지	-	109	126	464	1,417	1,679	1,724	1,915	2,005	1,268
합계	-	379	334	522	1,461	1,759	1,809	2,021	2,060	1,3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2).

대된 규모이다. 비록 2015년에는 저유가와 러시아 경기침체의 여파로 교역량이 전년대비 36.9% 감소하였으나, 이는 여전히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전체 교역량의 50% 이상에 달한다.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대상국은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주로 구소련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최근 들어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대상국은 중국(19.6%), 러시아(16.3%), 카자흐스탄(12.0%), 스위스(9.6%), 한국(8.3%) 순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지난 20여 년간 유럽과는 신속하게, 러시아와는 완만한 속도로 교역비중을 축소시키면서 서방의 민주주의 위협과 러시아의 과도한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왔다.[193] 이러한 가운데 구소련 시기부터 우즈베키스탄에 대해 독보적인 교역비중을 자랑해 온 러시아가 2013년을 기점으로 중국에 1위 교역대상국 자리를 내주었다. 이는 2004년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 안디잔사태(2005)에 의한 서방과의 관계 악화, 중국의 수출신용 지원 등으로 본격화된 중국과의 교역 확대가 지난 10년 사이 급격히 증대된 데 기인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꾸준히 4~5위 교역대상국으로서 비중을 조금씩 확대해왔다(표 4-10 참고).

표 4-10. 우즈베키스탄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1995년					2015년				
	국가명	수출	수입	총계	비중	국가명	수출	수입	총계	비중
1	러시아	808	907	1,715	29.9	중 국	1,152	2,461	3,613	19.6
2	독 일	167	389	556	9.7	러시아	547	2,459	3,006	16.3
3	카자흐스탄	245	168	413	7.2	카자흐스탄	928	1,274	2,202	12.0
4	한 국	-	269	269	4.7	스위스	1,688	85	1,773	9.6
5	우크라이나	89	152	241	4.2	한 국	15	1,506	1,521	8.3
-	소 계	1,309	1,885	3,194	55.6	소 계	4,330	7,785	12,115	65.8
-	총 계	2,716	3,027	5,743	100.0	총 계	6,551	11,860	18,411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4).

193) 신범식(2015), pp. 205~245.

표 4-11. 한 · 우즈벡 주요 교역품목 변화(MTI 4단위)

(단위: %)

수 출				수 입			
품 목	1995년	2005년	2015년	품 목	1995년	2005년	2015년
운반하역기계	14.0	0.0	0.2	천연섬유원료	95.5	60.0	0.0
기타기계류	11.7	0.4	2.4	기타농산물	1.6	0.0	0.3
기타산업기계	10.7	0.0	0.8	강반제품	0.8	0.0	0.0
프레스금형	7.7	0.0	1.6	동물성한약재	0.7	0.0	1.8
건설중장비	1.2	0.1	1.8	동조가공품	0.6	0.0	0.0
펌프	1.0	0.0	3.2	질소비료	0.0	0.0	3.4
합성수지	0.0	3.7	3.5	승용차	0.0	0.0	4.3
원동기	0.0	15.2	6.7	면사	0.0	25.8	17.2
승용차	7.2	5.3	7.2	식물성한약재	0.0	2.7	22.2
자동차 부품	1.5	57.9	41.0	펄프	0.0	0.0	38.8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7. 16).

우즈베키스탄은 주로 기계・설비, 화학・고무제품, 식품 등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은 [표 4-11]에서와 같이, 주로 자동차 및 관련부품(48.2%)과 기계・장비류(27.0%)가 주를 이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한국기업의 플랜트 수주가 증가하면서 건설 중장비, 산업기계 등 기자재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및 관련부품 수출은 GM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 수요에 따른 것인데, 최근 러시아 경기침체로 인한 우즈베키스탄의 대러시아 자동차 수출 급감으로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수출 또한 눈에 띄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원자재가 상품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 개통을 기점으로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교통·물류 인프라 부재로 이를 수입하기 어려운 한국은 주로 펄프(39.9%), 동・식물성 한약재(24.0%), 순면사(17.2%) 등을 위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그 절대적 규모 또한

미미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1990년대 초중반 면화에 95% 이상 집중되어 있던 수입구조와 비교하여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다.

2) 투자협력

우즈베키스탄은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를 국가 우선정책으로 지정함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부문에 대해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폐쇄적인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서 지난 10년간(2005~14년) 실질적인 투자유입이 평균 10억 달러가 채 되지 않는다.[194]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가스전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에, 중국은 에너지 분야(CACP 건설, 아랄해 석유・가스전 개발 등)와 물류·제조업(지작・나보이 경제특구 등)에 투자 진출하는 등 대우즈베키스탄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러시아 경기침체로 주요 투자진출국들의 대규모 투자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의 에너지, 광물자원, 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 기회를 독보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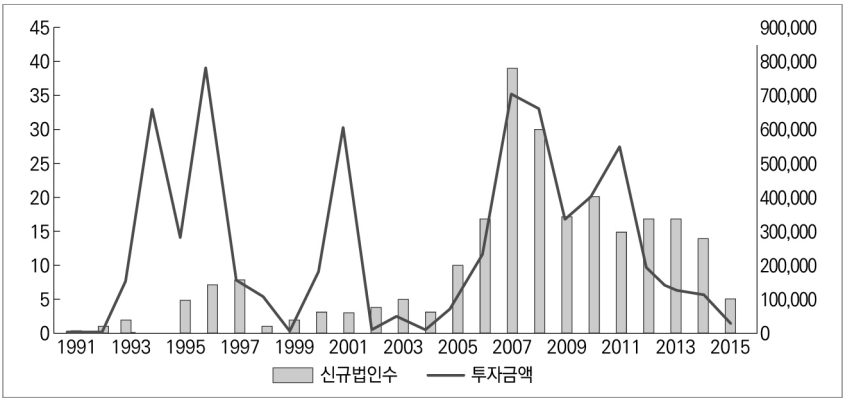
한국의 우즈베키스탄 투자진출은 수교 이후 1993년부터 본격화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소연방 붕괴 직후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인구, GDP, 제조업 기반 등에서 가장 월등한 수준이었기에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대우그룹의 자동차, 통신, 금융, 섬유, 가전 등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진출이 이루어지면서 1996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액은 역대 최고치인 7,814만 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로 대우그룹이 해체되고 한국기업의 관심이 중앙아시아 최대 자원 보유국이자 당시 대규모 건설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카자흐스탄으로 전환되면서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그림 4-6 참고).

우즈베키스탄은 풍부한 노동력, 저렴한 에너지 자원과 임차료 및 공공요금

194) 평균 약 7억 9천만 달러.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16. 6. 28).

그림 4-6.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

(단위: 개, 천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22).

등 투자진출에 매력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투자규모는 2014년 1,161만 달러로, 이는 같은 해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약 273억 달러)의 0.04%에 불과하다. 2015년에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기악화 영향으로 전년대비 약 75% 감소한 290만 8천 달러를 기록했다. 1992~2015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액은 6억 4,275만 달러로, 이는 같은 기간 한국의 전 세계 투자액의 0.03%, 대중앙아시아 투자액의 19.1%(2015년 한 해 기준으로는 3.9%)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투자부진의 원인은 기업의 외환매각(외환소득의 50%,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의무, 6개월에서 1년에 달하는 환전 소요기간, 자율송금 제한 등과 같은 엄격한 외환관리 등에 있다. 까다롭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비자 발급과 지역간 균형발전의 명목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주지 등록제는 기업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시키며, 우즈베키스탄 관료행정의 불투명성과 인허가, 전력연결 등 각종 정부서비스 수급 지연 또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에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195]

195) 송동준 현대엔지니어링 타슈켄트 지사 지사장 면담(2016. 7. 26, 타슈켄트), 안성준 KOTRA 타슈

표 4-1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업종별 투자(2015년 누계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비중
농업, 임업 및 어업	2	2,171	758	0.1
광 업	7	56,559	43,184	6.7
제조업	110	741,539	406,408	63.2
건설업	23	6,303	4,145	0.6
도매 및 소매업	23	12,728	7,778	1.2
운수업	13	31,255	23,592	3.7
숙박 및 음식점업	8	50,479	17,239	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42,253	37,576	5.8
금융 및 보험업	8	62,945	34,487	5.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337,066	54,542	8.5
기 타	30	17,787	12,897	2.0
합 계	245	1,361,085	642,746	100.0

주: 기타에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 포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22).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직접투자는 [표 4-1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의 63.2%인 4억 641만 달러가 제조업에 집중되었다. 2014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한 것으로 확인된 66개의 한국기업들은 제조업(자동차・자동차부품, 섬유・피혁 등, 26개), 운수업(물류운송 등, 11개), 건설・공사업(건축, 토목, 플랜트 등, 8개), 도・소매업(무역, 전기・전자제품 등, 8개) 등이다.[196]

한편 2000년대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자원외교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아시아의 자원부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주계약이 증가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이명박 정부 집권 당시 활발한 정상회담(총 여섯 차례)을 바탕으로 한국기업과의 건설 프로젝트 협력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주로 소규모 건설 설계나 개보수 공사에 국한되었던 건설 프로젝트는 2011년 39억 달러 규모의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수주계약에

켄트 무역관 관장 면담(2016. 7. 27, 타슈켄트) 내용.

196) KOTRA(2014), 『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성공함에 따라 대규모 플랜트 부문으로 전환되면서 한국기업의 투자진출 기회를 크게 확대시켰다. 동 프로젝트가 한국의 기술 및 자본과 우즈베키스탄의 자원이 결합된 대표적인 양국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되면서 '칸딤(Kandym) 가스처리시설(2011년)', '천연가스 액화정제(GTL) 플랜트 건설(2013년)',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2013년)' 등이 연이어 체결되었으며, 누적 규모는 현재(2016년 6월)까지 약 98억 달러에 달한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우즈베키스탄 건설부문 최대 수주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표 4-13.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주요 에너지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단위: 달러)

프로젝트명	내 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 현황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 1단계: 아랄해 연안 수르길 가스전 개발 및 천연가스 생산 • 2단계: 천연가스 운송(타슈켄트→우스튜르트 가스화학단지, 약 110㎞) • 3단계: 화학제품 생산(고밀도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및 판매(수출) – 31만 평 규모 중앙아 최대 가스단지 최초의 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	삼성ENG GS건설 현대ENG	21억 (총 39억)	• 2016. 5 완공 • 향후 25년간 한국컨소시엄+UNG 공동운영
칸딤 가스처리시설	• 부하라 지역, 98개 가스전에 가스파이프, 가스처리공장 및 관련 인프라 설비 건설 • 연간 82억 ㎥ 가스 처리 • 총 규모 26억 6천만 달러	현대ENG	20억	• 2015. 2 계약체결 • 2016. 4 착공 • 2019년 중 완공 예정
	※ 칸딤 가스 조기 생산 EPC		4억 2천만	• 2013. 10 계약체결 • 현 공사 마무리 단계
	※ F/S 및 상세설계		2억 4천만	• 2011. 8 계약체결 • 현 공사 완료
천연가스 액화정제 (GTL) 플랜트 건설	• 세계 세 번째 건립 GTL 프로젝트 • 카르시 지역, 연간 35억 ㎥ 가스처리 플랜트, 경유(86만 톤), 항공유(30만 톤), 나프타(40만 톤), LPG(1만 톤) 생산플랜트 등 건설 • 엔지니어링, 구매, 건설 등 전 프로젝트 과정 일괄 수행(턴키 방식)	현대건설	23억	• 2013. 12 계약체결 • 현 공사 진행률 2% • 미수금 315억 원 이상 (유가하락 및 프로젝트파이낸싱 미정으로 공사 지연)
		현대ENG	7억 8천만	
탈리마잔 복합화력발전소 2기 건설	• 카르시 지역, 450MW 2기 건설 • 총 발전용량 93만KW	현대건설	8억	• 2013. 3 계약체결 • 2016년 중 완공 예정

자료: 언론보도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검색일: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통계, http://www.icak.or.kr(검색일: 2016. 6.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4-13 참고).

이에 더하여, 2015년 5월 카리모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은 '메탄올-올레핀(MTO) 프로젝트 투자협력 양해각서(MOU, 45억 달러)'를 체결하고 투라쿠르간 발전소(10억 달러), 타히아타쉬 발전소(7억 달러),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 건설(3억 달러) 등 신규 사업 추진을 위한 수주 기반을 조성했으며, 이로써 양국간 경제협력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 외에도 양국은 2016년 6월 우즈베키스탄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을 목적으로 '섬유테크노파크 조성사업'에 착공했다. 동 사업은 편직, 염색, 섬유 가공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력양성, 공동연구 및 시험생산, 기자재 및 설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농기계 R&D 센터 조성이 착수됨에 따라 기자재 발주, 기술인력 초청연수 프로그램 등이 계획되고 있다.[197]

3) 공적개발원조(ODA)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네 번째 주요 원조공여국이다. [표 4-14]에서와 같이, 2014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원조규모는 1,728만 달러(유상원조 220만 달러, 무상원조 1,508만 달러)로 이는 일본(6,103만 달러), 독일(2,508만 달러), 미국(2,332만 달러)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OECD DAC 회원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ODA를 제공하고 있는 일본은 동아시아에 집중되어왔던 지원을 최근 중앙아시아 및 코카서스 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최대공여국으로 자리 잡았다. 일본은 우즈베키스탄에 화력발전소, 철도 전산화, 관개시설 개선 등 각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보건 및 인적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197) 산업통상자원부(2016), 「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 신실크로드 시장진출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9월 28일),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seq_n=158623&bbs_cd_n=81&currentPage=1&search_key_n=&search_val_v=&cate_n=&dept_v=&from_brf=brf&brf_code_v=3(검색일: 2016. 10. 5);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대외경제전문가풀 연구회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표 4-14. 국제사회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분류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일본	13.65	8.45	5.15	42.83	50.58	20.43	22.81	21.10	13.66	10.45
2	독일	10.34	1.52	26.15	18.79	8.46	19.32	19.72	17.76	18.42	16.62
3	미국	-	-	-	-	-	16.49	8.20	10.83	27.95	23.32
4	한국	22.92	15.64	9.28	2.02	2.20	11.86	9.03	12.44	11.40	15.08
5	터키	-	-	-	-	-	15.44	6.56	5.20	7.00	4.33
-	소계	46.91	25.61	40.58	63.64	61.24	83.54	66.32	67.33	78.43	69.80
-	다자	76.07	99.87	112.59	153.36	181.71	32.54	41.60	66.40	33.20	55.18
-	총계	46.91	27.09	40.83	63.98	61.24	125.76	117.41	144.88	122.17	136.68

주: 총(gross) 지원액 기준.
KOICA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 금액은 각각 0.91, 0.32, 0.32, 0.11, 0.03백만 달러임(검색일: 2016. 6. 23).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10. 6).

도 적지 않은 자금과 기술협력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또한 지속가능한 경제개발과 보건을 중점분야로 채택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기본인권 보장, 자유무역, 보건 등을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에 무상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이들 국가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한계는 있으나, 한국은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자국기업 진출 및 기술도입 등 조건화)이나 서방(인권, 부정부패, 시장통제 등 사회・정치적인 분야에 대한 개선 요구)과 비교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198]

일본과 독일, 각종 국제기구의 적극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 유입되는 공적개발원조의 80.5%가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 분야에 집중(2013~14년 평균 기준)되어 있으나,[199] 한국은 독자적인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전략(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에 따라 선정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을

198)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부소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내용.

199) OECD DAC, "Aid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검색일: 2016. 10. 5).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 개발을 지원해왔다. 이는 일본, 독일과 같은 주요 공여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원조규모가 매우 작은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지원 사례는 전자정부 도입으로,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부로 스카우트 된 김남석 차관의 총괄 아래 추진되고 있다.[200]

1992년 10만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액은 우즈베키스탄이 한국의 대외원조 중점지원국가로 선정됨에 따라 2014년 1,243만 달러(OECD: 1,508만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1992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에 63건의 사업에 대해 총 8,224만 달러(약 908억 8,805만 원)의 무상원조를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교육 부문에 3,704만 달러(14건, 45.0%), 보건 부문에 1,404만 달러(21건, 17.1%), 공공행정 부문에 1,300만 달러(15건, 15.8%)가 지원되었다.[201]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유상원조는 1990년대 '통신망 현대화사업'에 집중되었다가 2000년대부터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통신 인프라, 의료지원 사업 등에 집중 지원되었다. 2015년까지 총 9건의 사업에 대해 약 3,237억 원(2억 8,220만 달러, 승인 기준)이 유상원조에 활용되었다(표 4-15 참고).

우리나라는 공여기관간 정보공유나 협의과정 없이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원조 분절화가 심각한 수준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최근 유·무상 협력사업이 진행되면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예컨대 EDCF가 타슈켄트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을 지원하는 동안, KOICA는 의료인 교류, 의료지식·기술 전수 등 인적자원 역량개발 사업을 무상으로 지원(2015~19년, 700만 달러)할 예정이다. 타슈켄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 건설사업 또한 KOICA에서 수행한 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상원조가 제공될 예정이다.[202]

---

200)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부소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내용.

201)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6. 7. 18).

표 4-15.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유상원조(EDCF) 지원 현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승인년도	승인		집행액	대출잔액
		(백만 달러)	(백만 원)		
통신망 현대화사업	1996	15.00	12,486	12,450	3,320
직업교육시설 개선사업	1999	35.00	39,251	38,481	20,309
직업교육개발 사업	2003	27.00	30,495	14,561	13,833
교육정보화 사업	2006	30.00	34,838	33,842	33,842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사업	2009	10.00	11,383	10,601	10,601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1	15.00	17,726	426	426
국립아동병원 건립사업	2013	102.85	121,533	1,843	1,843
국립전자도서관 구축사업	2014	14.35	16,959	275	275
교육정보화 2차 사업	2015	33.00	38,996	-	-
합 계	-	282.20	323,667	112,479	84,449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www.edcfkorea.go.kr(검색일: 2016. 6. 23).

한편 우즈베키스탄을 대상으로 한 한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은 현재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특히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FIEZ)' 설립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손꼽힌다(표 4-16 참

표 4-16.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KSP 주요 내용

사업명	연도
우즈베키스탄 제조업 육성과 수출 촉진 방안	2004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FIEZ) 설립	2009
우즈베키스탄 혁신기반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010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시스템의 강화전략	2011
우즈베키스탄 산업혁신전략	2012
우즈베키스탄 농업 및 산업기술혁신전략	2013
우즈베키스탄 핵심 정책분야 지원: 산업클러스터, 사이버보안, 과학기술, 보험	2014
우즈베키스탄 핵심 정책분야 지원: 경제특구, 공공예산, 산업진흥, 고등교육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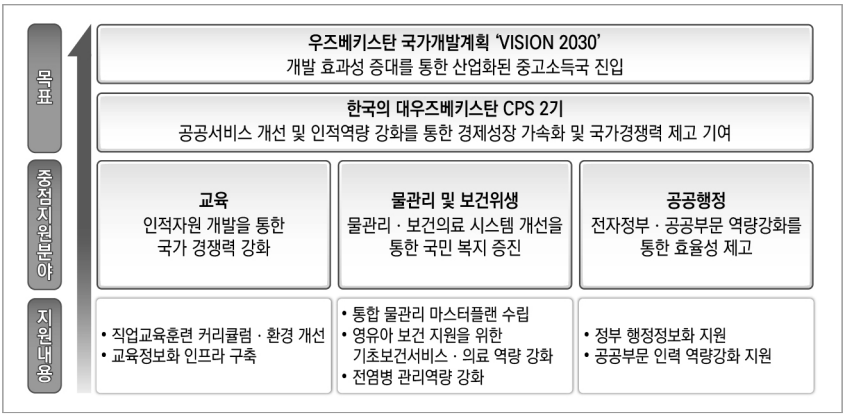
자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홈페이지, http://www.ksp.go.kr/(검색일: 2016. 7. 18).

202)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부소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내용.

고). 한국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특별경제자유구역 설립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2008년 12월 나보이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2009년 수행된 나보이 경제특구 운영에 대한 컨설팅 제공은 한국형 발전모델 전수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총 지출액 기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ODA 가운데 우즈베키스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81.2%로,[203] 우즈베키스탄은 중동・CIS 지역에서 아제르바이잔과 함께 한국이 선정한 유일한 '중점협력국'이다. 이는 2000년대 들어 카자흐스탄이 석유·가스 수출 증가에 힘입어 공적원조의 필요성이 감소하면서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진 데에 기인한다. 최근에는 국가협력전략(CPS) 1기(2012~15년)가 만료됨에 따라 2기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24개 중점협력국 중 하나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개발협력이 수행될 예정이다. CPS 2기는 기존의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 ICT 기반의 수자원 관리를 포함한다(그림 4-7 참고).

그림 4-7.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ODA 전략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6). 『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바탕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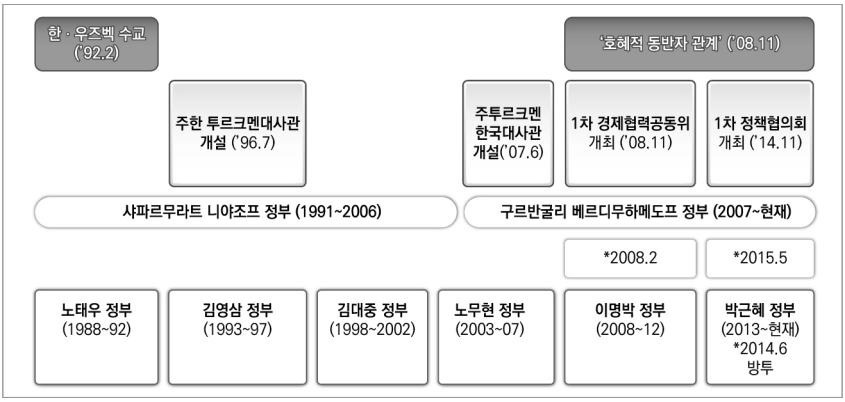
203) OECD Stat,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10. 6).

3. 한·투르크멘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

가. 한 · 투르크멘 협력 추진체계 현황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2월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후 한동안 인적 교류 및 협력이 매우 저조했다. 그러나 2007년 2월 폐쇄적 고립정책을 고집하던 샤파르무라트 니야조프를 대신하여 온건개혁 성향을 지닌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204]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어 같은 해 6월 주투르크메니스탄 대한민국대사관이 개설되면서 양국관계가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했다(그림 4-8 참고). 2008년 5월 한승수 총리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으로 정상급 인사 교류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으며, 같은 해 8월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을 계기로 양국간 정상회담이 최초로 개최되었다. 2008년 11월에는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한국에 최초로 방문하여 양국 관계를 '호혜적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

그림 4-8. 한 · 투르크멘 양자관계 및 경제협력 추진체계의 발전과정



주: 2008. 8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 시 개최된 건 포함 정상회담 횟수는 총 네 차례.
자료: 저자 작성.

204) 황영삼(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터키 기업 – 실태와 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3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면서 '한・투르크 공동협력위원회' 설립협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호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최근에는 정상급 인사교류 활성화와 더불어 경제협력공동위, 정책협의회 등이 차례로 설립되면서 양국간 정치·경제적 관계가 급속도로 증진되고 있다. 2016년 현재까지 설립된 정부간 주요 경제협의체는 '한・투르크멘 정부간 경제협력공동위원회'와 '한・투르크멘 정책협의회'이다. '한・투르크멘 정부간 경제협력공동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개최되었으며 산업 인프라, 석유・가스, 문화, 무상원조, 농업, 교통, 기술협력 등 다양한 분야로 논의를 확대해왔다(표 4-17 참고). '한・투르크멘 정책협의회'는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2014~15년 양국 외교부간 협력계획서'에 따라 같은 해 11월 최초로 개최되었다. 또한 2015년 11월에는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의 일환으로 아슈하바트에서 제2차 회의가 열렸다.

이와 함께 '한・투르크멘 비즈니스포럼', '한・투르크멘 민간경제협력위원회'와 같은 민간 차원의 협의체도 운영되고 있다. 두 협의체 모두 무역협회가

표 4-17. 한・투르크멘 정부 간 경제협의체 현황

협의체	주요 논의내용	최근 개최일
경제협력공동위 (투르크멘 부총리급, 한국 장관급)	• 에너지・플랜트, 통상・산업, 건설・교통 등 ※ 수석대표(3차 회의 기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투르크멘) 석유가스 부총리 ※ 2008. 11 베르디무하메도프 방한 계기로 설치 ※ 2008. 11 1차 회의(서울), 2010. 10 2차 회의(아슈하바트), 2011. 11 3차 회의(서울), 2014. 6 4차 회의(아슈하바트) 개최	5차 회의 2015. 4 (서울)
정책협의회 (투르크멘 장관급, 한국 국장급)	• 대규모 에너지・플랜트 분야 협력 강화방안, 한국기업 투르크멘 신규 진출, 실질협력 강화방안 등 ※ '2014~15년 양국 외교부간 협력계획서'에 따라 설치 ※ 수석대표(2차 회의 기준): (한국) 외교부 국장, (투르크멘) 외교부 장관 ※ 2014. 11 1차 회의(서울) 개최	2차 회의 2015. 11 (아슈하바트)

자료: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6. 10. 5).

투르크멘상공회의소와 함께 양국 기업간 네트워크 확대를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한・투르크멘 비즈니스포럼'은 제4차 '경제협력공동위'에서 논의된 이후 2015년 3월에, '한・투르크멘 민간경제협력위원회'는 2015년 11월에 한・중앙아 카라반 행사의 일환으로 아슈하바트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무역협회와 투르크멘상공회의소는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연례 교차 개최와 기업인 사절단 파견 등에 합의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과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력 추진체계가 다소 늦게 구축되었다. 이로 인해 양국간 협력 논의는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 6월 아슈하바트에 대사관이 개설되었으나, 그 외 정부 또는 민간 협의체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지 소재 상주공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나. 한・투르크멘 협력의 분야별 성과

1)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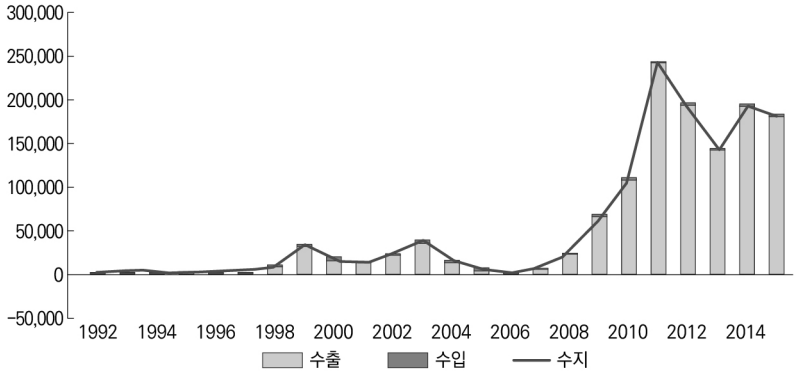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역규모는 경제협력 추진체계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직후인 2010년 1억 달러를 넘어선 이래 현재까지 2억 달러 내외로 유지되고 있다. [그림 4-9]에서와 같이, 2015년 양국 교역량은 약 1억 8천만 달러(수출 1억 8,216만 달러, 수입 3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0년대 초반과 비교하여 약 80배 이상 확대된 규모이다. 2015년 기준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14위 교역대상국이며,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114위 교역대상국이다.

2015년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총 교역량은 184억 3,300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중에서 중국이 43.5%로 교역대상국 1위, 그 뒤를 이어 터키(13.8%), 아랍에미리트(6.0%), 러시아(5.8%), 이란(3.3%) 등 주요 가스수입국들이 주요 교역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205] 2000년대까지만 해도 투르크메니스탄의 교

205)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10. 4).

그림 4-9.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교역

(단위: 천 달러)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출	-	453	15,275	6,449	109,542	242,714	193,509	141,189	192,987	182,162
수입	-	2,894	95	1,330	456	472	837	126	156	31
수지	-	-2,441	15,180	5,119	109,086	242,242	192,672	141,063	192,831	182,131
합계	-	3,347	15,370	7,779	109,998	243,186	194,346	141,315	193,143	182,193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8).

역은 제1의 가스 수출대상국이었던 우크라이나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2009년 CACP 완공으로 대중국 천연가스 수출이 확대되면서 중국과의 무역액이 2011년에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양국이 서로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공급처(투르크메니스탄)이자,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의 핵심 협력 파트너(중국)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206] 이러한 상황 속에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한편 터키와의 높은 교역비중은 지리적 인접성, 투르크 문화권에서 오는 문화적·언어적 동질성 등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경제협력에 기인한다.[207] 이처럼 천연가스 부문을 중심으로 인접국들간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2015년 기준 투르크메

206) 외교부(2016),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가이드 북』, p. 13.

207) 황영삼(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터키 기업 – 실태와 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3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표 4-18.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출품목(MTI 6단위 기준)

(단위: 천 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승용차/불꽃점화식 1,500cc 초과	36,099	18.7	기타철구조물	21,070	11.6
2	액체펌프	11,135	5.8	주강	13,505	7.4
3	배전반	9,851	5.1	가열난방기부품	9,589	5.3
4	공기조절기	9,642	5.0	기타주철	9,311	5.1
5	밸브	9,103	4.7	밸브	8,680	4.8
6	화물자동차	8,368	4.3	철 및 비합금강용접강관(대)	8,657	4.8
7	착색아연도강판	6,776	3.5	운반하역기계	8,409	4.6
8	기타전선	6,286	3.3	액체펌프	7,982	4.4
9	기타철구조물	5,577	2.9	통신용동축케이블	5,518	3.0
10	기타기계류	4,530	2.3	화학기계	5,305	2.9
-	소 계	107,367	55.6	소 계	98,026	53.8
-	합 계	192,987	100.0	합 계	182,162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8).

니스탄 전체 교역량의 1.0%를 차지하는 데 그쳤다.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기초 산업기계, 철강제품, 자동차 등을 수입하고 있다. 반대로 한국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품은 섬유 및 섬유가공 제품이다. 기존 천연섬유원료와 면사 등 원자재가 주를 이루었던 것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남성바지, 스커트 등 직물제 의류와 가죽제 가방, 섬유제품 등의 가공제품이 주를 이루고 있다(표 4-18과 표 4-19 참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통·물류망 부재로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에너지 자원 수입이 어렵기에 아직까지 양국간 교역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인기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재 투르크메니스탄 대중교통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 버스와 자동차로 운영되고 있으며,[208] 이는 에너지 외의 분야에서

표 4-19.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수입품목(MTI 6단위 기준)

(단위: 달러, %)

순위	2014년			2015년		
	품 목	금액	비중	품 목	금액	비중
1	남성바지	60,971	39.0	남성바지	30,401	98.7
2	실내용품	60,919	39.0	코트 및 자켓	275	0.9
3	가죽제가방	31,132	19.9	기타무선통신기기부품	137	0.4
4	여성바지스커트	1,909	1.2	-	-	-
5	기타섬유제품	659	0.4	-	-	-
6	스웨터	340	0.2	-	-	-
7	기타면사	281	0.2	-	-	-
8	기타전자응용기기	180	0.1	-	-	-
9	-	-	-	-	-	-
10	-	-	-	-	-	-
-	소 계	156,391	100.0	소 계	30,813	100.0
-	합 계	156,391	100.0	합 계	30,813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8).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확인해주는 아주 좋은 예이다.

2) 투자협력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경제적 잠재력에 비해 직접투자유입액이 연평균 약 24억 달러(2005~14년 기준)[209]로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베르디무하베도프 정부 들어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점진적 경제개혁과 함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2007~08년 외국기업의 투자진출이 활기를 띠었다. 터키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리한 배경을 바탕으로 공공시설(학교, 병원, 박물관, 극장 등), 고급아파트, 공장 등 투르크메니스탄 현대화 사업의 제1

208) 『광주일보』(2015), 「대한민국의 든든한 조력자 투르크메니스탄」,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48809200564775131(검색일: 2016. 8. 10).

209)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16. 10. 6).

파트너로서 상당한 규모의 투자협력을 제공해왔다.[210] 여기에 1990년대 중반 선제적으로 투자 진출한 말레이시아(Petronas Carigali Sdn. Bhd.)를 비롯하여 중동과 유럽기업들이 연이어 천연가스 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211] 특

표 4-20.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주요 에너지 플랜트 분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단위: 달러)

프로젝트명	내 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 현황
칼키니쉬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매장량 14조 ㎥) • 연간 100억 ㎥ 규모의 천연가스 탈황 공정 • 총 85억 달러 규모의 투르크 사상 최대 규모 프로젝트로 투르크멘가스가 네 개 파트로 발주 • 국내 건설업계의 첫 번째 중앙아시아 진출 사업 ※ (LG상사) 칼키니쉬 가스탈황설비 생산황에 대한 판매권 확보 MOU 체결(2014. 6): 7억 5천만 달러(1억 5천만/5년) 규모	LG상사 현대ENG	14억 8천만	2009.12. 수주 2013.9. 완공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현대화	• 1943년 건설된 정유공장 개보수 • 연간 230만 톤 고옥탄가 가솔린 생산	LG상사 현대ENG	4억 7천만	2012.6. 수주 2015.6. 완공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2차 현대화	•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현대화' 후속 프로젝트 • 카스피해 연안 투르크멘바시, 투르크멘 국영기업 소유 정유공장에 휘발유, 경유 유황성분 제거 설비 건설 • 사업비 일부 공적수출신용기관에서 조달(무역보험공사 4억 달러, 수출입은행 4억 달러) • 150여 개 국내 중소기업 참여로 약 4억 5천만 달러의 중소기업 수출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 기대	LG상사 현대ENG	9억 4천만	2014.6. MOU 체결 2015.4. 수주 2019.8. 완공예정
키얀리 원유처리 플랜트	• 카스피해 연안 키얀리, 기존 가스처리설비에 원유처리설비 증설 • 기존보다 일간 원유 1만 배럴, 천연가스 3,500만㎥ 추가로 처리 가능	LG상사 현대ENG	2억 4천만	2013.7. 수주

210) 황영삼(2013),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터키 기업 – 실태와 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3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11) NEBIT-GAZ(2016),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 is the evidence of trust to the reliable, stable and responsible partner"(8월 16일), http://www.oilgas.gov.tm/en/blog/375/investment-cooperation-with-turkmenistan—is-the-evidence-of-trust-to-the-reliable-stable-and-responsible-partner(검색일: 2016. 10. 6).

표 4-20. 계속

(단위: 달러)

프로젝트명	내 용	수주기업	규모	진행 현황
키얀리 석유화학단지	• 카스피해 연안 키얀리,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생산 공장 건설(연간 7억 달러) • LG상사, 현대ENG, 현대건설 24억 4천만 달러 • ECA 금융조달: 무역보험공사(11억 달러), 수출입은행 직접대출(5억 달러) 채무보증(2억 달러), 일본수출입은행 직접대출(4억 달러), 일본무역보험공사(3억 달러) ※ (LG상사) 키얀리 화학처리 플랜트 생산 제품 판매권 확보 MOU 체결(2014. 6):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전량(7억 달러/10년)	LG상사 현대ENG 현대건설 도요ENG	34억 4천만	2013. 7. 수주 2018. 4. 완공예정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 아슈하바트 인근, 연간 35억 ㎥의 천연가스 처리, 경유 및 납사 생산	LG상사 현대ENG	39억 2천만	2014. 6. MOU 체결 2015. 4. 수주 2020.10. 완공예정

자료: 『뉴스1』(2015), 「현대ENG,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시장 석권...비결은?」(7월 22일), http://news1.kr/articles/?2328875(검색일: 2016. 7. 26); 현대엔지니어링(2015), 「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준공」, 『현대엔지니어링 보도자료』(10월 13일), https://www.hec.co.kr/prcenter/press/reportView.asp?code=7399&page=1(검색일: 2016. 7. 25);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검색일: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통계, http://www.icak.or.kr(검색일: 2016. 6. 28) 바탕으로 저자 작성.

히 CACP 건설 투자금이 대규모로 유입되면서 2000년대 초반 4억 달러에 그쳤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2009년 45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212]

이러한 가운데 한국 또한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비록 수교 직후부터 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온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과 비교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 서비스 수준을 인정받음에 따라 투르크메니스탄의 주요 수주국이 되었다. 이는 정상회담과 경제협의체를 통한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의 결과로, 특히 정유・석유화학, 산업플랜트 건설 등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15년 4월 정상회담에서는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2차 현대

212)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org/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16. 6. 28).

화 사업과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건설사업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었다. 또한 철강생산 플랜트 건설사업 등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추가적인 수주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한국기업의 진출 기회를 확대했다. 2009년 최초로 '칼키니쉬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주한 이래 2016년 6월 현재까지 총 17건의 사업(전체 계약금액 100억 3,600만 달러) 수주에 성공했으며,[213] 이 가운데 16건이 베르디무하메도프 정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성사되었다. 수주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부문은 정유・석유화학, 산업발전소 등 대형 플랜트 건설사업으로, '칼키니쉬 가스탈황설비 플랜트', '키얀리 석유화학단지', '천연가스 합성석유(GTL) 플랜트' 등 대표적인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만 총 95억 5천만 달러(전체 계약금액의 95.2%) 규모의 계약이 체결되었다(표 4-20 참고). 이로써 한국은 대형 에너지 플랜트 건설 분야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국립대 신축공사, 안전도시구축사업(CCTV 설치 및 안전시스템 구축), 지적현대화사업 등 건설 및 IT 분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2016년 6월에는 현대자동차·현대종합상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도로교통부 간 대형버스 '에어로시티' 500대 공급 계약(780억 원)이 체결[214]되어 전방위적인 협력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반면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가운데 한국기업의 직접투자액이 가장 저조한 국가 중 하나로, 2015년 누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는 45만 달러에 그쳤다.[215]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폐쇄성이 강한 정부의 강력한 국가통제, 제한적인 비자 발급, 법・제도 집행의 비일관성, 수익금 환전 및 송금 제한, 내국민 고용의무[216] 등 시장 진입이 어려운 데에 기인한다. 한국

213)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검색일: 2016. 6. 28);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통계, http://www.icak.or.kr(검색일: 2016. 6. 28).

214) 『연합뉴스』(2016), 「현대차, 사상 최대 해외 버스공급 계약체결…투르크메니스탄에 버스 500대 공급」(6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60607034900003.HTML(검색일: 2016. 7. 26).

2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28).

216) 투르크메니스탄은 노동허가를 취득한 외국인 1인당 자국민 4인을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 4-21.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업종별 투자(2015년 누계기준)

(단위: 천 달러, %)

업종대분류	신규법인수	투자금액	비중
제조업	0	0	0.0
건설업	2	412	91.6
도매 및 소매업	0	0	0.0
운수업	1	5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	0	0.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2	33	7.3
기 타	0	0	0.0
합 계	5	450	100.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28).

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직접투자의 91.6%인 41만 2천 달러가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표 4-21 참고), 진출기업은 대기업에 국한되어 있다. 이는 높은 시장 진입 장벽과 정보부족 등이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투자와 현지진출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각종 투자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정부간 직접적인 협의가 필수적이다.

3) 공적개발원조(ODA)

OECD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공적개발원조는 약 3만 달러로 투르크메니스탄의 13번째 원조공여국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최대 원조공여국은 터키(1,180만 달러), 미국(894만 달러), 독일(158만 달러) 등으로 고중소득국인 만큼 그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은 편이며, 주로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표 4-22 참고). 총 원조금액의 27.5%가 사회 인프라 및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어서 생산(23.3%), 교육(18.5%), 경제 인프라 및 서비스(14.9%) 등의 분야로 유입되고 있다(2013~14년 평균기준).[217]

(이대우 LG상사 아슈하바트 지사 상무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표 4-22. 국제사회의 대투르크메니스탄 OD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순위	분류	유상원조					무상원조				
		2010	2011	2012	2013	2014	2010	2011	2012	2013	2014
1	터키	-	-	-	-	-	17.39	13.56	12.89	15.76	11.80
2	미국	-	-	-	-	-	9.47	10.14	10.72	7.93	8.94
3	독일	-	-	-	-	-	1.83	1.59	1.83	1.46	1.58
4	영국	-	-	-	-	-	0.06	0.15	0.66	0.81	0.60
5	일본	-	-	-	-	-	1.55	1.27	0.53	0.56	0.46
-	소계	-	-	-	-	-	30.30	26.71	15.63	12.52	23.38
-	다자	3.30	-	-	-	-	14.29	15.68	11.25	12.22	13.59
-	총계	3.30	-	-	-	-	47.14	44.62	42.02	39.89	38.45

주: 총(gross) 지원액 기준.
한국은 2014년 기준 13위로 2010~14년 사이 1.01, 0.69, 0.32, 0.11, 0.03백만 달러. KOICA 통계에 따르면 같은 기간 한국의 대우즈베키스탄 무상원조 금액은 각각 0.91, 0.32, 0.32, 0.11, 0.03백만 달러임(검색일: 2016. 6. 23, [표 4-22] 참고).
자료: OECD Stat,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10. 6).

한편 한국은 공공행정, 기술환경에너지, 교육을 중심으로 투르크메니스탄의 개발을 지원해왔다. 1995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은 투르크메니스탄에 7건의 사업에 대해 총 27억 1,370만 원(약 237만 7천 달러)을 무상원조로 제공했으며, 같은 기간 동안 유상원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표 4-23 참고).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인적자원 양성 및 연수생 교육·훈련 등을 여타 원조형태에 비해 선호하고 있고,[218] 원조에 대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에 기인한다.

217) OECD DAC, "Aid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검색일: 2016. 10. 5).

218) 외교부(2016), 『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가이드 북』, p. 23.

표 4-23. 한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무상원조(KOICA) 지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개)

분 야		1995~2000	2001~10	2011	2012	2013	2014	총 계
총 계	금 액	121,333	1,470,820	318,892	324,728	110,523	30,433	2,376,730
	건 수	3	1	1	1	1	0	7
교 육	금 액	31,459	42,091	0	0	110,523	0	184,074
	건 수	0	0	0	0	1	0	1
보 건	금 액	0	5,916	0	0	0	0	5,916
	건 수	0	0	0	0	0	0	0
공공행정	금 액	89,875	984,447	290,917	324,728	0	30,433	1,720,398
	건 수	3	1	1	1	0	0	6
농림수산	금 액	0	26,395	27,975	0	0	0	54,370
	건 수	0	0	0	0	0	0	0
기술환경에너지	금 액	0	338,288	0	0	0	0	338,288
	건 수	0	0	0	0	0	0	0
긴급구호	금 액	0	14,198	0	0	0	0	14,198
	건 수	0	0	0	0	0	0	0
기 타	금 액	0	59,486	0	0	0	0	59,486
	건 수	0	0	0	0	0	0	0

자료: 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6. 7. 18).

4. 한 · 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의 추진 현황 비교 및 평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은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한 이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와 높은 경제협력 잠재력을 바탕으로 호혜적인 관계발전을 이룩해왔다.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유라시아 경제협력 네트워크상 핵심거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한국의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있어서 중요한 경제협력 대상국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산업다각화, 에너지 산업 잠재력 제고, 기초산업 기술 유치, 선진기술 도입 등을 추구하고 있는 중앙아시아 3국의 입장에서도 자본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다른 두 국가와는 달리 적극적인 개방경제정책을 통해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금융, 물류, ICT 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노동인력이 가장 풍부한 장점을 갖고 있으나, 제조업 기반은 물론 각종 인프라가 아직 초기 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진기술의 도입이 절실하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수출국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으로 경제협력대상국 다양화 전략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은 이들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진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교 이래 꾸준히 유지시켜 온 호혜적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 또한 한국과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은 양국 경제가 보유한 잠재력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2000년 중후반 원자재 가격상승과 높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GM우즈베키스탄의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 증가와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그 절대적 규모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며, 특정품목에 편중된 교역구조는 러시아 경기침체와 저유가의 직접적인 영향권 안에 있다. 이는 중앙아시아 자동차 시장 불황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면서 교역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교역규모는 상대적으로 경제협력이 늦게 추진된 관계로 2010년에서야 1억 달러를 넘어섰다. 따라서 러시아 경기침체나 저유가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으나, 교역 확대 속도가 매우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한국의 일방적인 수출구조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2015년 기준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3위 수입대상국이었던 반면, 수출대상국 순위에서는 18위로 크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한・투르크멘 교역구조에서 이는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2015년 기준 총 교역액 가운데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의 수입액은 겨우 0.02%에 그쳤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불균형은 국가간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이 중국, 러시아, 일본, 유럽 등 중앙아시아 3국의 주요 교역대상국과 비교하여 일정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이미 2014년부터 카스피 해에 자동차 전용 터미널을 운영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운송비용 절감에 주력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대한 총 직접투자액의 93.1%를 차지(2015년 기준)하는 카자흐스탄에 대해서도 투자액이 7천만 달러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중앙아시아 3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교역에 비해 훨씬 부진한 상황이다. 이는 한국기업의 현지진출 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현지정보 부족과 투자타당성 예측의 어려움, 숙련 노동자 부족 등은 3국의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경제적 폐쇄성이 강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강력한 정부통제와 관료주의 행정으로 기업의 신규진출이 자유롭지 못하며, 법규 및 금융시스템 미비, 불투명한 행정처리,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까다로운 비자 발급 절차, 엄격한 외환관리 등이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 확대를 제약하고 있다.

이를 일부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양자간 다양한 협의채널을 통해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해왔다. 다만 해당 논의사항들이 주요 수주 프로젝트에 한해 일회성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례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한·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우즈벡 대외경제부에 각각 기업애로 해결전담창구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해당 논의가 단순한 데스크 설치에서 끝나지 않도록 양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아시아 3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는 대부분 우즈베키스탄에 집중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된 이래 ODA 유입이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투르크메니스탄 또한 원조에 대한 수요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표 4-24.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 현황 비교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핵심특징	(카자흐) 풍부한 에너지 · 광물 자원 보유, 높은 수준의 경제 및 금융시장 개방도, 투자 및 진출용이, 물류부문 높은 잠재력 보유 (한국) 선진기술 · 자본 보유	(우즈벡) 풍부한 에너지 · 광물자원 보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거점 (한국) 산업현대화 · 다각화에 필요한 자본 · 기술 보유	(투르크) 4대 천연가스 매장지, 향후 역내 에너지 주도권 강화 예상 (한국) 에너지 산업 고도화 및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기술 · 자본 보유
성 과			
교 역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32.4% 차지 • 2000년대 중반 원자재 가격상승 및 높은 경제성장률로 교역량 급증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55.4% 차지 • 1990년대 대우그룹의 진출로 교역 활성화 • 2000년대 중후반 자동차부품 수출, 대형 플랜트 사업 수주로 교역량 급증	• 한국의 대중앙아 교역의 7.8% 차지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교역 활성화
투자협력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93.1% 차지 • 2000년대 중반 본격화된 고유가로 진출 활성화(자원개발, 건설, 금융 등) • 현지진출 목적의 투자진출 확대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3.9% 차지 • 이명박 정권 시절 활발한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수르길 프로젝트 수주계약 체결 • 이후 탈리마잔, 칸딤, GTL 프로젝트 등 잇따른 대규모 플랜트 건설 수주계약 체결 성공	• 한국의 대중앙아 투자의 0.6% 차지 • 2007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 취임 이후 투자 확대 • 2010년 칼키니쉬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투르크멘바쉬, 카얀릭, GTL 프로젝트 등 대규모 수주 성공 •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7% 차지 • 상위중소득국으로 분류된 이래 ODA 축소	• 일본, 미국, 독일에 이은 네 번째 공여국,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82.1% 차지 • 중앙아 유일의 중점협력국가, 국가협력전략(CPS)에 따라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에 중점 지원 • 모범적인 유 · 무상 원조 협력 대상국	• 한국의 대중앙아 ODA의 0.2% 차지

표 4-24. 계속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과 제			
교역 및 투자협력 애로사항	• 현지정보 부족으로 투자타당성 예측불가 • 환율불안정으로 환율 예측 어려움 • 높은 운송비용, 해상운송 부재 • 노동자 쿼터, 낮은 생산성, 숙련 노동자 부족 • 중소기업 진출 부진	• 외환소득 매각 의무, 환전 소요기간 장기화, 자율송금 제한 • 까다로운 비자 발급절차, 거주지 등록제도 • 불투명한 행정처리, 정부서비스 수급 지연	• 폐쇄적 사회구조, 강한 국가통제, 높은 부패지수, 낮은 경제자유도 • 비자 취득의 어려움 • 법규 및 금융 시스템 미비, 행정의 불투명성, 소유권 및 계약권 보호체제 결여 • KOTRA 무역관 부재로 인한 정보제공, 애로사항 해소,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 지원 부족
공적개발 원조 애로사항	–	• 원조기관간 협력, 사업간 연계, 후속관리 시스템 미비 • 복잡한 원조총괄체계 및 행정절차	–
기타 해결과제	• 저유가로 인한 공사 중단 및 계약 해지 • 경제협의체 정례화 미비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연 •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수주경쟁 확대 • 협의체간 높은 기능상 중복, 낮은 행정 예측 가능성	• 장관급 협의체 부재 • 중국, 일본과의 수주경쟁 심화 • 경제발전전략 분석 및 수요에 대한 이해 부족

자료: 저자 작성.

유·무상 원조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관계로,[219] 이를 기회삼아 정부간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에 있어서 한국은 2014까지 약 3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무상 원조를 제공한 네 번째 주요 원조공여국이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의 유일한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조가 집중적으로 제공되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10월에는 아베 총리가 카리모프 대통령

219) 이대우 LG상사 아슈하바트 지사 상무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과 정상회담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발전시설 건설계획 및 의료센터 기자재 정비 등의 부문에 대해 약 127억 엔(약 1,190억 원)에 달하는 ODA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220] 이에 비추어 볼 때, 원조부문에서 이미 압도적인 우세를 자랑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원조부문뿐만 아니라, 교역 및 투자협력에서도 일본의 입지가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는 곧 한국의 영향력 축소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와 연계한 CPS에 따라 대부분 지원사업의 효과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이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원조를 국가개발정책과 철저히 연계하면서 이와 맞지 않는 원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순수하게 한국정부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다소간에 무리가 있다.

한편 원조기관간 협력, 사업간 연계, 후속 관리 시스템 등의 미흡 및 부재는 전반적인 원조 효과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유・무상 원조 분절화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 이미 오래이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수원 총괄기관은 대외경제관계투자무역부이나 중요 결정권은 내각이 가지고 있는 한편, 다자원조 및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은 경제부에서, 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은 재무부에서 수행하고 있어서 원조총괄체계와 행정절차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221]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 상당히 호의적인 편이므로 이를 개선하여 실질적인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개발협력 확대 시에도 이와 같은 애로사항을 정부간에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과 5월, 카리모프 우즈벡 대통령과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멘 대

220) 『교도통신사』(2015), 「日 아베 수상,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ODA "1190억원" 제공 합의」,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10/125213.html(검색일: 2016. 6. 7).
221) 관계부처 합동(2012), 『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 전략 2012~15』.

통령이 연이어 한국을 방문하여 투자 및 무역확대, 무역구조의 질적 다변화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합의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산업현대화・다변화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한국의 첨단기술 장비 수입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으며, 중점산업 육성분야인 석유・가스, 석유화학, 기계 제작, 전자, 보건 및 제약, 식품, 농산물 가공, 에너지 효율, 교통 인프라 현대화 등을 우선적인 투자협력분야로 선정했다. 투르크메니스탄과는 '이중과세방지협정'과 '과학기술협력협정'에 서명했으며 '투자보장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약속하고 에너지・플랜트 건설과 같은 전통적인 분야를 비롯해 섬유, 신재생에너지, 교통, 인적・문화적 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가장 최근인 2016년 11월에는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하여 교역·투자, 에너지・자원, 인프라, 보건・의료 등 분야에 대해 10개의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양국 정상은 한・유라시아경제연합(EAEU) FTA 협상 개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처럼 현재까지 중앙아시아 3국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된 양자회담과 각종 경제협의체, 다자회담(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을 통해 한국에 협력을 요청한 분야는 [표 4-25]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경제협력은 에너지, 그중에서도 석유화학 플랜트, 화력발전소 등 전통적인 에너지 부문이 주도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서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원자재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산업현대화 및 다각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협력수요도 제조업 육성, 과학기술 이전, 교육, 교통, 의료・보건, 농업현대화, 문화・관광, 전자정부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투자협력은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에 국한되어 있으며, 그 외의 협력수요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장기 사회・경제 발전전략 2011~2030'을 통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촉진하

고자 하는 섬유, 제조업 육성 부문에 대한 양국간 협력이 아직까지 관련 부처간 양해각서를 체결(섬유협력 MOU, 철강생산플랜트 MOU)한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우즈베키스탄과는 비교적 활발한 개발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기업진출이 어려운 교육, 의료・보건, 농업 등 부문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정책지원 및 전략전수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각 국가와 부문별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안들

표 4-25. 한국과 중앙아시아 3국간 분야별 협력수요 및 현황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수요	석유화학플랜트 신재생에너지 수출대상국 다원화 화력발전소	신재생에너지·신소재 개발 에너지 생산시설 효율화 송배전망 전력 현대화	가스플랜트 태양에너지 수출대상국 다원화
	협력현황	석유화학플랜트 석탄/복합 화력발전소 우라늄 산지 개발 합작기업 MOU 설립	가스전 개발 가스화학 플랜트 가스처리/액화정제 복합 화력발전소	가스탈황 정유공장 현대화 원유처리 플랜트 석유화학단지 천연가스 액화정제
산업	수요	첨단산업 합작공단 제조업 육성(산업다각화) IT·금융 육성/현대화 과학기술 이전 중소기업 육성	노동력 활용 산업단지 제조업육성(산업다각화) IT 산업 육성 과학기술 이전	섬유 제조업 육성(산업다각화)
	협력현황	가전제품 생산공장 대우버스 조립공장 은행지점 개설 합작증권회사 설립 PG 서비스 사업 운영(온라인쇼핑몰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휴대폰 결제 등) 추진	나보이 자유산업경제특구 설립 섬유테크노파크(인력양성, 공동연구 포함) 산업(기술)혁신전략 전수 제조업 육성 및 수출 촉진 방안 전수 정책지원(산업클러스터, 과학기술, 사이버보안, 경제특구, 보험, 산업진흥)	섬유 협력 MOU 철강생산 플랜트(MOU)
교통・물류	수요	철도, 도로, 물류지대 건설	철도 교통 인프라 현대화	-
	협력현황	잠빌주 도로공사 외곽순환도로 사업	-	버스・자동차 수출 대형버스 공급

표 4-25. 계속

구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교육·의료·보건	수요	의료·보건 단지 의과대학 병원 합작 보건의료시스템 현대화 의료 IT 시스템 구축	초·중등 교육정보화 제약	-
	협력현황	의료기관(의원, 건강검진 등) 설립 의료장비 지원 의료기술 전수, 의료인 연수교육 한국언어문화연수	직업교육시설 교육정보화 심장수술센터 의료기기 공급 국립아동병원(의료진 교류, 기술전수 포함) 국립전자도서관 고등교육 정책지원	국립대학교 신축
농업	수요	식품가공 아랄해 환경문제 수자원 효율적 활용 농업시설 구축 및 선진기술 도입	농업현대화 경작물 다각화 식품가공	-
	협력현황	농업기술센터 설립 식품 생산공장 선진 농업기술 전수 전문인력 육성	농기계 R&D 센터 농업 혁신전략 전수	-
기타	수요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 상하수도시설 관리·운영 ICT(전자정부) 문화·관광·스포츠 교류 주택 건설	유적지 활용 관광산업	서비스·관광 산업 문화·스포츠 교류 이란·인도 진출사업
	협력현황	전자정부 협력 MOU 아파트 · 복합건물 건설	전자정부 공공예산 정책지원	안전도시구축(CCTV)

자료: 중앙아시아 3국의 분야별 협력수요는 양자 경제협의체, 양자회담, 다자회담(한-중앙아 협력포럼) 등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이 가운데 기존 협력채널의 비효율성 문제도 새로운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한 · 카자흐 정책협의회'는 2010년 이후, '자원협력위원회'는 2013년을 마지막으로 개최되지 않고 있다. 이에 2014년 한 · 카자흐 정상회담에서 기존의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도 '한 ·

우즈벡 문화공동위원회'가 2006년 2차 회의를 끝으로 개최된 바 없다. 이처럼 정례화되지 못한 협의체는 관련부처간 행정적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전반적인 협력채널 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이에 더하여 다양한 경제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에는 협의체간 기능상 중복에서 나오는 비효율성 문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각 협의체의 독자적인 기능을 재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핵심 협의체를 중심으로 분과위원회 체계로 개편하여 각 전담 분야를 구체화하는 등의 변화가 요구된다.

한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협력에 있어서는 기존 협력채널의 비효율성보다는 현지 소재 상주공관의 부재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가간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협의체, 현지진출 한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현지 소재 상주공관이 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는 KOTRA 무역관이 각각 2001년, 1996년 설립되어 현지 진출기업들에 대한 정보제공과 애로사항 해소, 인적 네트워크 구축・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이 같은 상주 지원기관이 부재하다. 해당 기관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현지 시장 및 정부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정보를 적재적소에 제공하고, 기업진출의 애로사항 해결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 상주기관 설립을 위한 정부간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최근 저유가와 글로벌 경기침체로 중앙아시아 3국에서 수주계약 건에 대한 미착공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4년 착공 예정이었던 현대건설의 GTL 프로젝트는 발주처의 금융조달(프로젝트파이낸싱 구성) 지연으로 현재 공사 시작 단계에서 중단된 상황으로, 미수금이 315억 원을 넘어섰다.[222]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더불어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수주경쟁 또한 한국이

222) SBS CNBC(2016), 「'계륵' 우즈베키스탄 GTL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속앓이'」(5월 17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1328(검색일: 2016. 6. 6).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가간 정상회담을 비롯한 고위급 회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폐쇄적인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한국기업이 투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된 각국의 각종 대형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정상회담 시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수주기반이 조성되었다. 또한 최종계약 체결 또한 양국 정상간 서명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 주도의 협력이 투자진출 성공을 좌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에서의 논의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정례화된 경제협의체를 통해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상주기관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3. 한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1.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특성과 시사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08년 하반기에 발발한 국제 금융위기는 세계경제 전반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 사건의 부정적 여파 때문에 세계경제 환경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거의 예외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 및 둔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교역 규모도 다소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경제권 국가들 사이에서 개방경제에 기초한 자유무역체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조는 2016년 미국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분명하게 반영되었으며, 지구촌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경향이 점차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저성장 추세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 2014년 2/4분기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하락, 세계경제의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세, 2016년 11월 미국 대선 이후 보호주의 무역정책 강화 가능성, 브렉시트에 따른 신고립주의 출현과 유럽연합 체제의 응집력 약화 현상 등 세계경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지하듯이, 현재 다양한 대외경제적 변수들이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저유가 및 저성장 추세의 장기화 요인이 세계경제 환경을 구조적으로 변화시킨 중대 사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신흥국(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지역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가장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현상의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과정 속에서 세계 각국 지도부는 자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지도부도 자국의 고유한 사회・경제적 특성과 핵심 정책목표를 반영한 경제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본고

에서는 중앙아시아 주요국이 추구하는 국가발전전략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목적 아래 중앙아시아 3국의 경제정책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그리고 정책적 우선순위 현안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앞에서 분석한 핵심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이다. 카자흐스탄은 대외개방을 통한 원자재 수출 확대전략에서 최근 질적 성장 병행전략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1997년 카자흐스탄 정부는 '카자흐스탄 2030'으로 명명되는 장기적인 국가발전 전략을 자국 역사상 최초로 수립했으며, 이 전략을 중심으로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진, 국내시장 개방 및 외자유치 확대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카자흐스탄의 정부주도형 개방경제체제는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유치에 정책의 핵심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었는데, 이는 에너지로 대표되는 전략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지도부는 내륙국이라는 지리적 한계성과 소규모 경제체제의 제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2015년 카자흐스탄은 162번째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자격을 확보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정부는 대외개방 경제정책의 기조하에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통합 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카자흐스탄은 2010년 러시아 및 벨라루스와 관세동맹을 체결했으며, 2015년 1월에 창설된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창설 멤버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대외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들이 발생함에 따라, 카자흐스탄의 기존 국가전략 방향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점을 반영하여 2010년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가 프로그램 2010~2014'가 마련되었으며, 2012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국가전략 방향은 에너지 자원 수출과 외자도입에 의존적인 카자흐스탄의 경제구조를 본질적으로 체질개선하는 데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핵심적인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과제들로는 경제 분야의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국가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다각화 추진, 경제부문에 대한 민간의 역할과 참여 확대, 국가자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 인적자원 개발, 민관협력 사업의 확대 등이 있다. 게다가 새로운 경제발전전략 수립의 연장선상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4년 '산업・혁신발전 2015~2019' 프로그램을 채택했을 뿐 아니라, 2014년 인프라 개발 촉진을 위한 '누를리 졸'과 2015년 5대 제도개혁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적 행보는 경제부문에서 민간주도의 신 경제성장 동력 확보,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구조개혁 정책 진행 등을 통해 대외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토대를 구축하려는 전략적 시도라고 하겠다.

둘째, 우즈베키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독립 이후 폐쇄적인 성격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수 기반 확립에 바탕을 둔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해나갔다. 다시 말해서, 세계화 시기 우즈베키스탄은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면서 독자적인 형태의 경제정책을 유지해왔던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의 독특한 국가발전전략은 본질상 외부적 변동성으로부터 내수시장 보호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성 확립에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와 동시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원 독점체제 아래 국내 산업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정책적 강조점을 두었다. 우즈베키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수입규제와 금융부문에 대한 통제강화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상당히 역설적이게도 세계 금융위기의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5개국 중에서 국내산업 육성정책에 가장 큰 비중을 두면서 지속적으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던 국가이다. 이는 전략적으로 내수 중심의 수입대체정책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감독과 관리 덕분에 제조업 부문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시장에서 수출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업 육성에는 여전히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수출품은 여전히 원자재(면화, 금, 가스 등)에 치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조업 부문도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이 아닌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출지향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수입대체정책의 경쟁력 및 효율성 증진에 가장 큰 강조점을 두고 있다. 본 경제발전 정책의 핵심 목표는 수출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토대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사업으로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 축소, 민간의 역할 및 참여 비중 확대, 무역활동과 환율 등의 규제완화 등을 통해 경제적 효율성 증진과 투자환경 개선 등이 주요한 추진과제로 상정되어 있다.

글로벌 경제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에 대비하여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이 마련되었으며, 2015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장기 액션 프로그램'이 전격적으로 제시되었다. 전자는 국내산업의 효율성 증진 및 국제 경쟁력 강화,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역량 제고, 내수 진작을 통한 기업활동 지원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해 두고 있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국내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공공부문의 비중 축소와 민간부문의 역할 확대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장기 경제발전 프로그램 2030'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국가 프로그램에는 원자재 가공과 고부가가치 산업발전 등 우즈베키스탄의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역내 경제통합에 대한 카자흐스탄의 적극적인 행보와는 달리, 우즈베키스탄 지도부는 관세동맹과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통합 메커니즘 참여에는 원칙적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독립 직후부터 공식적으로 중립국 지위를 표방하고 나섰다. 그러한 입장에서 투르크메니스탄은 유라시아 및 포스트소비에트 공간의 그 어떠한 다자협력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독자적인 행보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중립국 지위 추구는 본질상 주권 보호 및 독립성 유지, 자국 경제발전의 핵심 토대인 천연가스 수출에 우호적인 대외환경을 조성하려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1990년대 투르크메니스탄은 카자흐스탄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체제이행에 따른 사회경제적 혼란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수출에 힘입어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 이는 2000년대 신흥공업국들에서 원자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결과였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자원 개발과 천연가스 수출 증대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수입대체산업화를 토대로 한 국내산업 보호에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1999년 '사회 및 경제 체제전환 전략 2000~2010'과 2003년 '경제・정치・문화 발전전략 2020'이 마련되었다. 이 두 가지 국가전략 프로그램에서는 공통적으로 석유 및 가스 부문의 현대화, 비에너지 산업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가 핵심적인 과제로 설정되었다. 하지만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주도형 폐쇄경제체제는 외부적인 충격으로부터 국가자산을 보호할 목적 아래 에너지 자원과 금융부문에 대한 강력한 국가통제는 물론이고, 천연가스 수출에 주력하는 불균형적인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었다. 그런 이유에서 과도한 원자재 수출의존형 경제구조, 경제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통제,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폐쇄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국가전략의 핵심 목표로 삼으면서 2010년 '2011~2030년 사회 및 경제발전 프로그램'을 입안했다. 이 국가전략 방향에 따르면, 에너지 부문 현대화, 비에너지 부문 육성을 통한 산업다각화

등이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되었다.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의 목표 달성을 위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2~2016'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경제 발전 프로그램 2017~2021'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이와 함께, 2016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2017년 사회・경제정책 방향'을 전격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국내기업 육성, 민간부문의 발전 등을 3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본 경제발전전략에 의하면, 향후 광물가공단지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산업 인프라(가스관, 발전소, 고속도로, 항만 등) 구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세계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와 불확실성 증대라는 대외적 차원의 중대한 도전과제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상황 속에서 각국 지도부는 기존 국가발전전략의 내용을 수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외부적 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을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국정운영의 핵심목표를 설정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제반 여건과 성장잠재력 등 실제적인 국가역량에 부합하는 단기 및 중장기 경제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에너지 및 광물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구조를 최대한 개선함과 동시에, 국제 경쟁력을 보유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2.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현안과제와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

상술했듯이,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기존 경제발전정책의 방향전환 및 새로운 국가전략의 추진과정에서 대내외적으로 주요한 현안과제들에 봉착해 있다. 여기

에서 중앙아시아 3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 및 산업 분야 핵심 현안과제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작업은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의 경제구조와 본원적 특징, 그리고 경제성장 잠재력과 제약요인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실질 경제협력 확대방안 마련에도 활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첫째, 카자흐스탄의 경우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카자흐스탄이 직면한 대표적인 현안과제들로는 에너지 산업의 절대적 비중 축소,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완화, 에너지 수출 루트의 다변화, 금융부문의 혁신 및 현대화,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육성 등을 들 수 있겠다. [표 5-1]에서도 세부적으로 정리되어 있듯이,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카자흐스탄 정부는 산업부문의 혁신을 위한 특별 국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이 발전전략은 국내산업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게다가 최근의 대외경제 상황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양적 및 질적 성장 병행전략'을 추진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더불어, 안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

표 5-1. '카자흐스탄 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국가 프로그램 2010~2014'의 우선 육성산업 부문

전통산업	• 석유 및 가스 산업, 석유화학 사업 • 금속산업 및 광업 • 원자력 산업
내수산업	• 기계 공업 • 제약 산업 • 건설 및 건설자재 산업
수출 잠재력 보유산업	• 농축산업 및 농산물 가공산업 • 경공업 • 관광산업
미래산업	• 정보통신 산업 • 생명공학 • 우주 산업 • 대체에너지 산업

자료: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외교부 용역("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과와 비전") 자료, p. 140.

으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제시한 '국가전략 2050'과 '산업・혁신발전 국가 프로그램 2015~2019'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산업 혁신과 경제현대화(제조업 분야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농업의 현대화, 관광 클러스터 조성, 혁신 산업부문의 발전),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중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민간부문의 비중 강화 및 활성화), 투자환경 개선(통관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교통 및 물류체계의 현대화, 산업・에너지・사회서비스 인프라 개선), 인적자원 개발(교육제도 개선,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훈련 강화, 산업다각화 추진에 필요한 전문 기술자 및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이 상기 국가전략 프로그램의 핵심적인 목표 달성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중요한 현안과제들이다.

둘째, 우즈베키스탄 사례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원자재 수출 중심의 단순한 경제구조의 개혁과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본질적 체질 개선이라는 중점 현안과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표 5-2]에 잘 분류되어 있듯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 및 산업 부문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정책과제와 세부 내용

표 5-2. 우즈베키스탄 산업 및 경제 부문의 우선순위 과제와 주요 내용

우선순위 과제	주요 내용
인프라	• 에너지 인프라 구축 • 교통 및 운송 인프라 구축 • 관개사업 부문 인프라 효율성 증대
내수산업 경쟁력	• 고부가가치 농업시장 발굴 • 석유화학 및 섬유를 비롯한 특정 산업의 경쟁력 향상
경제구조	• 경제구조의 다변화 • 핵심 상품 수출에 대한 의존도 축소
사회복지	• 교육 발전 • 보건 의료 서비스 개선 • 기타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품질과 성과 고양
환경 및 천연자원	• 생태환경 보호 • 천연자원의 효율적 활용 • 수자원 관리 • 신재생에너지 개발

자료: 2016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외교부 용역("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과와 비전") 자료, p. 140.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경기침체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국가이다. 다시 말해서, 수출금액과 해외 송금액이 대폭 감소됨으로써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성장률이 다소 둔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입대체정책의 추진과 함께, 수출 지향 산업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기본적으로 2015년 우즈베키스탄 '경제정책의 우선방향'과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단기・장기 액션 프로그램'에 핵심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본 전략의 중점 현안과제로는 경제현대화(산업생산의 다각화 및 현지화, 농업의 현대화), 민간부문의 역량강화(정부의 개입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투자환경 개선(불합리한 규제 철폐와 행정절차 간소화), 인프라 구축(교통・산업・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인적자원 개발(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 기술인력 양성) 등이 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풍부한 자국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조업 육성을 핵심목표로 삼고 자국 산업의 효율성 증진과 국제 경쟁력 제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정책의 우선적인 강조점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이 당면한 경제적 현안과제는 천연가스 수출 중심의 단순한 경제구조 개선과 러시아 가스 수송로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도 축소였다. [표 5-3]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을 핵심목표로 하는 세부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이자, 국가발전 가이드라인이나 마찬가지다. 본 경제발전전략을 통해 볼 때, 투르크메니스탄 지도부는 에너지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에너지 수송 루트의 다변화에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2010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전략 2011~2030'과 2015년 '국내 산업발전 프로그램'에 주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 국가 프로그램에 따르면, 천연가스 플랜트 산업의 발전, 천연가스 수송 루트의 다각화(기존의 러시아 루트 이외에도 중국, 인도, 유럽연

표 5-3. 투르크메니스탄의 '장기 사회·경제 발전전략 2011~2030'과 '2015년 국내 산업발전 프로그램'의 우선순위 과제 및 주요 내용

우선순위 과제	주요 내용
인프라	• 에너지 산업 인프라 개선 • 전력 인프라 개선 • 교통 및 통신 인프라 구축
내수산업 경쟁력	• 농업(농산품 가공) 및 농촌 발전 • 관광산업 육성 • 화학공업 발전
산업구조 재편	• 에너지 자원 중심의 산업구조 조정 • 산업다각화 정책 추진
수입대체산업	• 공산품 수입 의존도 감소 • 전자 설비 산업의 생산기반 마련 • 외국기업들과 합작회사 설립 추진

자료: http://tm.mofcom.gov.cn/article/ztdy/201606/20160601330428.shtml(검색일: 2016. 7. 23) 제공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합, 이란 등으로의 새로운 천연가스 수출 통로 개척), 부족한 수자원 문제 해결과 합리적 활용방안 마련, 경제현대화 및 산업구조의 다각화 정책 추진(현지화 및 수출 촉진 산업 육성),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증진, 투자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개발(산업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등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중점 현안과제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공통적 현안과제는 바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중심의 경제구조 탈피, 즉 경제현대화와 산업다각화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대외경제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며, 산업혁신을 통한 제조업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데 주된 특징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는 자신들의 경제발전전략 추진과정에서 선진 산업국가들과의 긴밀한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한 선진기술 도입과 투자자본 확보는 자국의 산업혁신과 경제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한국과도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상호간 전략적 협력을 토대로 국가 경쟁력 강화,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 제조업 육성, 신 경제성장 동력산업 발굴, 경제특구 활성화 등과 같은 구체적인 형태의 경제적 성과를 확보하는 데 핵심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특히 중앙아시아 3국은 자신들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과의 유망 경제협력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국가발전 및 경제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우선적인 관심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들 정부는 자국의 경제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탁월한 국내산업 육성 노하우 전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이상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해 본다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한국에 대한 협력 수요를 충분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중앙아시아 3국의 다양한 협력 수요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큰 세 가지 부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녹색산업 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경제적 및 지리환경적 여건상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환경보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편이다. 따라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친환경 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등에 경제협력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 중앙아시아에서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우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에 속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 모두 천연자원의 체계적 개발과 효율적 사용에 강조점을 두면서 녹색산업(특히 신재생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수자원 관리방안 등)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는 무계획적인 자원개발과 에너지 남용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이기 때문이다.

둘째, 농업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미래의 국가적 중대사안인 식량안보 문제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업다각화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현대화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핵심 현안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농업 신기술 도입, 농업 생산량 증진, 친환경 농법 전수 등과 관련한 공동연구 진행과 농업 발전경험 공유에 경제협력 수요가 있다고 하겠다. 최근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가 농축산 가공부문에서 경제협력 프로젝트 진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셋째, 인적자원 개발부문에서의 협력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방안 중 하나로 미래 사회에 적합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 수립,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인재개발과 산업다각화 정책의 성공여부는 전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전문 산업인력의 양성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한국과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교육혁신과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경험 전수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직업 전문학교의 설립과 체계적인 교육운영 방안 마련 등 인적자원 개발부문에 충분한 협력 수요가 있다.

3. 한 ·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협력 확대방안

소연방의 해체로 인해 1992년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었다. 수교 이후 현재까지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방면에서 교류와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왔다.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협력관계가 많은 부분에서 발전할 수 있었다. 1997년에 발족한 한 · 중앙아 협력포럼이 한 · 중앙아 협력의 가장 대표적 사례이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보자면,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증진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사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실질적인 성과와 세부 과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유라시아 시대를 맞이하여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전략적 가치와

경제성장 잠재력, 국가발전전략의 방향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2017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 수교 25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향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 증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차원의 한・중앙아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앙아시아 개별 국가들의 본원적인 사회・경제적 특성(경제 및 산업의 전반적 현황, 경제 구조적 특징, 인구 및 지리 요인,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징 등)과 실제적 경제협력 수요를 파악함과 동시에, 그에 기초한 새로운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앙아시아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수립과 추진과정에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한국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해 새로운 국가전략 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아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거점 공간 중 하나이다. 이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중앙아시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에 그렇다. 중앙아시아는 아시아와 유럽의 연결지대이자,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교차 지역이며, 한국의 유라시아 전략 실현을 위한 전초 기지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라시아 대륙의 동부와 중앙부에 각각 위치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 간의 전략적 협력은 교통・물류, 에너지, 통상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에 필요한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세계경제 환경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유라시아 통상 네트워크 확대 차원에서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한다.

앞으로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다자 또는 양자 차원에서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중앙아시아 주요국별로 특화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을 고려할 때,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일조할 수 있는 분야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산업다각화 정책과 관련하여 6대 제조업 우선 육성부문(비철금속, 화학, 석유화학, 기계, 건축자재, 식료품), 농업 현대화 분야(친환경 농업,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 4대 혁신산업 발전 부문(모바일 멀티미디어 기술, 항공우주・나노 기술, 로보틱스・유전공학, 미래에너지), 관광 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효율 부문 등이 가장 유망한 경제협력 분야라고 하겠다. 인프라 개발 측면에서는 교통 및 물류 인프라(도로, 철도, 항만, 항공 인프라 구축 및 현대화, 교통 및 물류 거점 조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건축자재, 산업단지, 관광, 전력 등) 부문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 밖에도, 의약, 바이오,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 중심의 기술협력 내지는 합작공단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국토개발 노하우 공유(상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 기술 전수, 국토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풍력, 수력, 태양력) 등에서 상호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증진방안이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내수 및 수출 산업화 병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주요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산업다각화와 현지화, 인프라 개발부문에서 실질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10대 우선 육성 산업부문(전력, 석유・가스 화학, 화학, 기계, 섬유・가죽・제화, 전자, 건축자재, 제약, 식료품, 광업), 7대 현지화 유망 산업부문(농산품, 광물, 화학 및 관련 산업제품, 섬유재료, 건축자재, 금속제품, 기계 및 장비), 농업부문(농기계 생산 및 농산물 가공설비 및 통합유통망 구축 등)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편 후자에 대해서는 교통 인프라(자동차 도로 및 다리 건설, 도로 건설장비 현대화 등), 산업 및 에너지 인프라(도로・철도 인프라, 물류 및 정보통신 센터 구축, 에너지 효율화 설비 현대화 등) 개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

도 보건 의료 산업(제약, 의료 기구, 병원 건립 등),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노동력을 활용한 공동 산업단지(건설자재, IT 관련 부품, 식품 가공기계, 농기계 등) 건설, 친환경 녹색기술(태양광 발전, 신재생에너지, 신소재 개발 등) 개발, 나보이 경제특구 전략적 활용방안, 중앙아시아의 고대 유적지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등에 양자 협력을 위한 중요한 접점이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협력 발전방안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에너지 산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함과 동시에, 비에너지 산업부문에 대한 전략적 육성에도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의 균형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내용과 특성을 감안할 때, 산업다각화 및 현지화, 인프라 개발과 연계된 경제협력 방안을 준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산업다각화 부문에서는 산업현대화(석유・가스 화학, 화학, 경공업, 식품가공, 건축자재, 기계, 섬유, 농산품 분야 등)와 현지화(건축자재, 화학, 가전, 식료품 분야 등), 수출촉진 산업(화학, 농업, 제약, 경공업, 식료품 분야 등) 부문으로 구분하여 접근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인프라 개발과 관련해서는 교통과 연계한 관광(북-남 및 동-서 교통 회랑 개발, 복합 교통・물류 허브 및 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인프라 개발, 정보통신 인프라와 농업 관련(유제품, 과일, 채소, 생선 가공 등을 위한 생산설비 공장 건설 등) 인프라 구축 부문에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 의해 비에너지 부문 우선 육성산업으로 지정된 관광분야에서 경제협력 증진방안을 찾는 것도 적절한 선택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방안 마련에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은 공통적으로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인프라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이뿐 아니라, 중앙아시아 3국 모두 특정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탈피, 에너지 및 광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 축소, 신 경제성

장 동력산업 발굴 및 육성 등에서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크다.

한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우 에너지 및 광물자원 보유국이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 경제 여건(사회・경제적 상황, 경제 구조와 발전 수준, 경제성장 잠재력, 그리고 산업 전문인력의 수와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다소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미래 국가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공통의 현안과제가 한 가지 남아 있다. 이는 경제현대화 및 산업다각화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문제이다. 그럼 점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비에너지 산업과 미래 경제성장 동력산업 발전과 연계하여 인적자원 개발협력 부문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국정부는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내용, 그리고 핵심 특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이들의 우선순위 협력 수요를 명확히 고려해야 한다. 만일 이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 협력 전략이 마련될 수 있다면, 향후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증진 가능성은 더더욱 커질 수 있다. 다만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이 한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사업 추진동력을 상실할 개연성이 존재하며, 기대한 만큼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이유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 있는 참여를 유도해낼 수 있는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 마련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적 특성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중앙아시아 주요국 인사들과 지속적인 교류 확대 및 관계 강화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3국의 경우 정상외교를 통한 접근과 관계증진이 가장 효과적인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이 바로 '한・중앙아 협력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1997년 창설되어 현재까지 총 열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다. '한・중앙아 협력포럼'은 그동안 줄곧 차관급 수준에서 진행되었는데, 이를 정상급 회의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 만일 이 계획이 구체화된다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은 관계협력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면서 '한・중앙아 협력의 3.0시대'를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상급 수준에서 다자 협력포럼 추진이 당장에 힘들다면, 과도기적으로 양자관계 틀 속에서 정상회담 정례화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둘째,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의 주도적인 행동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조직이 선도적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입안하여 경제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경제협력 작업을 담당할 정부주도의 '한・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를 상설 운영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이 조직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1.5트랙으로 구성되어야 할 뿐 아니라, 정부 고위관계자 및 경제협력의 실제 당사자인 한・중앙아 민간기업 대표들의 참석을 전제로 해야 한다. 한・중앙아 기업인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실질 경제협력 방안 논의 등이 한・중앙아 경제협력 증진의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경제협력위원회는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민간기업들 간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이끌어내는 일종의 '경협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 방안 추진과정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각국 정부들이 필요한 제도 및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면, 본 경제협력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자면, 국내 중소기업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위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거나 한・중앙아 주요국의 중소기업 협력방안을 수립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우처럼, 투르크메니스탄에 KOTRA 지

부 같은 상주기관을 설치하여 현지 네트워크 및 경제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핵심 현안과제는 바로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 정책 추진이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한국과 중앙아시아 주요국 간 새로운 형태의 산업협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때 재정적 대안 마련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민간기업들에 투자 및 협력 리스크를 줄여주는 일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한・중앙아 주요국 간 산업협력 증진을 위한 금융펀드 조성은 사실상 필수적인 사안이나 다름없다. 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각국의 국책은행이 공동출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으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ODA 자금 활용 여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넷째,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미래 발전은 산업다각화 및 경제현대화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은 인적교류의 핵심적인 실행방안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한・중앙아 미래세대 육성위원회'를 한・중앙아 협력포럼 산하에 신설하여 전문기술 및 산업인력 양성, 학술 및 기술 교류 등 체계적인 인적개발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단기적인 차원에서 시급한 협력사안 중 하나는 중앙아시아 3국의 산업다각화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문제이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중앙아시아 주요국에 직업 전문학교 설립 및 기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한국 내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유학생 교육 및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 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국가발전전략 혹은 경제성장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경제협력 분야를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바람직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문자료]

강명구. 2007.「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 발전 전략: 허쉬만의 해석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20, No. 4.

관계부처 합동. 2012.「우즈베키스탄 국가협력 전략 2012~2015」.

_____. 2016.『중점협력국 대상 국가협력전략(9개국)』.

관세청 국제협력팀. 2013.「제8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및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식 결과보고」.

김성국. 2014.「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수출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국무역상무학회지』, 제63권.

김영진. 2009a.「우즈베키스탄의 역설: 체제전환전략, 정책모델, 그리고 경제실적」. 중앙아시아 국내학술대회 자료집.

_____. 2009b.「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초기조건, 전략, 경제실적」. 『슬라브학보』, 제25권 1호.

김영진 역. 2012.「카자흐스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경제발전』. 한울아카데미.

김종섭. 2003.「기술혁신과 경제성장: 중남미의 사례」. *Revista Iberoamericana*, Vol. 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수행 외교부 용역. 2016.『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과와 비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03.「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로드맵 2004-2005 년판」.

_____. 2014.『해외진출 한국기업 디렉토리』.

박상남. 2012.「우즈베키스탄의 국가 성격」.『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한울 아카데미.

박정호. 2009.「21세기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국가전략」.『슬라브연구』, 제25권 2호.

박정호, 성원용, 강부균. 2016.「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은경제연구소. 2009.「카자흐스탄 에너지자원 개발 현황 및 동국 자원에 대한 우리나라의 성공적 진출 전략」.
신범식. 2015.「중국의 부상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대응」.『슬라브학보』, 제30권 2호.
「에이티젠, 카자흐스탄에 1429억원 규모 진단키트 수출계약 체결」. 2016.『매일경제』. (10월 14일)
외교부. 2014.『카자흐스탄 개황』.
_____. 2016.『투르크메니스탄 진출 가이드북』.
윤성학. 2010.「한국의 대카자흐스탄 자원개발 참여방안」. 제1차 한국-카자흐스탄 포럼 발표자료.
윤지현. 2016.「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대외적 변수와 해결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의료관광센터. 2016.「2016 카자흐스탄 국제 관광박람회(KITF)」 참가 결과보고. (4월 26일)
이시영, 조영관. 2010.「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발전전략과 한국의 진출 방안」. 지역경제포커스, 10-35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영. 2007.「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 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중소연구』, 제112호.
이지은. 2012.「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건설」.『유라시아의 체제전환과 국가건설』. 한울 아카데미.
_____. 2013.「한국과 일본의 대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정책 비교연구」.
조영관, 주진홍, 강명구, 김영식, 오영일, 이상준. 2011.『중앙아시아 외국인투자의 특징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2.『중앙아시아 에너지 수출국 국부펀드의 특징과 시사점: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_____. 2015.『투르크메니스탄 인프라 개발과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방안』.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_____. 2016a.「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정책과 협력방안」. 한양대학교 정책토론회.
_____. 2016b.『우즈베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의료해외진출 현황분석』.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4.「글로벌 산업정책의 새로운 이슈와 트렌드」. 산업기술 정책 브리프.
한국수출입은행. 2014.「우즈베키스탄 자동차산업 동향 및 시사점」. 타슈켄트 사무소.
_____. 2015.「카자흐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_____. 2016.『카자흐스탄의 투자환경위험 평가보고서』.
한홍열, 윤성욱, 변현섭, 박지원. 2015.「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황영삼. 2013.「투르크메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터키 기업 – 실태와 전망」. Emerics 전문가칼럼. (3월 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영문자료]

ADB. 2011. "Country Assistance Program Evaluation." *Evaluation Study.*
_____. 2013. "Report to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Policies for Industrial and Service Diversification in Asia in the 21st Century."
_____. 2014.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Economic Centers." *ADB Institute*.
Bartel A.P. and Harrison A.E. 1999. "Ownership versus Environment: Why are public sector firms inefficient?" NBER.
Blank, S. 2012. "Whither the New Great Game in Central A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3.
BP. 2016.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16.
Dajin, Li. 1998. "Investment Rate and Economic Growth in the Long Run: Empirical Tests of Endogenous Growth Models." Carleton University.
Dan Su and Yang Yao. 2016. "Manufacturing as the key Engine of Economic Growth for Middle-Income Economies." *ADBI Working Paper Series*.
EBRD. 2015. *Transition Report 2015-2016*.
EIU. 2016a. *Turkmenistan Country Report*. (September 6)
_____. 2016b. *Uzbekistan Country Report*. (September 12)
Ejaz Ghani. 2011. "The Service Revolution." ILO conference.
European Parliament. 2013a. "Uzbek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Policy Briefing*.

_____. 2013b. "Kazakh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Policy Briefing*. (Oct. 2013)

Global innovation index. 2016. *Global innovation index Report 2016*.

Inside the Cocoon. 2015. "Remittances to Central Asia Fall Sharply, as Expected." (April 21)

IMF. 2013. "Republic of Uzbekistan 2012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13/278.

Lazard Asset management. 2015. "Kazakhstan." *Lazard Emerging Markets Debt*.

Merijn Hartog and Lawrence Kettle. 2012. "The Netherlands and Central Asia." *European National Policies Series,* N°6.

Naoyuki Yoshino and Umid Abidhadjaev. 2015. "The Impact Evaluation of Investment in Infrastructure: The Case of the Railway Connection in Uzbekistan." *ADBI Working Paper Series,* No. 548. (Oct.)

Pomfret, R. 2009. "Central Asia after Two Decades of Independence." *School of Economics Working Paper of the University of Adelaide,* No. 0091.

Saparbekova, A., J. Kocourkova and T. Kucera. 2015. "Sweeping Ethno-Demographic Changes in Kazakhstan during the 20th Century: A Dramatic Story of Mass Migration Waves, Part II: International Migration in Kazakhstan since 1991." *AUC Geographica,* 50, No. 1.

Singla, S. K and Goel, H. 2014. "Development Experience of Central Asian Countries since their Independence." *Asian Journal of Business and Economics,* Vol. 4, No. 2.

Tolesh, F. 2012. *The Population History of Kazakhstan*.

UNDP. 2015. *Human Development Reports 2015*.

USGS. 2015. *2013 Minerals Yearbook, Turkmenistan(Advanced release)*.

_____. 2016a. *2013 Minerals Yearbook, Kazakhstan(Advanced release)*.

_____. 2016b. *2013 Minerals Yearbook, Uzbekistan(Advanced release)*.

World Bank. 2014. "Uzbekistan Modernizing Tertiary Education." Report No. 88606-UZ.

_____. 2015a. “World Bank Group? Uzbekistan Partnership: Country Program Snapshot.”
_____. 2015b. “World Bank Group Engagement in Resource-Rich Developing Countries: The Cases of the Plurinational State of Bolivia, Kazakhstan, Mongolia, and Zambia.” *Clustered Country Program Evaluation Synthesis Report*.
_____. 2016. “Migration and remittances? Recent Development and Outlook.” *Migration and Development Brief,* 26.
World Economic Forum. 2015.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5-2016.”

[노문 자료]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и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2010.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1-2030 гг.

[온라인 자료]

「산업부, 제8차 한-카자흐스탄 자원협력위 개최」. 2013.『뉴스와이어』. (9월 3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712168(검색일: 2016. 10. 27).
SBS CNBC. 2016.「‘계륵’ 우즈베키스탄 GTL에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속앓이’」. (5월 17일).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01328(검색일: 2016. 6. 6).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홈페이지. http://www.ksp.go.kr/(검색일: 2016. 7.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2013.「[FTA・통상정책] 카자흐스탄 관세동맹의 현주소」.『KOTRA 해외시장뉴스』. (10월 18일).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24993&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2&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6&row=20(검색일: 2016. 10. 6).
_____. 2015a.「2016 우즈베키스탄 진출전략」. http://www.globalwindow.

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UPFileFolder/2015/12/24/20151224115647230_013.pdf(검색일: 2016. 8. 10).

_____. 2015b.「카자흐스탄 비즈니스 창(窓)」.『KOTRA 알마티 무역관 소식지』. http://news.kotra.or.kr/common/extra/kotranews/globalBbs/306/fileDownLoad/37352.do(검색일: 2016. 10. 5).

_____. 2015c.「카자흐스탄」.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kotra%EA%B5%AD%EA%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pdf(검색일: 2016. 9. 5).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공동성명」. 2009.『외교부』. (5월 13일). http://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763&seqno=533&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10. 20).

「대한민국의 든든한 조력자 투르크메니스탄」. 2015.『광주일보』. http://www.kwangju.co.kr/read.php3?aid=1448809200564775131(검색일: 2016. 8. 10).

대한석유협회. 2005.「카자흐스탄 해상 석유광구 개발참여 본격화」.『대한석유협회 정책자료』. (5월 11일). http://www.petroleum.or.kr/ko/sub05/02.php?ca_id=&mode=read&id=136(검색일: 2016. 7. 3).

「두산그룹, 카자흐발전소 수주로 중앙亞 진출 '교두보'」. 2015.『매일경제』. (8월 27일). http://news.mk.co.kr/newsRead.php?no=823363&year=2015(검색일: 2016. 10. 30).

「라틴아메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 가능성과 한계」. http://snuilas.snu.ac.kr/iberopdf/snuibero220105.pdf(검색일: 2016. 10. 10).

매경미디어. 2015.「[건설]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 공사 일시중단 관련」.『매일경제』. (9월 22일).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t_uid=6&c_uid=28227&sCode=12(검색일: 2016. 10. 30).

산업부.「6-8억 배럴 상당 카자흐스탄 유전개발 참여 합의」. http://motie.go.kr/common/download.do?fid=bbs&bbs_cd_n=81&bbs_seq_n=6728&file_seq_n=1(검색일: 2016. 10. 27).

산업통상자원부. 2016.「산업부, 우즈베키스탄과 신실크로드 시장진출 협력 강화」. 보도자료. (9월 28일)

「삼성물산, '카자흐스탄 발하쉬 프로젝트' 결국 좌초」. 2016. 『서울경제』. (9월 1일). http://www.sedaily.com/NewsView/1L18ZQVU4X(검색일: 2016. 10. 30).

언론보도자료.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통계. http://www.kopia.or.kr/(검색일: 2016. 6. 28).

연합뉴스. 2014.「민관 경제협력위 구성…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6/0200000000AKR20140626081400003.HTML?input=1215m(검색일: 2016. 7. 7).

_____. 2016.「우즈벡 "한국, 20억달러 투자 프로젝트들에 관심 가져달라"」. (4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6/0200000000AKR20140626081400003.HTML?input=1215m(검색일: 2016. 10. 4).

_____. 2016.「현대차, 사상 최대 해외 버스공급 계약체결…투르크메니스탄에 버스 500대 공급」. (6월 7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07/0200000000AKR20160607034900003.HTML(검색일: 2016. 7. 26).

외교부.「안정적인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에너지 외교 강화」. http://www.mofat.go.kr/webmodule/common/download.jsp?boardid=200&tablename=TYPE_DATABOARD&seqno=052fef02bff806b019fac021&fileseq=05b06bfb1fd504dfa303b07b(검색일: 2016. 7. 4).

_____. 2008a.「[중앙아] 이용준 차관보, 중앙아 3개국 방문」.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_tab.jsp?typeID=24&boardid=11763&seqno=729&c=&t=&pagenum=1&tableName=TYPE_KOR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3).

_____. 2008b.「차관보,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 (9월 11일). http://news.mofat.go.kr/enewspaper/articleview.php?master=&aid=1371&ssid=28&mvid=582(검색일: 2016. 7. 3).

_____. 2009.「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공화국간 공동성명」. (5월 19일). http://jpn-sappor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9795&seqno=322160&tableName=TYPE_DATABOARD(검색일: 2016. 8. 20).

_____. 2010.「제5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및 제8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3월 16일). http://overseas.mofa.go.kr/webmodule

/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8&seqno=793637&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_____. 2011.「제6차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개최 결과」. (7월 20일). http://usa-sanfrancisco.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34696&c=&t=&pagenum=1&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_____. 2014.「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 양국간 실질적 경제협력 분야 확대 방안 논의」. (5월 29일).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6&boardid=235&seqno=350506&c=CONTENT&t=%ED%95%B5&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검색일: 2016. 7. 27).

_____.「카자흐스탄 금융 분야 진출 방안」.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41&seqno=666800&c=TITLE&t=&pagenum=25&tableName=TYPE_LEGATION&pc=&dc=null&wc=null&lu=&vu=&iu=&du=(검색일: 2016. 11. 2).

유라시아 컨퍼런스 기조연설문. http://news.joins.com/article/12892074(검색일: 2016. 8. 20).

이머릭스.「투르크메니스탄 WTO 가입 전망」.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5481&systemcode=04(검색일: 2016. 10. 5).

_____.「투르크메니스탄 국제 교역 현황 및 무역체제 개선 방안」. http://www.emerics.org/mobile/interview.do?action=detail&brdctsno=197666&systemcode=04&regioncode1=01&regioncode2=13&regioncode3=00(검색일: 2016. 10. 5).

익산세관비즈니스센터. 2012.「제7차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11월 13일). 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jsessionid=npqWJG4cnWwTT2Jv3ry2DB4XXTjd25WzVrd7q2hGC9TVxGTpvxg2!1186443561?bbsId=BBSMSTR_1018&nttId=2223&layoutMenuNo=16647&siteId=iksan&searchCtgry=&searchCnd=&searchWrd=&bcode=&pcode=&recordCountPerPage=10(검색

일: 2016. 8. 24).
「"옛소련 5개국과 FTA 조기개시"…한·카자흐, 정상선언 채택(종합)」. 2016.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11&newsid=03552246612844408&DCD=A00601&OutLnkChk=Y(검색일: 2016. 11. 14).
「日 아베 수상,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ODA "1190억원" 제공 합의」. 2015. 『교도통신사』.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10/125213.html(검색일: 2016. 6. 7).
정상외교 경제활용포털. http://president.globalwindow.org/KotraMain.do(검색일: 2016. 10. 5).
「제7차 한-카자흐스탄 정책협의회 개최」. 2009. 『뉴스와이어』. (7월 21일).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418434&ected=(검색일: 2016. 7. 27).
주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2016. 「경제소식지118호」. (7. 20). http://uzb.mofa.go.kr/korean/eu/uzb/policy/market/index.jsp(검색일: 2016. 8. 11).
주카자흐스탄대사관. 2006. 「카자흐스탄 개황」. http://kaz.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6&seqno=590215&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 2016. 9. 5).
지식경제부. 2010. 「발하쉬 발전소 정부간 협정(IGA) 체결 합의 등 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탄력 받는다」. 보도자료. (10월 13일). http://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FcdWv6blL54J:motie.go.kr/common/download.do%3Ffid%3Dbbs%26bbs_cd_n%3D81%26bbs_seq_n%3D64304%26file_seq_n%3D1+&cd=1&hl=ko&ct=clnk&gl=kr(검색일: 2016. 7. 3).
청와대. 2014a. 「박근혜 대통령, 카자흐스탄 국빈방문」. 보도자료. http://kaz.mofat.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3338&seqno=1081506&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검색일: 2016. 9. 5).
_____. 2014b. 「한-카자흐스탄 정상회담 개최」. 보도자료. (6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year%5D=&srh

%5Bmonth%5D=&srh%5Bsearch_type%5D=1&srh%5Bsearch_value%5D=%C4%AB%C0%DA%C8%E5%BD%BA%C5%BA&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0&srh%5Bdetail_no%5D=5(검색일: 2016. 9. 1).

카자흐스탄중앙은행(NBK). 투자통계. http://www.nationalbank.kz(검색일: 2016. 11. 2).

「카자흐스탄 건축시장 진출환경」. 2014. 『Kotra 해외시장 뉴스』. (8월 5일).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34086&column=&search=&searchAreaCd=&searchNationCd=101092&searchTradeCd=&searchStartDate=&searchEndDate=&searchCategoryIdxs=&searchIndustryCateIdx=&page=1&row=100(검색일: 2016. 10. 1).

한국국제협력단(KOICA). ODA 통계시스템. http://stat.koica.go.kr/(검색일: 2016. 6. 13, 7. 18).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stat.kita.net/(검색일: 2016. 6. 22~10. 21).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 홈페이지. http://www.edcfkorea.go.kr(검색일: 2016. 6. 23).

_____.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검색일: 2016. 6. 10~10. 30).

한국플랜트산업협회. http://www.kopia.or.kr(검색일: 2016. 6. 28).

「한-카자흐스탄 관세청장 '맞손'」. 2015. 『중앙일보』. (9월 8일). http://news.joins.com/article/18619557(검색일: 2016. 8. 24).

「한·카자흐 협력사업 잇단 중단…"양국 우호 해칠라" 우려」. 2015. 『연합뉴스』. (9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22/0200000000AKR20150922211700095.HTML(검색일: 2016. 10. 30).

「한-카자흐스탄 공동성명문」. 2014. 『청와대』. (6월 19일). http://www1.president.go.kr/news/newsList.php?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6223(검색일: 2016. 10. 20).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통계. http://www.icak.or.kr(검색일: 2016. 6. 28).

「현대ENG, 투르크메니스탄 플랜트시장 석권…비결은?」. 2015. 『뉴스1』. (7월 22일). http://news1.kr/articles/?2328875(검색일: 2016. 7. 26).

「현대엔지니어링, 카자흐 윤활기유설비 수주」. 2012. 『연합뉴스』. (8월 8일).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8/08/0304000000AKR20120808076000003.HTML(검색일: 2016. 10. 30).

「현대엔지니어링 9억弗 카자흐공사 수주」. 2012.『서울신문』. (8월 9일).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09022014(검색일: 2016. 10. 30).

『현대경제신문』. 2012.「KDB 산은 "2012년 아시아 파이어니어 뱅크로 새로운 도약"」. http://www.fi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8 (검색일: 2016. 10. 20).

현대엔지니어링. 2015.「현대엔지니어링, 투르크멘바시 정유공장 준공」. 현대엔지니어링 보도자료(10월 13일). https://www.hec.co.kr/prcenter/press/reportView.asp?code=7399&page=1(검색일: 2016. 7. 25).

「GS 건설, 1조 5천억 카자흐스탄 공사계약 해지(종합)」. 2015.『연합뉴스』. (5월 19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5/19/02000000000AKR20150519162251008.HTML(검색일: 2016. 10. 30).

ADB. "Sector Assessment (Summary): Transport." https://www.adb.org/sites/default/files/linked-documents/43441-01-tkm-ssa.pdf(검색일: 2016. 10. 21).

_____. "Uzbekistan Towards 2030: Defining the Pattern of Growth and Policies for Accelerated Transformation." http://www.adb-asianthinktanks.org/sites/all/libraries/2015-researchpapers/UZB_CER_Kamila%20Mukhamedkhanova_Uzbekistan%20Towards%202030.pdf(검색일: 2016. 10. 3).

Akorda. 1997.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А. 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Октябрь." http://www.akorda.kz/ru/addresses/addresses_of_president/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a-nazarbaeva-narodu-kazahstana-oktyabr-1997-g(검색일: 2016. 9. 15).

CACI(2016. 3. 30). http://www.cacianalyst.org/publications/analytical-articles/item/13347-eus-southern-gas-corridor-still-lacks-strategic-approach.html(검색일: 2016. 8. 20).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2013. "Employment in Uzbekistan: Challenges and Prospects." *Development Focus Issue,* #10. (June). http://www.cer.uz/upload/iblock/b4a/z10_qllxarhmiiydppewmgeng.pdf(검색일: 2016. 10. 7).

Chronicles of Turkmenistan. 2015. "The results of census in Turkmenistan." http://www.chrono-tm.org/en/2015/02/the-results-of-census-in

-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1).
CIA Fact Book. "Turkmenistan." http://www.cia.gov(검색일: 2016. 8. 12).
Cotton Incorporated. 2016. "Monthly Economic Letter." http://www.cottoninc.com/(검색일: 2016. 8. 11).
Doing Business. http://www.doingbusiness.org/Rankings(검색일: 2016. 9. 30).
"Dutch Envoy Sees Opportunities for More Trade, Investment." 2014. *The Astana Times*. (3월 11일). http://astanatimes.com/2014/03/dutch-envoy-sees-opportunities- trade-investment/(검색일: 2016. 10. 30).
EBRD. 2013. "Uzbek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Policy Briefing*. eDownLoad/37352.do(검색일: 2016. 10. 5).
EBRD Transition Indicators Turkmenistan. http://2014.tr-ebrd.com/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2).
EBRD Transition Indicators data. http://www.ebrd.com/what-we-do/economic-research-and-data/data/forecasts-macro-data-transition-indicators.html(검색일: 2016. 9. 23).
_____. 2014. "Strategy For Turkmenistan." *Document of the EBRD.* (May 7). http://www.ebrd.com/downloads/country/strategy/turkmenistan.pdf(검색일: 2016. 10. 21).
Esanov, A. 2012. "Economic Diversification: The Case for Kazakhstan." *Revenue Watch*. http://www.resourcegovernance.org/sites/default/files/RWI_Econ_Diversification_Kazakhstan.pdf(검색일: 2016. 10. 19).
European Commission. 2016. "College orientation debate on the treatment of China in anti-dumping investigations." (January 13).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MEMO-16-61_en.htm(검색일: 2016. 9. 23).
European Union Commission. "Trade statistics." http://ec.europa.eu/trade/policy/countries-and-regions/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Freedom House. 2015. "Freedom on Net 2015 Uzbekistan."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net/2015/Uzbekistan(검색일: 2016. 10. 23).
Global Insight(검색일: 2016. 6. 28).
Heritage Foundation. 2016. "Index of Economic Freedom." http://www.

heritage.org/index/(검색일: 2016. 10. 5).
IMF. 2016. WEO. http://www.imf.org(검색일: 2016. 7. 20).
Jack Farchy and James Kynge. 2016. "Map: Connecting central Asia." (May 9). http://www.ft.com(검색일: 2016. 10. 20).
Kaznex Invest. 2014. "Туркменистан - страновой обзор." http://www.kaznexinvest.kz(검색일: 2016. 8. 10).
Logistics Performance Index. http://lpi.worldbank.org/international/global(검색일: 2016. 7. 31).
NEBIT-GAZ. 2016. "Investment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 is the evidence of trust to the reliable, stable and responsible partner." (August 16). http://www.oilgas.gov.tm/en/blog/375/investment-cooperation-with-turkmenistan—is-the-evidence-of-trust-to-the-reliable-stable-and-responsible-partner(검색일: 2016. 10. 6).
OECD DAC. "Aid at a glance." https://public.tableau.com/views/OECDDACAidataglancebyrecipient_new/Recipients?:embed=y&:display_count=yes&:showTabs=y&:toolbar=no?&:showVizHome=no(검색일: 2016. 10. 5).
OECD Stat. http://stats.oecd.org/(검색일: 2016. 10. 6).
OilPrice.com. 2014. "Free Energy Ride Over in Turkmenistan." (January 20). https://www.google.com.ph/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iX0t_9r8jPAhVGro8KHdroBOwQFggaMAA&url=http%3A%2F%2Foilprice.com%2FEnergy%2FEnergy-General%2FFree-Energy-Ride-Over-in-Turkmenistan.html&usg=AFQjCNEJAQBwQMgPRY9c5vFwmHvRIcvVYA(검색일: 2016. 10. 7).
"SOCAR grapples with Sourthern Gas Corridor link-up." 2016. Interfax Global Energy. (February 8). http://www.interfaxenergy.com(검색일: 2016. 8. 20).
TRACECA. "Country Report on Infrastructure and Finance Uzbekistan." http://www.traceca-org.org/fileadmin/fm-dam/Investment_Forum/110805_UZB_country_report.pdf(검색일: 2016. 10. 21).
Trade Map. http://www.trademap.org/(검색일: 2016. 8. 9).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검색일: 2016. 10. 5).

"Turkmenistan begins work on gas pipeline to India." World Bulletin. (September 4). http://www.worldbulletin.net(검색일: 2016. 11. 2).
"Turkmenistan Country Strategy Paper 2014-2020." http://ec.europa.eu/transparency/regcomitology/index.cfm?do=Search.getPDF&w97TlalgtiuyGKj9v9pF9VqBB7fI4EnisQ1BdEUO8vC5SVAw47eF02NzJJLXFBE77kGvLzo2Pu5uyjPyPE0HGhn1Yyu8a5hceFqN5ixnqYI=(검색일: 2016. 10. 21).
UN data. "Median age." http://data.un.org/(검색일: 2016. 10. 7).
_____. "Turkmen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7).
_____. "Uzbekistan." http://data.un.org/CountryProfile.aspx?crName=UZBEKISTAN(검색일: 2016. 10. 6).
UNCTAD Stat. http://unctadstat.unctad.2016/wds/TableViewer/tableView.aspx(검색일: 2016. 6. 28, 10. 6).
UNCTAD. 투자데이터베이스(flow 기준). http://unctadstat.unctad.org(검색일: 2016. 11. 2).
Wikipedia. "Transport in Uzbekistan." https://en.wikipedia.org/wiki/Transport_in_Uzbekistan(검색일: 2016. 10. 21).
WITS. "Kazakhstan import 2011-2015." http://wits.worldbank.org/CountryProfile/en/Country/KAZ/StartYear/2011/EndYear/2015/TradeFlow/Import/Indicator/MPRT-PRDCT-SHR/Partner/WLD/Product/UNCTAD-SoP3(검색일: 2016. 9. 29).
World Bank data bank.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6. 7. 20).
_____. http://databank.worldbank.org/data/home.aspx(검색일: 2016. 8. 9).
_____.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of GDP)"(검색일: 2016. 10. 5).
World Bank data. "Population Density, Turkmenistan"(검색일: 2016. 10. 21).
_____. "Population, Population ages 15-64, Population growth of Uzbekistan." http://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10. 7).
_____. data.worldbank.org/(검색일: 2016. 8. 9).
World Economic Forum. 2016. "Networked Readiness Index 2016." http://reports.weforum.org/global-information-technology-repo

rt-2015/economies/#economy=KAZ(검색일: 2016. 10. 5).

Вестник. "Казахстан - анализ основных отрасле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аны" http://365-tv.ru/index.php/analitika/%20kazakhstan/129-kazakhstan-analiz-osnovnykh%20-otraslej-promyshlennosti-strany(검색일: 2016. 10. 19).

Госстат Узбекистана. "Основ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оказатели 2015." https://www.stat.uz/(검색일: 2016. 8. 9).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0-2014 гг. http://www.baiterek.gov.kz/ru/programs/gpfiir-program/(검색일: 2016. 10. 10).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индустриально-инновационного развития РК на 2015-2019 гг. http://www.mid.gov.kz/ru/pages/gosudarstvennaya-programma-industrialno-innovacionnogo-razvitiya-respubliki-kazahstan-na-2015(검색일: 2016. 10. 14).

Комитет по Статистике Казахстана.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0."(검색일: 2016. 8. 9).

_____.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2015." http://www.stat.gov.kz(검색일: 2016. 8. 9, 8. 10).

Министерство внешн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инвестиций и торговл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http://www.mfer.uz/ru/export/statistics/(검색일: 2016. 8. 10).

Министерство экономики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Перечень 162 готовых видов продукции, материалов и комплектующих изделий, рекомендуемых к освоению отечественными производителями в 2015-2019 годах. https://mineconomy.uz/ru/local(검색일: 2016. 8. 10).

"Мировой финансово-экономический кризис, пути и меры по его преодолению в условиях Узбекистана." http://www.press-service.uz/ru/about/books/1132/(검색일: 2016. 10. 3).

О Программе мер по обеспечению структурных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модернизации и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и производства на 2015-2019 годы. http://www.uzkimyosanoat.uz/ru/documents/presidents/o-programme-mer-po-obespecheniyu-strukturnyh-preobrazovaniy-modernizacii-i-diversifikacii-proizvodstva-na-2015-2019-gody(검색일: 2016. 10. 22).

Об итогах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за 2015 год. https://mineconomy.uz/ru/node/1098(검색일: 2016. 10. 20).

Определены векторы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 2017 год. http://turkmenistan.gov.tm/?id=11803(검색일: 2016. 10. 5).

План нации - 100 конкретных шагов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яти институциональных реформ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Нурсултана Назарбаева(май 2015 года). http://online.zakon.kz/Document/?doc_id=31977084(검색일: 2016. 10. 14).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11 ноября 2014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11-noyabrya-2014-g(검색일: 2016. 10. 10).

Послание Президента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Н.Назарбаева народу Казахстана. 30 ноября 2015 г. http://www.akorda.kz/ru/addresses/poslanie-prezidenta-respubliki-kazahstan-nnazarbaeva-narodu-kazahstana-30-noyabrya-2015-g(검색일: 2016. 9. 25).

Приоритеты 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http://www.turkmenistan.gov.tm/?id=10324(검색일: 2016. 10. 10).

Программа дей ствий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на ближай шую и долгосрочную перспективу. http://www.mfa.uz/ru/press/release/2015/01/3521/(검색일: 2016. 10. 3).

Стратегия «Казахстан-2050». https://strategy2050.kz/ru/multilanguage/(검색일: 2016. 9. 25).

Структурная реорганизация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Туркменистана нацелена на диверсификацию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интеграцию страны в мировой рынок. http://www.turkmenistan.gov.tm/?id=10459(검색일: 2016. 10. 10).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 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Туркменистане. 2014. “Обзор экономики.” http://tkm.ved.gov.ru/ru/economy_fin(검색일: 2016. 9. 23).

Тр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шага реформ. http://www.turkmenistan.gov.tm/?id=2967(검색일: 2016. 8. 10).

http://125.131.31.47/Solars7DMME/004/2014_kotra%EA%B5%AD%EA%

B0%80%EC%A0%95%EB%B3%B4%EC%B9%B4%EC%9E%90%ED%9D%90%EC%8A%A4%ED%83%84.pdf(검색일: 2016. 9. 5).
http://tm.mofcom.gov.cn/article/ztdy/201606/20160601330428.shtml (검색일: 2016. 7. 23).

[인터뷰 자료]

가니예바 굴노라(Ganieva Gulnora) 우즈베키스탄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원 연구위원(2016. 9. 18, 서면 인터뷰).
김석환 한국외대 교수 토론 내용.「카리모프 대통령 서거 이후 우즈베키스탄 및 중앙아시아 미래 전망」.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9).
김영진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교수 전문가 간담회.「중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발전전략 비교 분석」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김종인.「광물자원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협력 방안」. 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운영위원회의·합동회의 프로그램 발표(2013. 5. 13).
나원창 주이탈리아 대사관 심의자료 내용(2016. 8. 30).
대우 페르가나 면방 법인장 인터뷰(2016. 7. 28, 타슈켄트).
바델바이 마마디예프(Badelbai Mamadiev) 키르기즈 공화국 국제 아타투르크 알라투 대학교(International Ataturk Alatoo University) 교수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18).
박지원 KOTRA 연구위원 대외경제전문가풀 연구회.「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방안: 카자흐스탄 대내·외 환경 기반의 상생협력시대로」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뱌체슬라프 도도노프(Vyacheslav Dodonov)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7. 11, 아스타나).
베흐조드 타가예프(Behzod Tagaev) 우즈베키스탄 내각 산하 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28).
변현섭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HK연구교수 발표 내용.「한국-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평가와 실질 경제협력 증진 방안」. KIEP 대외경제전문가풀(2016. 9. 28).
비비굴 마세르바예바(Bibigul Masserbaeva) 카자흐스탄 국가경제부 과장 면담(2016. 7. 12, 아스타나).
서중물류 관계자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세르게이 이그나쩨프(Sergei Ignatev)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세계경제·국제관계연

구소(IMEMO) 연구원 전문가 간담회 내용(2016. 10. 1, 모스크바).
송동준 현대엔지니어링 타슈켄트 지사 지사장 면담(2016. 7. 26, 타슈켄트).
아가바예트 레시예트(Agabaet Resiet) 투르크메니스탄 전략연구소 생명정책부 부소장 면담(2016. 8. 23, 아슈하바트).
아르슬란벡 오무르자코프(Arslanbek Omurzakov) 키르기즈 공화국 실크로드연구센터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안성준 KOTRA 타슈켄트 무역관 관장 면담(2016. 7. 27, 타슈켄트).
엘지 인터내셔널 관계자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염동호 (사)한국매니페스토정책연구소 이사장 전문가 간담회.「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정책 비교 분석」발표 내용(2016. 9. 28, 서울).
왕 하이얀(Wang Haiyan) 중국 화동사범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18).
왕스하이(王四海) 중국지질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 내용(2016. 9. 11).
이대우 LG상사 아슈하바트 지사 상무 면담(2016. 8. 24, 아슈하바트).
전망 및 거시경제분석 연구소 연구사무장 블라들렌 김 & 노디라 압두나자로바 팀장(2016. 7. 26, 타슈켄트).
정우진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참사관 면담(2016. 7. 11, 아스타나).
조정원 한양대 교수 전문가 간담회.「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 정책과 중국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경제협력」발표 내용(2016. 8. 4, 세종시).
쿠쉬쿰바예프 사나트(Kushkumbayev Sanat) 카자흐스탄 전략연구소 부소장 서면 인터뷰(2016. 9. 11).
탈리포바 툴쿠노브나(Talipova Tulkunovna) 우즈베키스탄 국립타쉬켄트경제대학교 교수 서면 인터뷰(2016. 9. 11).
포스코 대우 우즈베키스탄 지사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황인성 KOICA 우즈베키스탄 사무소 부소장 면담(2016. 7. 25, 타슈켄트).

[관련자료 목록]

강명구, 공석준. 2007.「투르크메니스탄의 경제발전전략과 우리나라의 진출 방안」.『유라시아연구』, 제4권 제1호.
김경. 2005.「시장경제체제 전환국들에 대한 한국기업의 투자전략: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국제경영리뷰』, 제9권 2호.
김영진. 2012.「중앙아시아 노동이주 현황과 사회경제적 영향」.『슬라브연구』, 제28권 제1호.

박지원. 2013.「중앙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투자리스크 유형과 대응: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 투자기업을 중심으로」.『중동연구』, 제32권 제1호.
윤영미 외. 2011.「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에너지 자원 협력에 대한 고찰: 특성과 과제를 중심으로」.『한국시베리아연구』, 제15권 제2호.
이경희. 2016.「중앙아시아 자원개발을 위한 가치공유국의 선택과 집중」.『한국중동학회논총』, 제36권 제3호.
이유신. 2009.「중앙아시아 가스자원의 함의와 가스관 전쟁: 러시아와 서방세력을 중심으로」.『대한정치학회보』, 제17권 제2호.
이재영. 2009.「중앙아시아의 경제와 협력 방안: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비교경제연구』, 제16권 2호.
이지은. 2015.「카자흐스탄 녹색성장정책 연구: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유라시아연구』, 제12권 4호.
정행득 외. 2009.「한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 전략」.『국제지역연구』, 제13권 제2호.
조원호. 2013.「우즈베키스탄의 인플레이션 연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중심으로」.『슬라브연구』, 제29권 제4호.
Kuchins, A. C. and J. Mankoff. 2015. "Central Asia in a Reconnecting Eurasia: Turkmenistan's Evolving Foreign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CSIS Working Paper*. (June)
Ganiev, B. and Y. Yusupov. 2012. "Trade Regime and Recent Trade Developments." *UCA Working Paper*, No. 4.
Hindly, B. 2008. "Kazakhstan and the World Economy: An Assessment of Kazakhstan's Trade Policy and Pending Accession to the WTO." *ECIPE Policy Essays*, No 1. (March)
"Connecting Central Asia with Economic Centers." 2014. *ADB Institute.*
Felipe, J. and C. Rhee. 2013. "Report to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Policies for Industrial and Service Diversification in Asia in the 21st Century." *ADB Working Report.* (October)
"Kazakhstan: Waiting for Change." 2013. *ICG Working Paper*, No. 250. (September 30)
Ruziev, K. and T. Majidov. 2013. "Differing Effects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n th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the Kyrgyz Republic and Uzbekistan." *Europe-Asia Studies*, Vol. 65, No. 4
Laruelle, M. 2014. "Russia and Central Asia." *European National Policies*

Series, No. 17. (September)
Bendini, R. 2013. "Turkmen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169. (May)
Bendini, R. 2013. "Uzbekistan: Selected Trade and Economic Issues." *European Parliament Policy Briefing*, No. 246. (September)
Mckinley, T. 2010. "The Puzzling Success of Uzbekistan's Heterodox Development." *CDPR Working Paper*, No. 44. (January)

Executive Summary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ARK Joungho, KANG Boogyun, MIN Jiyoung,
YUN ChiHyun, GWUN Kawon, and Yevgeniy Khon

Uncertainties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are increasing due to prolonged low oil prices, China's low economic growth, the possibilities of strengthened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fter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emergence of neo-isolationism due to Brexit. In this situation, the Central Asian governments are developing and pursuing individual economic strategies which reflect their ow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core policy goals.

Kazakhstan is shifting its policy direction from maximizing exports of raw materials to qualitative economic development. The country has pursued an open foreign policy and trade liberalization to overcome its geographical limitations as a small landlocked country. The open economy originally focused on exporting energy resources and attracting foreign capital, but with some control by the government in energy resources management. However, as the structural changes in the external economic environment occurre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government started to focus on improving the

structure of the economy, which remained dependent on energy resources. The key tasks for Kazakhstan were to upgrade its competitiveness, improve the investment climate, build infrastructure, diversify its industries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expand the role of private sectors, improve the efficiency of national asset management and develop human resourc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adopted the State Program of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for 2015-2019 and announced the Nurly Zhol plan for promot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2014, followed by the "100 Concrete Steps to Implement Five Institutional Reforms" in 2015. This was a strategic attempt to build a found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by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external economic sector, through securing new growth engines in the economic sector, promot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implementing structural reform.

Uzbekistan has been pursuing an import substitution policy while maintaining a closed economy since independence. Uzbekistan's government-led closed-economy essentially followed policy goals which prioritized the protection of its domestic market and economic stability from external volatility. Thereby, the country concentrated its efforts in developing domestic industries among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Thanks to this, the country has been able to accomplish considerable achievement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but still has many limitations in cultivating its export competitiveness, asits main export items are weighted towards raw materials (cotton, gold, gas, etc.) and its manufacturing sector is mostly composed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Recently, the Uzbek government is putting the highest

emphasis on enhancing competitiveness and efficiency in import substitution while promoting export-oriented industrialization. Through these efforts it aims to pursue stable economic growth based on strategic cultivation of the export industry and to drive a shift from labor-intensive industries to technology-intensive business. The government set key initiatives in reducing excessive governmental involvement in the economic sector, expanding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deregulating trade activities and exchange rates, etc. In this context, the government formulated a comprehensive global financial crisis recovery plan in 2009, and such initiatives as the "Priorities for Economic Policy" and the "Short-term and Long-term Action Plan of the Uzbekistan Cabinet" were presented in 2015. At present,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ong-term programs for economic development up to 2030, which are expected to include more details on improving the nation's industrial structure, such as the development of raw materials processing and high value-added industries.

Turkmenistan's government-led closed-economy has its key policy objective focused on natural gas exports, based on strong national control over its energy resources and the financial sector. However, such obstacles as excessive dependence on exports of raw materials, strong governmental control over the economy, and inefficiencies in the economic system have hampered sustainable economic growth. In response, the government adopted the "National Program of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urkmenistan for 2011-2030" in 2010, identifying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s a major goal of its national strategy. Modernization of the energy sector, industry diversification through cultivation of non-energy sectors were selected

as priority goals. Currently, the government is aligning its efforts with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 2012-2016," while formulating the next "Socio-economic Development Program 2017-2021." In particular, in 2016, President Verdi Muhammedov presented the "2017 Socio-economic Policy Direction," and selected three major projects: attracting active investment, fostering compani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developing the private sector. According to this agenda, future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a mineral processing complex, production of petrochemical products, and construction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will be carried out.

As mentioned above, amidst the uncertainty in the global economic environment, Central Asian countries are devoting all their energies to prepare plans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Their aim is to reform their economic structure centered on exports of resources and pursue industrial diversification. In this situation, our government should establish plans to expand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se countri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presents plans to promote economic cooperation specialized for each country.

With Kazakhstan, it is necessary to formulate plans for economic cooperation in areas that contribute to Kazakhstan's economic modernization,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ard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the six major manufacturing industries (nonferrous metals, chemicals, petrochemicals, machinery, building materials, groceries), agricultural modernization, four major innovation sectors (mobile multimedia technology, aerospace and nanotechnology, robotics and genetic engineering, future energy), tourism cluster crea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promising area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promoting cooperation in the areas of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and industrial and energy-related infrastructure can be considered. In addition, technology cooperation in high-tech industries such as medicine, biotechnolog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s well as knowhow sharing in national land development and renewable energy industries are also promising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Uzbekistan,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in the fields of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Regarding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it is most desirable to seek economic cooperation in the ten priority industries (electric power, oil and gas chemistry, chemicals, machinery, textile and leather, electronics, building materials, pharmaceuticals, groceries, and minerals), the seven most promising industries for localization (agricultural products, minerals, chemical and related industrial products, textile materials, building materials, metal products, machinery and equipment), and the agricultural sector.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we can cooperate in areas of transportation, and industrial and energy sectors. In addition, the healthcare industry, construction of a joint industrial complex, eco-friendly green technology, tourism industry are also desirable areas for bilateral cooperation.

For Turkmenistan,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operation plans linked with industrial diversification, localization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which is quite the same with Uzbekistan's case. However, the details within each sector are different. In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and localization sector, we should focus on industrial modernization (oil

and gas, chemicals, light industry, food processing, building materials, machinery, textile, agricultural products), localization (building materials, chemicals, household appliances, grocery products), and export promotion industries (chemicals, agriculture, pharmaceuticals, light industry, grocery products). Regarding infrastructur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tourism-related infrastructure connected with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north-south and east-west corridors, complex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hub, and tourism cluster),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agricultural sectors (processing facilities for dairy products, fruits, vegetables, fish) are promising areas of economic cooperation. In addition, further cooperation measures should be explored in the tourism sector, which has recently been designated as one of the priority industries in the non-energy sector.

Overall, approaches for expand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based on the holding of regular high-level talks, our government should continue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key Central Asian figures, especially through summit diplomacy with key nations in the region. In addition, we should upgrade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which has been held at the vice-ministerial level, to a summit-level meeting. Through this, we can pioneer the "3.0 era of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 and Korea" while further strengthening the responsibilities and performances of cooperation.

Secondly, deciding on the main actor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entral Asia and Korea is highly essential. An organization to

formulate short- to mid- and long-term strategies for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is needed in order to promote deeper economic cooperation. To this end, a Korea-Central Asia economic cooperation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under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to coordinate Ko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major nations in the region. In principle, the committee should be composed of 1.5 tracks, in which all public organizations and representatives of private enterprises in every country participate. In this way, efforts to establish systematic supportive measures and cooperation policies targeting domestic SMEs can also be made.

Thirdly, we should seriously consider establishing a fund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entral Asia to promote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countries. It is highly important to reduce investment and cooperation risks for private companies which have limited financial resources. Funds can be sought by national banks in each country and be reviewed to see if ou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und can also be made available to sup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Finally, since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Central Asian countries will depend on human resources, a systematic supporting system that includes professional technical training, industrial specialists training, academic and technical exchanges, should be provided by establishing a "Korea-Central Asia Future Generation Promotion Committee" under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For example, we should prospectively consider establishing vocational training schools and operating technical education programs in Central Asia, as well as supporting international students from Central Asia through various special program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경훈 · 최혜린 · 강은정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지영 · 최유정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 곽성일 · 정재완 · 김제국 · 신민이 · 라미령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웅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KIEP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원문은 홈페이지(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노수연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흥종 외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흥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협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홍

16-20 민관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 · 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얀

■ 2015년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15-12 한 · 중 · 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새별

15-13 북 · 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15-15 인도 모디(Modi)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 · 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율 · 이주영 · 송지혜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 · 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웅 · 문성만 · 권혁주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빈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15-30 한 · 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15-31 21세기 한 · 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 · 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15-34 브라질의 對아프리카(포어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재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经济与合作朝鲜变革发展展望) / 찐저 · 쉬원지 · 위즈쌴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国におけるイ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14-12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 博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윤아 · 이 웅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곽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웅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채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 · 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鲜半岛统一与中国的国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强一) · 삐야오인쩌(朴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国統一と日本経済) / 후카오 쿄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権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 (Анализз атративыгоддля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베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종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박정호(朴正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정치학 박사
러시아 모스크바국립국제관계대학교 전임강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장
(現, E-mail: jounghopark@kiep.go.kr)

저서 및 논문

『EEU 출범과 유라시아 국제관계 변화』(공저, 2014)
『우크라이나 위기 발발 이후 러시아 경제상황 변화와 정책 시사점』(공저, 2016) 외

강부균(姜扶均)

연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졸업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bgkang@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4)
『러시아의 '경제 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공저, 2015) 외

민지영(閔智英)

한국외국어대학교 노어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ymin@kiep.go.kr)

저서 및 논문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공저, 2014)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 · 러 협력방안』(공저, 2015) 외

윤지현(尹智賢)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개발협력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現, E-mail: chyun@kiep.go.kr)

저서 및 논문

「수교 25주년, 한 · 몽 경제협력의 성과와 과제」(공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5-09, 2015)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출의 대외적 변수와 해결 과제」(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08, 2016) 외

권가원(權佳媛)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 석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 · 유라시아본부 러시아 · 유라시아팀 연구원

저서 및 논문

「한국과 몽골의 경제협력 현황과 증진방안」(공저,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6-15, 2016)
『신흥국 건설시장 진출 관련 국가 리스크와 대응방안』(공저, 2016) 외

예브게니 홍(Yevgeniy Khon)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산하 전략연구소 경제연구팀장
(現, E-mail: khon.yv@gmail.com)

저서 및 논문

"Kazakhstan's Logistical Network in Strategic Locations: Prospects and Possible Benefits"(*Central Asia's Affairs*, 2(58): 40-42, 2015, in English)
"*China's Central Asian Strategy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Kazakhstan*"(with Beom-Shik Shin, *Asia-Review*, 4(2): 181-204, 2015, in Korean)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8만원		4만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발간물일체	A 계간지
기 관 회 원 □ 개 인 회 원 □ 연 구 자 회 원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Policy Analysis 16-19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of Major Central Asian Countrie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PARK Joungho, KANG Boogyun, MIN Jiyoung ,
YUN ChiHyun, GWUN Kawon, and Yevgeniy Khon

이 연구는 중앙아시아 주요국 경제발전전략의 기본 방향과 핵심 특성을 분석하고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중앙아시아 주요국 정부의 최대 관심사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의존도 축소, 산업다각화와 경제현대화를 통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있었다. 따라서 한국은 중앙아 주요국의 신경제발전정책에 부합하는 상생 경제협력 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 한 · 중앙아 경제협력위원회 구성, 한 · 중앙아 산업협력 펀드 조성, 산업다각화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경제협력 확대방안으로 제안했다.

94320
9 788932 216348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ISBN 978-89-322-1634-8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044-414-1114 F.044-414-1001 • www.kiep.go.kr